

2026년 신라사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 고대의 ‘死者의 書’

-묘지명·매지권에 투영된 고대 사회의 생사관-

2026. 6. 20.(토) 13:00~18:00

한성대학교 미래관 지하1층 ELC

신라사학회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

학술대회 일정

사회: 윤성호(한성대학교)	
13:00~13:20	참가자 등록
13:20~13:30	개회사: 장창은(신라사학회장)
13:30~14:00	기조강연 주 제: 한국 고대 묘지명·매지권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김영관(충북대학교)
14:00~14:20	주제발표 1 주 제: 고구려 묘지에 나타난 생사관과 장송의례 발표자: 김근식(전남대학교)
14:20~14:40	주제발표 2 주 제: 王陵에서 地方으로 -百濟 冥界 空間秩序 속 買地券의 전개- 발표자: 쉬 리 (부산외국어대학교)
14:40~15:00	휴식시간
사회: 최희준(동덕여자대학교)	
15:00~15:20	주제발표 3 주 제: 발해 묘지명에 드러난 亡子の 삶과 장송의례 -발해 묘지명의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유정(서울대학교)
15:20~15:40	주제발표 4 주 제: 신라 묘지명 자료의 희소성과 사후 인식 발표자: 이동주 (경북대학교)
15:40~16:00	휴식시간
종합토론 좌장: 채미하(한국교통대학교)	
16:00~18:00	발표자 전원 / 안정준(서울시립대학교), 이장웅(건국대학교), 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준수(국민대학교)

목차

기조강연	한국 고대 묘지명·매지권 연구의 현황과 과제	4
	발표_김영관(충북대학교)	
주제발표 1	고구려 묘지에 나타난 생사관과 장송 의례	36
	발표_김근식(전남대학교)	
	토론_안정준(서울시립대학교)	
주제발표 2	王陵에서 地方으로	52
	발표_쉬리(부산외국어대학교)	
	토론_이장웅(건국대학교)	
주제발표 3	발해 묘지명에 드러난 亡者の 삶과 장송의례	78
	발표_박유정(서울대학교)	
	토론_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발표 4	신라 묘지명 자료의 희소성과 사후 인식	104
	발표_이동주(경북대학교)	
	토론_한준수(국민대학교)	

기조강연

한국 고대 묘지명·매지권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 영 관
(충북대학교)

-
- I. 머리말
 - II. 한국 고대 국가의 묘지 현황과 정리
 - 1. 삼국의 묘지
 - 2. 발해의 묘지
 - III. 한국 고대 유민 묘지의 현황과 정리
 - 1. 고구려 유민 묘지
 - 2. 백제 유민 묘지
 - 3. 재당 신라인 묘지
 - 4. 재당 발해인 묘지
 - IV. 한국 고대인 묘지 관련 연구 동향
 - 1. 일본학계의 연구
 - 2. 중국학계의 연구
 - 3. 한국학계의 연구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고대국가의 葬墓에 묘지와 매지권을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가 극소수라 큰 관심을 가질만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묘지나 매지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논의가 드물었다. 단지, 1971년 공주 송산리에서 무령왕릉을 발굴하면서 묘주에 대해 기록한 돌판을 발굴하면서 墓誌인지 買地券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뿐이다.

묘지와 매지권은 묘주의 신분과 무덤을 만든 시기 등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묘주와 함께 매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묘지라는 범주에서 통용된다. 하지만, 기록 내용의 핵심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묘지는 묘주의 신분뿐만 아니라 가계와 일생, 덕행의 칭송 등이 기록의 핵심이고, 매지권은 묘주를 매장하는 구역을 토지신으로부터 사들여서 사용을 허가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묘지나 매지권은 중국 장묘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고대국가에서 알려진 묘지나 매지권 역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¹⁾

묘지는 묘주의 가계를 밝히고 일생을 기록하여 후대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앙하기 위해 만든 묘비와 같은 기능을 갖추면서도 曹魏時期 이후 禁碑令에 따라 지하에 매장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변화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墓記, 壙記, 壙誌, 墓記 등으로도 표기했다. 여기에 묘주에 대한 찬양 또는 찬사인 銘이나 詞, 辭, 歌, 頌 등이 추가로 기재된 것은 墓誌銘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매지권은 망자의 유택을 토지신으로부터 구매한 문서로 묘주에 대한 찬양이나 찬사 등은 없으며, 애초부터 지하에 묻는 것으로 墓券, 地券 등으로도 표기했다.

묘지와 매지권 등의 기록은 역사와 문화 연구에 중요한 특급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묘주의 장례와 관련된 기록이지만, 묘주의 일생과 관련된 동시기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서가 편찬되기 전에 작성된 1차 사료로서 소홀히 할 수 없다. 역사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인사에 대한 기록으로 역사의 공백을 촘촘히 메꿔주기도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한편,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거나 보정해 주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고대국가 내에서 만들어진 묘지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간단히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역사적인 관계상 불가분의 관계였고 다양한 이유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고대인과 그 후예들의 묘지 현황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들 묘지명을 둘러싼 연구 동향을 개관한 뒤 몇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제언해 보겠다.

II. 한국 고대국가의 묘지 현황과 정리

1. 삼국의 묘지

1) 국내 출판 연구서 중에서 중국의 묘지와 매지권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홍승현, 2024, 『돌에 새긴 인생 -석각 속 중국 고대의 풍경-』, 해안을 참고하길 바란다.

한국고대국가의 영역 내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서 모두 묘지가 발견되었다. 우선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묘지를 발견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고구려 묘지 현황

연번	명 칭	제작시기	재질 (기재법)	출토지 (소장처)	비고
1	牟頭婁 墓誌	5세기 경	회벽 墨書	중국 遼寧省 集安市 太王鎮 下解放村	1935년 발견
2	안악 3호분 冬壽 墓誌	東晉 永和 13년 고국원왕 27년 (357)	회벽 墨書	황해도 안악군 오국리 (현지 보존)	구 안악군 용순면 유설리 1949년 발굴
3	幽州刺史 鎮 墓誌	영락 18년 광개토왕 18년 (408)	회벽 墨書	평남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동(현지 보존)	구 평남 대안시 덕흥리 1976년 발굴

고구려에서는 고분 내 현실의 벽을 회로 마감한 후에 묵서로 묘주의 신원을 밝혔다. 이는 벽화를 그려 넣으면서 별도의 묘지 대신에 회벽에 묵서로 기록을 남긴 것이다. 중국 역대 왕조에서 무덤 내에 회벽을 조성하고 벽화를 그려 장식한 사례는 허다한 편이지만 묵서로 묘주의 신원을 밝힌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중국 학자들이 안악 3호분과 덕흥리 고분의 묘주가 중국에서 고구려로 이주한 이주민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벽화의 내용이 중국 한대 벽화와 유사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고구려의 묵서 묘지와 유사한 사례는 중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묵서 묘지가 있는 안악 3호분과 덕흥리 고분은 고구려 장례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耿鐵華는 모두루무덤의 묵서 분석을 통해 묘주가 冉牟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다. 하지만, 묘지에 기록된 염모는 모두루의 선조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안악 3호분은 북한 학자들에 의해 고국원왕 또는 미천왕의 무덤이라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백제에서 만들어진 묘지는 무령왕릉 출토품으로 2매 3건이 전부이다. 다음 표와 같다.

<표 4> 백제 묘지 현황

연번	명 칭	제작시기	재질 (기재법)	출토지 (소장처)	비고
1	무령왕 묘지 (462~523)	성왕 3년 (525)	각섬석 음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국립공주박물관)	1971년 발굴
2	무령왕비 묘지 (?~526)	성왕 7년 (529)	각섬석 음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국립공주박물관)	1971년 발굴
3	무령왕 매지권	성왕 3년 (525)	각섬석 음각		매지권 뒷면에 왕비 묘지 추각

백제 묘지는 1971년 발굴된 무령왕과 왕비의 지석이 전부이다. 묘주를 찬양하는 글이

없으므로 묘지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고, 왕비 묘지의 뒷면에 무덤자리를 토지신으로부터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매지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지권이 나 墓券 등으로도 부르고 있다.

발굴된 이후 판독 문제, 빈전 문제, 상장례 절차 문제, 당시 사용한 역법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 그리고 무령왕릉의 구조와 출토 유물 등으로 통해 묘지도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만, 묘지의 형태가 남조의 것들과 비교될 만한 것이 없어서 묘지의 형태적 기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는 비교 대상인 남조 묘지의 사례가 겨우 75개 정도이고²⁾ 묘지의 재질과 모양 역시 제각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묘지의 형제가 완성되지 않은 남조의 묘지와 무령왕의 묘지는 모두 묘주의 신분과 장지, 장례일만을 간단하게 기록한 墓記 또는 墓表와 같은 성격에 불과하다.

신라의 묘지는 경주 시내에서 찾아진 2건이 전부이다. 만들어진 시기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신라 묘지 현황

연번	명 칭	제작시기	재질 (기재법)	출토지 (소장처)	비고
1	용강동 6호분 출토 묘지	7세기 중반~ 8세기 초반	無紋磚 朱書	경북 경주시 용강동 (국립경주박물관)	개석은 화강석, 1991년 발굴
2	裴處崇 墓誌	唐 乾寧 2년 진성여왕 9년 (895)	편마암음 각	경북 경주시 천군동 북군리(국립경주박물관)	墓記에 가까움, 1957년 발견

용강동 6호분에서 발굴된 묘지는 무문전 위에 朱書로 묘주의 신원과 장지, 장례일 등을 기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전혀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일반적 인 묘지와 같이 돌로 된 개석을 갖추고 있다. 용강동 6호분의 구조와 출토 유물 등으로 보아 7세기 중반에서 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묘주에 관한 기록을 판독할 수 없어 구체적인 제작 시기와 묘주를 알 수 없다.

경주시 천군동에서 수습한 裴處崇墓誌는 완전한 형태의 6면체 석질에 ‘乾寧二年 乙卯年 前 城山令



<도 1> 경주 용강동 6호분 출토 전지와 화강암 개석 사진 (2013년 11월 국립경주박물관 보도자료)

2) 南京市博物館總館 編, 2025, 『貞珉流徽-南京出土東晉南朝墓誌』, 鳳凰出版社.

裴處崇'이라고 14자만을 음각으로 새겨 묘주만을 간단히 표시한 墓記 또는 墓表이다. 신라 말인 진성여왕 9년(895)에 만들어진 것이다. 한때 묘지가 아닌 성돌이라고도 했고, 묘주를 裴零崇이라고도 판독했지만, 후에 정밀한 판독으로 城山승을 지낸 裴處崇의 묘지라고 수정하였다.

현재 알려진 2건의 묘지는 신라와 당의 활발한 문화 교류 시간과 농도를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량이다. 이는 신라가 당의 장례문화를 거의 수용하지 않고 고유의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한 까닭에서 말미암은 결과로 보인다. 부여와 가야에서 묘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신라와 같은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2. 발해의 묘지

발해는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고토에 새로 건국한 국가이므로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의 묘지와는 상호 영향 관계를 따지기 어렵다. 특히 고구려가 5세기 이후에는 묘지를 남긴 사례가 없으므로 비교할 자료조차도 없다. 모두루 묘지나 덕흥리 고분의 묘지 이후에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발해의 묘지는 동시대에 이웃했던 국가인 당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장안이나 낙양 등 당 중심지의 것들과 동일한 모양은 아니지만, 기재 방식과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발해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발해 묘지 현황

연번	명 칭	제작시기	재질 (기재법)	출토지 (소장처)	비고
1	貞惠公主 墓誌銘 (738~777)	唐 寶曆 7년 (780)	석제 음각	中國 吉林省 敦化市 江東鄉 勝利村 六頂山 (吉林省博物院)	1949년 8월 발굴 비석형 묘지 文王의 2女
2	貞孝公主 墓誌銘 (757~792)	渤海 大興 56년 (792)	석제 음각	中國 吉林省 和龍市 龍水鄉 龍海村 (延邊博物館)	1980년 발굴 비석형 묘지 文王의 4女
3	孝懿皇后 墓誌銘 (726~775)	唐 寶曆 2년 (775)	석제 음각	中國 吉林省 和龍市 두도진 용두산고분군 (화룡시문물관리소?)	2004~2005년 발굴 비석형 묘지 文王의 妃
4	順穆皇后 墓誌銘 (?~?)	渤海 建興 12년 (829)	석제 음각	中國 吉林省 和龍市 두도진 용두산고분군 (화룡시문물관리소?)	2004~2005년 발굴 비석형 묘지 簡王의 妃 泰氏

발해의 묘지명은 모두 발굴을 통해서 알려졌다. 4건에 불과하지만, 문왕과 간왕 대에 만들어진 공주와 황후 등 황실의 묘지명이다. 형태는 모두가 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묘비형이다. 이러한 형태적 특이성 때문에 발해의 묘지는 묘지가 아니라 묘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묘비는 지상에 세우는 것이고 묘지는 지하에 세우거나 눕혀서 안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묘비보다는 묘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발해의 묘지는 모두 지문과 명문을 갖춘 묘지명에 해당한다.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효의황후 묘지명을 통해 문왕 대 황실의 가족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 또한 정효공주 묘지문을 통해서 발해 황족이 전문성왕을 자처했음을 살필 수 있어 불교를 어떻게 통치의 도

구로 활용했는지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발해 문왕의 존호가 있었음과 황후, 대왕 등의 용어를 사용했고, 대흥과 건흥 등 발해 고유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학계에서 발해를 당에 복속된 동북지방 소수민족의 정권이라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문왕의 공주와 황후 등의 묘지명을 장례에 사용했다는 것은 발해 황실에서 보편적으로 묘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해 묘역에서 더 많은 묘지가 출토될 가능성이 크다.

Ⅲ. 한국 고대 유민 묘지의 현황과 정리

1. 고구려 유민 묘지

고구려는 중국의 역대 왕조와 이웃하면서 경쟁하였고, 세력의 부침에 따라 인적 이동과 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668년에는 당과 신라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인들은 당의 수도인 장안과 낙양을 비롯해 여러 곳으로 끌려갔거나 이주했다. 그 결과 당 내지에 흔적을 남겼고 묘지 역시 그중 한 가지이다. 지금까지 당 내지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민의 묘지를 만들어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고구려 유민 묘지 현황

연번	명 칭	제작시기	재질 (기재법)	출토지 (소장처)	비고
1	高饒苗 墓誌銘 (?~673)	唐 咸亨 4년 (673)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西安碑林博物館)	2007년 수집
2	高提昔 墓誌銘 (649~674)	唐 上元 원년 (674)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2012년 출토, 泉府君夫人, 당에서 출생
3	李他仁 墓誌銘 (609~675)	唐 儀鳳 2년 (677)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陝西省考古研究院)	1989년 출토
4	泉男生 墓誌銘 (634~679)	唐 儀鳳 4년 (679)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 (河南省博物院)	1922년 출토, 연개소문의 아들
5	高玄 墓誌銘 (642~690)	武周 天授 2년(691)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 (千唐誌齋)	1936년 출토
6	高英淑 墓誌銘 (643~691)	武周 延載 원년(694)	석제 음각	中國 遼寧省 朝陽市 西大營子鎮 (朝陽市博物館)	1975년 출토. 大周游騎將軍左 金吾衛遼西府折 衝都尉故夫人
7	高足西 墓誌銘 (626~695)	武周 萬歲通天 2년 (697)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伊川縣 (伊川縣文物管理局)	1990년 출토
8	高牟 墓誌銘 (640~694)	武周 聖曆 2년 (699)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 (낙양 개인 소장)	2013년 소개, 묘지명 행방 불명, 루정호가 탁본 공개

9	高質 墓誌銘 (626~697)	唐 武周 聖曆 3년(700)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千唐誌齋)	高慈의 부친
10	高乙德 墓誌銘 (618~699)	唐 大足 원년 (701)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龍門博物館)	
11	高慈 墓誌銘 (665~697)	唐 武周 聖曆 3년(701)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千唐誌齋)	1917년 출토, 高質의 아들
12	泉獻誠 墓誌銘 (650~692)	唐 大足 원년 (701)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 (北京大學圖書館)	1926년 출토, 묘지 명, 행방 불명, 북 경대학교서관탁본, 천남생의 아들
13	泉男産 墓誌銘 (639~701)	武周 長安 2년(702)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 (北京大學考古文博 學院)	1923년 출토, 연개소문의 아들
14	高延福 墓誌銘 (661~723)	唐 開元 12년 (724)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江蘇省 淮安市 楚州博物館, 中國漕運歷史博物館)	1781년 陝西巡撫 畢沅 購得, 高力士의 養父
15	李仁晦 墓誌銘 (683~730)	唐 開元 18년 (730)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伊川縣 (소장처 불명)	묘지명, 행방 불명, 탁본 유존
16	高木盧 墓誌銘 (649~729)	당 開元 18년 (730)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西安碑林博物館)	1955년 출토
17	李仁德 墓誌銘 (673~733)	唐 開元 21년 (733)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西安碑林博物館)	
18	泉毖 墓誌銘 (708~729)	唐 開元 21년 (733)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 (洛陽博物館)	1926년 출토, 개석 유실, 천헌성의 손자
19	王景曜 墓誌銘 (688~734)	唐 開元 23년 (735)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千唐誌齋)	
20	李隱之 墓誌銘 (655~705)	唐 開元 27년 (739)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龍門博物館)	2015년 소개, 李懷의 부친, 고구려 멸망 전 입당
21	豆善富 墓誌銘 (684~741)	唐 開元 29년 (741)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開封博物館)	
22	高德 墓誌銘 (676~742)	唐 天寶 원년 (742)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千唐誌齋)	
23	劉元貞 墓誌銘 (?~744)	唐 天寶 3년 (744)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千唐誌齋)	
24	李懷 墓誌銘 (678~745)	唐 天寶 4년 (745)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千唐誌齋)	1928년 출토, 李隱之의 아들
25	高遠望 墓誌銘 (677~733)	唐 天寶 4년 (745)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1997년 출토, 高欽德의 아들
26	大相惠 墓誌銘 (650~732)	唐 天寶 7년 (748)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西安市 개인 소장)	2025년 공개
27	高欽德 墓誌銘 (677~733)	唐 天寶 9년 (750)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南京博物院)	1929년 출토, 高遠望의 부친
28	高氏夫人 墓誌銘 (731~772)	唐 大曆 7년 (772)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伊川縣 (伊川縣文物管理局)	1990년 출토, 高震의 딸 邵陝夫人

29	高冲雲 墓誌銘 (?~774)	唐 大曆 10년 (775)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咸陽市 (陝西省考古研究院)	2020년 출토
30	南單德 墓誌銘 (699~776)	唐 大曆 11년 (776)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西安碑林博物館)	2010년 출토
31	高震 墓誌銘 (700~773)	唐 大曆 13년 (778)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소장처 불명)	1926년 출토, 보장왕 손자, 고씨부인의 부친
32	馬君妻泉墓氏 誌銘 (726~807)	唐 元和 3년 (808)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陝西省考古研究院)	餘杭郡 太夫人
33	似先義逸 墓誌銘 (796~850)	唐 大中 4년 (850)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西安碑林博物館)	1993년 출토

고구려 유민 묘지명은 대략 보장왕의 후손들과 왕족인 고씨, 연개소문의 자식과 후손인 천씨를 비롯해 이씨와 남씨, 왕씨, 두선씨, 대상씨 등 다양하다. 백제와 신라에 비해 찾아진 고구려 유민 묘지명이 훨씬 많다. 고구려 유민은 입당 시기 및 활동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눠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고구려 유민의 후예로 보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고제석이나 고영숙, 고연복, 유원정, 사선의일 등과 같은 인물은 고구려 유민이나 유민의 후손이라고 보기에는 불확실한 면이 보이기 때문이다.

묘지명을 통해서 문헌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 전쟁과 그 이후에 고구려 왕족과 귀족들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또한, 고구려 멸망 이전에 북위와 북주, 북제, 수 등에서 활동한 고구려인들의 모습을 알려주기도 한다.

발해 고씨를 칭하고 발해 修人, 條人, 修縣이나 條縣 출신이라고 기록한 묘지명의 주인공들이 요동 출신이라면 고구려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다는 姚薇元의 지적은 참고할 만하다.

이외에, 고구려 멸망 이전에도 북조 국가들과의 관계나 영토의 변동 속에서 이주한 고구려인들의 묘지가 더 있다. 다음 표와 같다.

<표 8> 고구려 멸망 전 이주한 고구려인 묘지 현황

연번	명 칭	제작시기	재질 (기재법)	출토지 (소장처)	비고
1	文昭皇太后 山陵誌 (? ~ 497)	北魏 神龜 2년 (519)	석제 음각	中國 河南省 洛陽市 邙山 (洛陽博物館)	1919년 출토, 宣武帝의 母后, 高照容
2	高賓 墓誌銘 (502~572)	北周 乾德 원년 (572)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咸陽市 (陝西省考古研究院)	2007년 발굴, 北周에서 獨孤賓으로 개명

북주 때 만들어진 고빈묘지명은 고구려 출신 이주민인 북위 문소태후 일족이 대대로 명맥을 이어 북조 국가에서 명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이다. 또한 고빈은 『周書』에 입전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묘지명의 기재를 통해 열전의 생몰년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 당의 游騎將軍 左金吾衛 遼西府 折衝都尉의 부

인이었던 고영숙의 선조도 북주에 출사한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는 점에서 고구려 멸망 이전에 여러 사유로 고구려에서 벗어난 집단과 그 후예의 존재도 주목할 수 있다.

2. 백제 유민 묘지

백제는 660년 신라와 당 연합군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그 결과 많은 왕족과 귀족, 백성들이 당군의 포로가 되어 낙양과 장안 등지로 끌려갔다. 또한 백제 고토에 설치한 웅진도독부가 명목상이지만 676년까지 유지되면서 당으로 갔다가 백제로 돌아온 유민들도 있지만, 웅진도독부의 해체와 함께 당으로 이주한 인원들도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주하거나 끌려간 백성들 역시 묘지와 같은 자취를 당에서 남겼다. 이를 알려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백제 유민 묘지 현황

연번	명 칭	제작시기	재질 (기재법)	출토지 (소장처)	비고
1	扶餘隆 墓誌銘 (615~682)	唐 永淳 원년(682)	청석 음각	中國 河南城 洛陽市 邙山 (지석: 河南省博物院) (개석: 洛陽博物館)	1919년 발견
2	黑齒常之 墓誌銘 (630~689)	武周 聖曆 2년(699)	청석 음각	中國 河南城 洛陽市 邙山 (지석: 南京博物院)	1929년 발견, 개석 유실
3	黑齒俊 墓誌銘 (676~706)	唐 神龍 2년(706)	청석 음각	中國 河南城 洛陽市 邙山 (지석: 南京博物院)	1929년 발견 개석 유실
4	難元慶 墓誌銘 (663~723)	唐 開元 22년(734)	청석 음각	中國 河南城 平頂山市 魯山縣(魯山縣文化館)	1960년 발견 개석 유실
5	扶餘太妃 墓誌銘 (690~738)	唐 開元 26년(738)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渭南市 富平縣(陝西省考古研究院 涇渭基地)	2004년 발굴, 의자왕 증손녀
6	祢寔進 墓誌銘 (615~672)	唐 咸亨 3년(672)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長安區(洛陽理工學院 博物館)	2006년경 도굴
7	祢素士 墓誌銘 (?~708)	唐 景龍 2년(708)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長安區(西安市文物保護考古 研究院)	20010년 발굴, 예식진 아들
8	祢仁秀 墓誌銘 (675~727)	唐 天寶 9년(720)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長安區(西安市文物保護考古 研究院)	20010년 발굴, 예식진 손자
9	祢軍 墓誌銘 (613~678)	唐 儀鳳 3년(678)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長安區(西安博物院)	20010년 발견, 예식진의 형
10	陳法子 墓誌銘 (615~680)	武周 天授 2년(691)	청석 음각	中國 河南城 洛陽市 邙山 (大唐西市博物館)	2007년 수집
11	扶餘豐女 (647~729)夫婦合 葬 墓誌銘	唐 開元 17년(729)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長安區(소장처 미상)	2021년 탁본 공개, 의자왕의 왕자 부여풍의 딸
12	李濟 墓誌銘 (776~825)	唐 寶曆 2년(775)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長安區(西安市 長安博物館)	2011년 탁본 공개, 扶餘太妃의 外曾孫子, 개석 유실

백제 유민의 묘지는 의자왕의 후손과 귀족들의 후손과 관련한 것들이다.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 손녀인 부여풍의 딸, 부여융의 손녀인 부여태비 등 3건은 백제 왕실 후예의 묘지이다. 여기에 부여태비의 외증손자 이제 묘지 등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흑치상지 부자 묘지, 예식진과 아들, 손자, 예식진의 형인 예군 묘지 등 예씨 묘지 4건과 난원경 묘지 등은 당의 백제 공격 시 투항한 귀족 가문의 후손과 관련된 것이다.

부여융, 부여풍의 딸, 흑치상지, 예군과 예식진, 진법자 등은 모두 백제 멸망 이전에 태어난 입당 1세대였다. 부여태비, 흑치준, 난원경, 예소사, 예인수 등은 모두 당에서 태어나 당인으로 산 인물들이다. 부여태비와 그녀의 외증손자인 이제는 당 황실의 일원이었다. 당의 귀족 조인본과 부여풍 딸 부부의 합장 묘지명을 통해서 그동안 부여풍의 부계에 대한 기록상의 혼란을 바로 잡았다. 왜에서 귀국해 주류성을 중심으로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다가 백강구 전투 패전 이후 고구려로 달아났다가 고구려 멸망 후에는 당군의 포로가 되어 영남으로 유배당한 부여풍이 의자왕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3. 재당 신라인 묘지

신라인 묘지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 묘지와는 달리 강제적인 이주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주한 인물의 묘지이다. 당과 신라의 인적 교류를 통한 이주민이 남긴 것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0> 재당 신라인 묘지 현황

연번	명 칭	제작시기	재질 (기재법)	출토지 (소장처)	비고
1	金泳 墓誌銘 (747~794)	唐 開元 22년(734)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雁塔區(陝西省考古研究院)	2022년 발굴
2	金日晟 墓誌銘 (713~774)	唐 大曆 9년(774)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大唐西市博物館)	2007년 수집
3	清河縣君金氏夫人 墓誌銘(?~772)	唐 建中 원년(780)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西安碑林博物館)	
4	李璆妻金氏夫人 墓誌銘(832~864)	唐 咸通 5년(864)	청석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灊橋區 郭家灘 (西安碑林博物館)	1954년 발견
5	薛瑤 墓誌銘 (?~693)	7세기 말 추정	-	지석 실물 확인 불가, 『文苑英華』, 『全唐詩』 등 수록	唐 陳子昂 撰

지금까지 분명히 알려진 신라인의 묘지는 겨우 5건이다. 묘지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薛瑤 墓誌銘을 제외한 4건이다. 신라의 왕성과 같은 김씨 묘지명이 많이 있지만, 묘지문에 출신을 알려주는 내용이 없어 신라인 묘지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묘지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신라 출신임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당에는 흉노의 후손으로 김씨 성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묘지문에 김씨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국적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薛瑤 墓誌銘의 설요 역시 묘지명에 신라국이 아닌 東明國 출신이라고 하여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대개 薛氏가 신라 귀족의 성이

라는 점에서 신라인으로 보고 있다.

신라와 당이 오랫동안 인적 교류를 했음을 고려하면 신라인 묘지명의 발견 사례가 적은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신라인의 묘지명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묘지명 발견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신라인들의 장례 습속에서 말미암은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신라 내에서의 묘지 발견 사례가 겨우 2건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즉, 신라인은 장례 때 굳이 묘지명을 만들어 지하에 묻는 풍습보다는 묘비를 지상에 세워 묘주를 기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또한 당에서 활동하다가 죽은 신라인들은 金仁問이나 金良圖의 사례처럼 신라 본국으로 歸葬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능한 당이 아닌 신라에 유해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결국 당에서 삶을 마쳤더라도 신라 본국으로 귀장하는 풍습에 따라 당에 무덤을 마련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그 결과 당에서 활동한 신라인의 수에 비해서 묘지명을 남길만한 사유가 적었고, 묘지명의 발견 사례도 당연히 적은 것이 아닌가 한다.

4. 재당 발해인 묘지

당 내지에서 발견된 발해인 묘지는 1건이다. 원래 발해 부여부의 수령이었다가 당에 투항해서 734년 거란과의 전투에서 무장으로 활약한 낙사계의 묘지명이다. 낙사계가 발해에 투항한 경위는 알 수 없다. 당에서 관직과 盧庭實이라는 새로운 성과 이름을 현종에게 받았다. 그렇지만 묘지명에는 원래 발해에서 쓰던 낙사계라는 이름을 적었다. 이는 그와 그의 자식이 당으로 간 이후에도 발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표 11> 재당 발해인 묘지

연번	명 칭	제작시기	재질 (기재법)	출토지 (소장처)	비고
1	諾思計 墓誌銘 (?~748)	唐 天寶 7년(748)	석제 음각	中國 陝西省 西安市 (西安博物院)	발해 부여부 수령, 盧庭實으로 개명

발해와 당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발해인의 묘지명이 더 찾아질 가능성은 있다. 고구려 유민과 마찬가지로 발해 고씨를 칭하고 발해 修縣이나 條縣 출신이라고 기록한 묘지명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해 멸망 후 요금 대에 활동한 발해 유민의 묘지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들 이외에 더 많은 사례가 찾아질 가능성이 크다.

IV. 한국 고대인 묘지 관련 연구 동향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목서 묘지가 3건, 신라는 무령왕과 왕비의 묘지 등 2건과 매지권 1건, 신라는 주서 전지와 석제 묘지 등 2건, 발해는 공주와 황후의 묘지 4건 등 모두 11건의 묘지와 1건의 매지권이 알려졌다.

고구려 유민이나 고구려 출신 이민자 묘지명은 고구려 멸망 이전의 것이 2건, 멸망 이후의 것이 33건이다. 백제 멸망 이후에 당으로 이주한 백제 유민의 묘지명은 부계로 보면 11건, 李濟와 같이 모계 후손의 것까지 포함한다면 12건이 알려졌다. 그리고 신라는 당으로 이주한 여인 3명의 묘지와 2명의 왕실 후에 묘지 등 5건이 알려졌다. 발해는 당으로 투항했던 낙사계묘지명 1건이 알려졌다. 모두 53건이다. 대개 중국 역사의 중심 무대였던 낙양과 서안에서 발견되고 출토되었다. 매지권은 국내에서는 무령왕릉 관련 1건 이외에 알려진 것은 없다. 중국에서도 고구려와 백제, 신라, 발해 관련 매지권은 아직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이는 중국에서도 동시기 묘지명의 발견 사례에 비해 매지권의 발견 사례가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와 백제, 신라, 발해인 또는 유민의 묘지명 등을 합산하면 64건이나 된다. 묘지문의 기재 내용이 묘주의 출신과 선조 및 후손, 일생의 활동과 공덕의 찬양 등이라는 점에서 1건의 묘지명은 1편의 열전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64건의 묘지명은 역사서에는 없었던 64명의 열전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도 역사서로 가공되기 전의 생생한 기록들이라 생동감이 넘치고 사료적 가치가 더 크다.

비록 묘지문은 대체로 묘주의 일생 중 부정적인 내용은 수록하지 않고 일생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이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문장을 꾸미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자료로서 갖는 한계이지만, 묘주의 활동에 대한 당시의 평가가 실려있고, 후대에 편집된 역사서에 비해 덜 가공된 사료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치가 더 크다. 더구나 절대적으로 사료가 부족한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빠뜨리기 어려운 고급 자료임은 틀림이 없다.

이런 까닭에 새로운 묘지명이 출현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묘지명을 활용한 연구가 누적되었다. 지금까지 묘지명을 이용한 자료집의 간행과 연구논문의 발표, 저서의 간행 실적을 보면 사실 경이롭다. 뒤의 부록에 실린 관련 연구 성과 목록을 참고하길 바란다.

묘지명의 출현은 한국과 중국, 일본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처음 관심을 둔 것은 일본 학계였다. 묘지명이 자료를 넘어서 역사 연구 대상으로 취급한 것은 일본인 학자들이 먼저였다. 중국에서는 묘지명의 작자와 글씨를 쓴 서자 등에 관심이 많았기에 명문장과 명필의 수집을 위한 문집 수록과 탁본이 먼저 성행했다. 한국학계에서는 1971년 무령왕릉 발굴 이후 묘지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국가별로 연구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학계의 연구

일본 학계에서 이룬 성과는 대략 2권의 자료집과 1권의 저서, 35편의 논문으로 정리된다. 일본학계에서의 연구는 1920년 중국 낙양에서 고구려 출신 천남생 묘지명 등이 출토되자 羅振玉이 일본에 탁본을 보내오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낙양의 북망산에서 출토된 고구려와 백제 유민 묘지명을 통한 연구였다. 그러므로 7세기 중엽과 이후의 고구려와 백제의 정세와 당과의 전쟁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기존 역사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가 중심이 되었다.

태평양 전쟁과 패전 이후에는 1964년 이전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북한에서 발견된 안악 3호분과 덕흥리 묵서 묘지와 집안 발견 모두루 묘지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1971년 무령왕릉 발굴 이후에는 무령왕릉과 왕비의 지석과 매지권을

둘러싼 연구가 산발적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 ‘日本’이라는 국호가 금석문에 처음 등장하는 백제 예군 등 예씨 가족 묘지를 주제로 한 연구가 이어졌고, 한편으로는 중국 당대의 묘지명 출토 목록을 집성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植田喜兵成智가 백제와 고구려 유민 묘지명을 통해 7세기 중엽과 8세기 동아시아사를 살핀 연구가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그러나, 더 이상 한국 고대인이나 유민 묘지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이는 일본의 한국사 연구가 쇠퇴한 상황과 맞물려 자발적인 연구 동력을 상실한 결과이다.

2. 중국학계의 연구

중국 학계에서 이론 연구 성과는 대략 57종의 자료집과 22권의 저서, 107편 이상의 논문이 있다. 중복이 심하기는 하지만 57종이나 되는 자료집의 편찬은 역사 연구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서예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성과이다. 그런 까닭에 묘지의 탁본 사진을 중심으로 한 판독문과 간략한 설명이 붙은 거질의 자료집이 편찬되었다. 1937년에 羅振玉이 『海東蕃閼誌存』을 자가에서 출판한 이후에 계속 출토되는 관련 묘지명을 자료집에 포함시켜 간행했다.

대만에서의 관심은 거의 없다. 1979년에 『石刻史料新編』 전20책과 1984년부터 1994년까지 『唐代墓志銘彙編附考』 전18책을 간행한 이후에 더 이상의 자료집 간행이나 편찬은 멈췄고, 특정 연구 중에 한국 고대 유민 묘지를 활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중국 본토에서는 각기 13왕조의 수도였던 낙양과 장안의 맥을 잇는 하남성 낙양시와 섬서성 서안시에서 수많은 묘지명이 출토되면서 묘지명 자료집과 판독문이 기관별, 시대별로 구분하여 편찬되고 증보판이 간행되었다. 특히 각 성 문물연구기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국가기금을 받아 새로 출토된 자료를 정리해서 간행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확대되자 간행되는 자료집의 수가 매년 늘어났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47종이나 되는 대작이 완성되었고, 계속해서 편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별 연구 역시 만만치 않아 21권의 저서와 106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연구서가 전혀 출판되지 않았고, 논문 역시 20편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2000년부터 활발해진 연구는 21권의 저서와 86편 이상의 논문으로 성과를 표출했다.

연구를 초기에 주도한 것은 낙양시 문물공작대의 趙振華였다. 그는 처음으로 고구려와 백제 유민 묘지를 정리하여 논문화한 이를 묶어서 출판하였다.³⁾ 그 뒤를 이은 것은 경북대 사학과에 유학했던 陝西師範大學 歷史文化學院의 배근흥 교수이다.⁴⁾ 拜根興 교수의 저서는 국내에서 번역되어 출판될 정도로 기초적인 자료에 충실하면서도 전문적인 역사 연구의 저작물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⁵⁾ 길림대학 고고학과의 王連龍은 2011년 이후 한국고대 유민 묘지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후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중국의 묘지명과 동시에 한국 고대 유민 묘지명을 집성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2025년에는 이를 단행본으로 엮어 출판했다.⁶⁾ 이들 외에도 고려대학교에 유학했던 浙江海洋大學 樓正豪는 고구

3) 趙振華, 2009, 『洛陽古代銘刻文獻研究』, 三秦出版社.

4) 拜根興, 2012,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以西安洛陽出土墓志為中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拜根興, 2015, 『石刻墓誌與唐代東亞交流研究』, 科學出版社.

5) 바이건싱(구난희·김진광 옮김), 2019, 『당으로 간 고구려·백제인 -시안·뤄양 출토 묘지명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려 유민 묘지명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발해와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중국 遼寧省과 吉林省 지역의 연구자들은 주로 발해와 고구려 묘지명을 연구했다. 최근에는 묘지를 발굴한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를 진행하거나 중국 대학에서 고고학과 개설 붐이 일어남에 따라 대학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전문 연구자들의 활동 지역과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발굴 결과 출토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백제 의자왕의 증손녀 부여태비 묘지명과 귀족 출신 예씨 가족의 묘지명, 신라 왕족 출신 김영 묘지명 등은 무덤과 출토 유물의 위계 등과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주목되는 연구 성과들은 국내 학계에서 즉각적으로 번역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중국 학계의 묘지명 연구 내용과 방법은 계속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화한 관점에서 추구되고 있다. 묘지명의 내용 분석을 통해 묘주의 신원과 선조와 후손등에 대한 가계 분석, 새로운 인물과 지명 관직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한 역사 기록의 보결이라는 기본적인 연구 방향 이외에도 색다르고 깊이 있는 연구 주제를 찾아내고 있다.

묘지의 문양과 조각 기법을 통한 미술사적 분석과 서체와 서법 분석을 통한 서예사적 접근, 이체자, 별자, 축천무후자 등의 문자학적 접근, 묘주의 신분, 직능에 따라 무장과 문관, 고급 관리와 지방 관리, 궁녀와 같은 女官, 여성과 혼인, 僧尼와 도사와 같은 종교와 신앙적 접근, 상장례에 대한 법제적 접근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묘지 연구 결과를 어떻게 상품화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산업적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학계의 한국 고대 유민 묘지명 연구는 현재 순수한 학문적 입장에서 다소 거리감이 있는 기조를 띠고 있다. 한국 고대국가의 유민이 아니라 중국의 변방 출신 이민자 집단으로 보면서, 중국 문화에 동화 또는 흡수되어 가는 소수민족 출신의 삶을 조명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유민이 아닌 이민에 중점을 두어 세대를 구분하고 중국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모습이 보인다.

3. 한국학계의 연구

한국학계에서 이룬 연구 성과는 대략 16종의 자료집과 7권의 저서, 5편의 석사학위논문, 4편의 박사학위 논문, 3권의 전시 도록, 100편의 논문이 있다. 자료집은 2014년 이후 태가 편찬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간행한 『韓國金石文集』을 시작으로 동북아역사재단과 그 전신인 고구려연구재단, 한국목간학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등에서 계속해서 간행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한국목간학회 소속 연구자들이 연속되는 세미나를 통해서 백제유민묘지명을 집성한 결과를 엮은 『한국고대문자 자료연구 백제(하) -주제별-』이다. 기존에 알려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롭게 판독과 번역을 시도한 결과를 집대성하였다. 이 책은 자료집이면서도 훌륭한 연구서로서의 내용을 갖춘 것으로 가치가 높다.

한편, 권덕영을 중심으로 중국의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간단하게 소개한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⁶⁾과 권덕영의 역작인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역주편』과 『재당 한인

6) 王連龍, 2025, 『唐代高句麗百濟新羅移民石刻整理與研究』, 中西書局.

7) 曠승훈 등,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묘지명 연구: 역주편』⁸⁾은 치밀한 판독과 역주를 통해 유민 묘지명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힘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걸작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 고대 유민 묘지명 연구를 현장에서 한 연구자는 변인석이 선구자이다. 그는 중국 서안과 낙양 등을 실제 답사하면서 유민의 흔적을 찾아내서 짧은 글이지만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다.⁹⁾ 뒤를 이은 것이 권덕영으로 역시 서안과 낙양 등지를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이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다시 그것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판했다.¹⁰⁾ 서예사적으로도 고구려의 묵서명과 묘지명 등의 서체를 분석해 한국 서예사에 포괄하려고 한 연구도¹¹⁾ 미술사적 성과로 중요하다. 그리고 묘지명을 통해 당시의 국제 관계와 교류와 이주 등을 중심으로 엮어낸 저술들은¹²⁾ 유민 묘지명 연구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미리 가르쳐 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고대 유민의 묘지명만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된 것은 이제 유민 묘지명 연구가 역사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는 실증이다. 특히 김수진과 박지현의 논문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했지만,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 시도만으로도 훌륭한 성과이다. 그리고 김근식의 연구는 고분 안에 갇힌 묵서 연구를 사료학적인 세계로 끌어냈고, 고구려 묵서 묘지명의 존재를 다시금 각인시킨 성과이다.¹³⁾

2000년 이전에는 기존에 알려진 무령왕릉과 왕비 묘지에 대한 지속적이지만 산발적인 연구가 있었다. 중국에서 이미 발견된 발해 정효공주와 정혜공주 묘지, 고구려와 백제 부여용과 흑치상지 부자의 유민 묘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양기석과 노중국, 이문기, 이도학 등의 연구 성과가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과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학계의 유민 묘지 연구 성과를 국내에 소개하거나 재검토하는 연구가 지배적이었고, 중국 연구자의 유민 묘지 연구 성과가 번역되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중국에서 발견되는 즉시 국내 학계에 소개되고 연구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를 시작하고 주도한 것은 김영관¹⁴⁾과 권덕영¹⁵⁾이었다. 그 결과 중국의 연구자들을 국내의 학회에 초청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중국 출토 한국 고대 유민의 묘지명 연구가 본궤도에 오르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중국 학계에서도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8) 권덕영, 2021a,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권덕영, 2021b,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자료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9) 卞麟錫, 2000, 『唐 長安의 新羅事蹟』, 아세아문화사.

10) 권덕영, 2023, 『중국 금석문으로 한국 고대사 읽기』, 학연문화사.

11) 정현숙, 2018,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고광의, 2023, 『고구려의 문자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2) 지배선, 2026, 『고구려·백제 유민 이야기』, 해안; 신형준, 2017, 『신라인은 삼국통일을 말하지 않았다』, 학교재; 김영심, 2022, 『백제의 이주지식인과 동아시아 세계』, 지식산업사.

13) 김근식, 2020, 『고구려 벽화고분의 묵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秀鎭, 2017, 『唐 京 高句麗 遺民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지현, 2024, 『唐·日本의 百濟 遺民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金榮官, 2007, 「百濟遺民 禰寔進 墓誌 소개」, 『新羅史學報』 10; 2009, 「百濟 義慈王 曾孫女 太妃 扶餘氏 墓誌」, 『百濟學報』 1; 2009, 「高句麗 遺民 高鎬苗 墓誌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56.

15) 권덕영, 2008,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韓國史研究』 142; 2009, 「<大唐故金氏夫人墓銘>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54; 2010, 「한국고대사 관련 중국 금석문 조사 연구 -唐代 자료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7.

바로 번역해 소개하기 시작했다.¹⁶⁾ 이후 연구자들이 유민 묘지명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연구자와 연구가 늘어났다.

한국 고대 유민의 묘지명에 대한 관심은 2014년에 한국고대사학회에서 유민 묘지명 연구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정도로 높아졌다.¹⁷⁾ 이런 관심은 한국목간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탐구학회, 백제학회, 신라사학회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이후 유민 묘지 연구가 활성화되는 토양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 사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연구 참여도 시작되었다. 아울러,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등의 정부 기관의 관심과 지원도 생겨났다.

유민 묘지명에 대한 커다란 관심은 중국에서 새로 출토된 묘지명을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고대사 연구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등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다. 반면에 실물이나 원탁본이 아닌 공개되거나 노출된 사진을 이용한 성급한 연구 결과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난해한 묘지문의 판독에 따른 정확성과 번역이나 해제가 연구자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 자칫 연구가 언론 기사처럼 시급성을 먼저 내세우게 된다면 큰일이다. 서두름은 오히려 높은 수준의 연구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고구려 고지에서 발견된 묵서 묘지에 대한 연구가 발견 당시를 비롯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특별한 연구 성과를 찾기 어렵다. 고구려와 백제 유민 묘지명에 관한 연구 역시 거의 찾을 수가 없다.

V. 맺음말

중국의 낙양과 서안 등지에서 더 많은 묘지명이 찾아지고 공개될 것이다. 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은 대규모 고고학 발굴이 수반되므로 새로운 자료가 계속 추가되고 보충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묘지명 조사와 연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충분한 이유이다.

묘지명 연구는 정확한 판독과 번역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견된 묘지명의 실물 조사와 원탁본을 활용한 판독은 사실 개인이 감당하기보다는 중국의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수월하다.

양국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상호 협조하고 연구의 품질을 높인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과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묘지 소장처 및 발굴 기관들과의 자료 공유와 협조 추진 및 중국 학자들과 유기적인 교류가 필요한 까닭이다. 그러나 현실은 점차 현실은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어 안타깝다.

묘주의 선조와 후손에 대한 기록을 활용한 가계 복원과 생전 활동에 대한 정리를 통한 역사 기록의 수정과 보완과 같은 기본적인 연구는 당연히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 묘주가 살던 시대의 정치와 사회, 문화상 등을 다른 묘지명이나 역사서 등과의 대조와 비교를 통해 입체적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최근 연구하는 산업적 활

16) 金榮官(金宪鏞 역), 2007, 「百濟遺民《祿寔進墓志》介紹」, 『碑林集刊』 13.

17) 윤용구, 2014, 「중국 출토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 연구동향」, 『韓國古代史研究』 75.

용 문제는 결코 빠뜨리면 안 되는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묘지명의 주인공인 한국고대국가의 流民인가, 遺民인가, 移民인가 하는 문제는 그들이 가진 정체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해 이해할 문제이다. 지나치게 민족이나 국가에 국한해서 나누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사회와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더 큰 틀에서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등 선조 세대가 갖는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밝혀야 할 과제이다. 유민의 범위를 부계 혈족으로만 좁히는 것이 타당한지 역시 고민해야 한다. 부계를 넘어서 모계 혈족까지 포함해서 연구해야 더 입체적인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고연복의 양아들 고력사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계승 관계로 이어진 인물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외연의 확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묘지명을 비롯한 금석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묘지명 연구가 수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중국 출토 묘지명은 浙江大學圖書館 古籍碑帖研究與保護中心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는 <中國歷代墓誌數據庫>¹⁸⁾와 古聯(北京)數字傳媒科技有限公司에서 운영하는 <中華石刻數據庫>¹⁹⁾를 통해서 묘지를 포함한 금석문의 이미지와 판독문 등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앞으로 묘지명 연구 도구로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한중일 세 나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짚어보는 게 녹록한 작업은 아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성과임에도 빠뜨린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분류상의 문제나 통계에 모순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지적해 준다면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다.

18) www.csid.zju.edu/tomb/stone(浙大墓誌庫)

19) www.inscription.ancientbook.cn

한국 고대인 묘지 관련 연구 성과 목록

1. 한국인 묘지명 관련 연구 성과

(1) 자료집 - 16권

- 곽승훈 등,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년 11월.
- 권덕영,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년 9월.
- 권덕영,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자료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년 9월.
- 양종국, 『中國 史料로 보는 百濟』, 서경문화사, 2006년 5월.
- 이성제 편, 『고대 동아시아 석각자료 연구(하)』, 동북아역사재단, 2018년 12월.
- 이우태 편, 『韓國金石文集成 2: 高句麗 2 高句麗 및 高句麗關聯 金石文-(解說篇)』, 한국국학진흥원, 2014년 12월.
- 이우태 편, 『韓國金石文集成 3: 百濟 1 百濟 및 百濟關聯 金石文(解說篇)』, 한국국학진흥원, 2014년 12월.
- 이우태 편, 『韓國金石文集成 7: 新羅 3 碑文 3(解說篇)』, 한국국학진흥원, 2014년 10월.
- 이우태 편, 『韓國金石文集成 16: 新羅 金文 및 渤海 金石文(解說篇)』, 한국국학진흥원, 2014년 10월.
- 고구려연구재단 편, 『중국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2005년 12월.
- 국립중앙박물관 편, 『금석문자료 ①삼국시대』, 국립중앙박물관, 2010년 11월.
-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 I (新羅·伽耶篇)』, 國史編纂委員會, 1995년 12월.
-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 III(統一新羅·渤海篇)』, 國史編纂委員會, 1996년 11월.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고구려·백제·낙랑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년 10월.
- 권인한·김경호·윤선태 공동 편집, 『중국 출토 백제 유민 묘지명』, 『한국고대문자자료연구 백제(하) -주제별-』, 주류성, 2015년 8월.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편, 『중국 출토 百濟人 墓誌 集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청남도, 2016년 12월.

(2) 저서 - 7권

- 卞麟錫, 『唐 長安의 新羅事蹟』, 아세아문화사, 2000년 6월.
- 지배선, 『고구려·백제 유민 이야기』, 해안, 2006년 9월.
- 신형준, 『신라인은 삼국통일을 말하지 않았다』, 학고재, 2017년 7월.
- 정현숙,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2018년 6월.
- 김영심, 『백제의 이주지식인과 동아시아 세계』, 지식산업사, 2022년 12월.
- 권덕영, 『중국 금석문으로 한국 고대사 읽기』, 학연문화사, 2023년 1월.
- 고광의, 『고구려의 문자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23년 2월.

(3) 석사학위논문 - 5편

- 박미희, 「고구려 모두루총의 묵서 묘지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년 2월.
- 박초롱, 「묘지명을 통해 본 예씨 일족의 백제 정착과 그 성격」,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년 2월.
- 권기현, 「8세기 중엽 신라의 對唐關係: 在唐 新羅人 金日晟 墓誌銘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년 8월.
 박은미, 「당대 중국 소재 한국 여성 묘지명의 내용과 특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7년 8월.
 이기범, 「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조상인식 변화와 그 의미」,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6년 2월.

(4) 박사학위논문 - 4편

김근식, 『고구려 벽화고분의 목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년 8월.
 金秀鎭,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년 2월.
 박순우,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2017년 8월.
 박지현, 『唐·日本의 百濟 遺民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년 2월.

(5) 전시 도록 - 3권

국립경주박물관 편, 『文字로 본 新羅 -新羅人の 記録과 筆跡-』, 2002년 9월.
 국립공주박물관 편, 『중국 낙양 출토 고대 묘지 탁본 -무령왕릉 묘지의 원류를 찾아서-』, 2019년 7월.
 국립대구박물관 편, 『萬世不朽 -돌에 새긴 영원-』, 2025년 6월.

(6) 연구 논문 - 100편

(6) 연구 논문 - 100편

강종원, 「百濟 黑齒家の 成立과 黑齒常之」, 『百濟研究』 38, 2003년 8월.
 강진원, 「발해 선왕(宣王) 이전 시기에 대한 시론: 순목황후묘지명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문헌, 문자, 물질』, 진인진, 2021년 5월.
 강진원, 「「순목황후 묘지명」과 9세기 초 발해의 풍경」, 『한국고대사탐구』 51, 2025년 12월.
 孔錫龜, 「安岳 3號墳의 墨書銘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121, 1989년 3월.
 권기현, 「8세기 중엽 신라의 對唐關係 -在唐 新羅人 金日晟 墓誌銘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년 8월.
 권덕영,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韓國史研究』 142, 2008년 9월.
 권덕영, 「<大唐故金氏夫人墓銘>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54, 2009년 6월.
 권덕영, 「한국고대사 관련 중국 금석문 조사 연구 -唐代 자료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7, 2010년 3월.
 권덕영, 「백제 유민 禰氏一族 묘지명에 대한 斷想」, 『사학연구』 105, 2012년 3월.
 권덕영, 「唐 墓誌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75, 2014년 9월.
 권덕영, 「백제 멸망 최후의 광경」, 『역사와 경계』 93, 2014년 12월.
 권덕영, 「신라사 補正을 위한 당 金石文 기초 연구」, 『新羅史學報』 38, 2016년 12월.
 권덕영, 「羅振玉의 금석학과 『唐代海東藩閥誌存』」, 『韓國古代史研究』 91, 2018년 9월.
 권덕영, 「고구려 유민 高慈 墓誌에 대한 몇 가지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102, 2021년 6월.
 권덕영, 「당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보완」, 『신라인의 기록과 신라사 복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2년 7월
 權珉均·洪性珉, 「묘지명을 통해 본 契丹化한 漢人 耶律隆祐의 생애와 발해 유민의 族際間 혼

- 인], 『中國史研究』 151, 2025년 1월.
- 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木簡과 文字』 24, 2020년 6월.
- 권오영, 「喪葬制를 中心으로 한 武寧王陵과 南朝墓의 비교」, 『百濟文化』 31, 2002년 12월.
- 권은주, 「고구려유민 高欽德, 高遠望 부자 묘지명 검토」, 『大丘史學』 116, 2014년 8월.
- 권은주, 「발해사 연구, 금석문과 만나다」, 『북한사림』 34, 2016년 8월.
- 권은주, 「唐代 營州 출신 고구려계 高英淑의 묘지명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84, 2016년 12월.
- 권은주,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 -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 탐구』 34, 2020년 4월.
- 권은주, 「문자자료를 활용한 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검토 -위준, 효의황후, 순목황후, 진만 묘지명을 중심으로-」, 『嶺南學』 88, 2024년 3월.
- 권은주, 「발해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90, 2025년 12월.
- 김근식, 「安岳3號墳의 淵源과 ‘무덤 내 文字’」, 『中央史論』 54, 2021년 12월.
- 김수진, 「당으로 이주한 고구려 포로와 지배층에 대한 문헌과 묘지명의 기록」,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년 9월.
-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의 私第와 葬地」, 『사학연구』 127, 2017년 9월.
- 김수진, 「고구려 유민 묘지명에 나타난 당인 관인의 ‘高句麗’ 인식」, 『동서인문학』 54, 2018년 2월.
- 金秀鎭, 「고구려 유민의 당조 출사 유형과 변화」, 『韓國學論叢』 49, 2018년 2월.
- 김수진, 「고구려 유민 후속 세대의 중국 출자 표방과 당대 현실」, 『사학연구』 136, 2019년 12월.
- 김수진, 「唐京 백제 유민의 私第와 葬地」,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문헌, 문자, 물질』, 진인진, 2021년 5월.
- 김수진, 「泉婁의 장인, 太原公 王暉의 출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 『高句麗渤海研究』 74, 2022년 11월.
- 김수진, 「8세기 전반 泉氏 가문의 정치·사회적 復元과 婚姻」, 『奎章閣』 61, 2022년 12월.
- 김수진, 「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撰者 선정과 ‘王言’의 기록」, 『한국문화』 102, 2023년 6월.
- 김수진, 「고구려 유민의 折衝府 복무 특징과 변화 양상」, 『韓國史學史學報』 47, 2023년 6월.
- 김수진, 「고구려 포로·유민의 당 이주와 정착 -당의 對고구려전 징발 지역과 고구려 포로·유민 안치 지역의 상관관계-」, 『韓國古代史研究』 120, 2025년 12월.
- 김양균, 「牟頭婁墓 墨書墓誌와 北朝 寫經體」, 『강좌 미술사』 41, 2013년 12월.
- 金榮官, 「百濟遺民 禰寔進 墓誌 소개」, 『新羅史學報』 10, 2007년 8월.
- 金榮官(金宪鏞 역), 「百濟遺民《祢寔進墓志》介绍」, 『碑林集刊』 13, 2007년.
- 김영관, 「百濟 義慈王 曾孫女 太妃 扶餘氏 墓誌」, 『百濟學報』 1, 2009년 3월.
- 김영관, 「高句麗 遺民 高饒苗 墓誌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56, 2009년 12월.
- 金榮官, 「渤海人 諾思計 墓誌銘에 대한 고찰」, 『木簡과 文字』 7, 2011년 6월.
- 金榮官, 「百濟 滅亡期 扶餘隆의 行蹟과 活動에 대한 再考察」, 『百濟學報』 7, 2012년 3월.
- 金榮官, 「百濟遺民 禰氏禰 家族 墓誌銘 檢討」, 『新羅史學報』 24, 2012년 4월.
- 김영관, 「在唐 新羅人 金日用 墓誌銘에 대한 검토」, 『新羅史學報』 27, 2013년 4월.
- 김영관, 「百濟 義慈王 外孫 李濟 墓誌銘에 대한 연구」, 『百濟文化』 49, 2013년 8월.
- 김영관, 「高句麗 遺民 高堤昔 墓誌銘에 대한 연구」, 『白山學報』 97, 2013년 12월.
- 金榮官, 2013, 「高句麗遺民高提昔墓志铭研究」 『碑林集刊』 19, 2013년.
- 김영관, 「百濟 遺民 陳法子 墓誌銘 研究」, 『百濟文化』 50, 2014년 2월.

- 金榮官(宋麗 역), 「百濟遺民入唐经纬及其活动」, 『碑林集刊』 21, 2015년.
- 김영관·조범환, 「고구려 泉男生 墓誌銘에 대한 소개와 연구 현황」, 『韓國古代史探究』 22, 2016년 4월.
- 김영관, 「扶餘隆 墓誌銘」의 새로운 判讀과 翻譯, 『韓國古代史探究』 25, 2017년 4월.
- 김영관, 「高句麗 遺民 南單德 墓誌銘에 대한 연구」, 『百濟文化』 57, 2017년 8월.
- 김영관, 「高句麗 遺民 高賓 墓誌銘에 대한 연구」, 『韓國古代史探究』 28, 2018년 4월.
- 金榮官, 「高句麗 遺民 李隱之 墓誌銘 再考」, 『韓國史研究』 181, 2018년 6월.
- 金榮官, 「高句麗遺民南單德墓誌銘再考」 『紀念西安碑林930周年华诞学术研讨会论文集』, 三秦出版社, 2018년.
- 金榮官, 「高句麗遺民李隱之墓志銘再考」, 『唐史論叢』 29, 2019년.
- 김영관, 「당으로 이주한 백제 유민들의 묘지명」, 『문자와 고대 한국 2 -교류와 생활-』, 주류성, 2019년 10월.
- 김영관, 「중국의 墓誌와 陝西漢唐石刻博物館 소장 墓誌의 가치」, 『萬世不朽 -돌에 새긴 영원-』, 국립대구박물관, 2025년 6월.
- 김영관, 「金石文으로 본 百濟 出兵 唐軍의事蹟 考察」, 『한국고대사탐구』 51, 2025년 12월.
- 김영관, 「在唐 新羅人 金泳(747~794) 墓誌銘 檢討」, 『新羅史學報』 65, 2025년 12월.
- 김영심, 「墓誌銘과 문헌자료를 통해 본 백제멸망 전후 禰氏의 활동」, 『歷史學研究』 52, 2013년 11월.
- 김영심, 「遺民墓誌로 본 고구려, 백제의 官制」, 『韓國古代史研究』 75, 2014년 9월.
- 김영심, 「백제의 지방 통치기구와 지배의 양상 -〈陳法子墓誌銘〉과 나주 북암리 목간을 통한 접근-」, 『韓國古代史探究』 19, 2015년 4월.
- 김용남, 「새로 알려진 덕흥리 고구려 벽화무덤에 대하여」, 『역사과학』 1979-3, 1979년.
- 金貞培, 「安岳 3號墳 被葬者 논쟁에 대하여 -冬壽墓說과 美川王陵 說을 中心으로-」, 『古文化』 16, 1978년.
- 김창겸, 「在唐 한국계 유이민 생활사 연구 총론」,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년 8월.
- 김희만, 「在唐 신라인의 삶과 죽음」, 『한국고대사탐구』 3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년 8월.
- 盧重國, 「新羅時代 姓氏의 分枝化와 食邑制의 實施 -薛瑤墓 誌銘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5, 1999년 5월.
- 都宥浩, 「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 『문화유물』 창간호, 1949년.
- 文東錫, 「百濟 黑齒常之의 姓氏에 대한 新考察」, 『百濟研究』 47, 2008년 2월.
- 閔庚三, 「신출토 北魏 高句麗 遺民 碑誌 4座 소개」, 『新羅史學報』 6, 2006년 4월.
- 閔庚三, 「신출토 高句麗 遺民 高質 墓誌」, 『新羅史學報』 9, 2007년 4월.
- 민경삼, 「中國 洛陽 신출토 古代 韓人 墓誌銘 연구 -高質 墓誌銘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15, 2009년 4월.
- 朴方龍, 「乾寧二年銘墓誌에 대한 考察」, 『考古歷史學志』 16, 2000년 3월.
- 박성원, 「중국 묘지명의 서풍 고찰」, 『萬世不朽 -돌에 새긴 영원-』, 국립대구박물관, 2025년 6월.
- 朴淳發, 「무령왕릉 묘지(墓誌) 형태 비교 연구」, 『百濟研究』 72, 2020년 8월.
- 朴淳佑, 「요~금대 발해인 장호 가계 인물의 행적과 통혼 사례 분석」, 『大東文化研究』 114, 2021년 6월.
- 박순우, 「요대 발해인 고모한(高模翰) 관련 기록의 검토와 후손들의 활동 연구」, 『東方學志』 191, 2020년 6월.

- 박순우, 「‘발해유민’인가 ‘발해인’인가?」, 『역사비평』 140, 2022년 8월.
- 박윤원, 「안악 제3호분은 고구려 미천왕릉이다」, 『고고민속』 1963-2, 1963년.
- 박재복, 「발해 墓誌 양식의 형성 배경과 영향」, 『동양고전연구』 34, 2009년 3월.
- 박주선, 「재당신라인 金泳의 가계 복원 시론 -「金泳墓誌銘」을 단서로-」, 『歷史學研究』 99, 2025년 8월.
- 박지현, 「<陳法子墓誌銘>의 소개와 연구 현황 검토」, 『木簡과 文字』 12, 2014년 6월.
- 박지현, 「중국 출토 백제인 묘지에 관한 국내학계의 연구현황 검토」, 『중국 출토 百濟人 墓誌集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청남도, 2016년 12월.
- 박지현, 「백강구(白江口) 전투 이후 부여읍(扶餘隆)의 행적과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의 운영」, 『역사와 현실』 105, 2017년 9월.
- 박지현, 「墓誌에 기록된 百濟遺民의 入唐관련 서술에 대한 검토」, 『中央史論』 61, 2024년 4월.
- 박지현, 「入唐 百濟 遺民과 그 후손들의 혼인과 가족 관계 -高句麗 遺民과의 비교-」, 『木簡과 文字』 33, 2024년 12월.
- 박진옥, 「안악 3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 1990년.
- 박진옥, 「덕흥리 벽화무덤의 주인공과 유주의 소속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2, 1992년.
- 박초롱, 「彌氏 一族의 백제 이주와 성장」, 『木簡과 文字』 23, 2019년 12월.
- 박초롱, 「고대 ‘土王土父母’銘에 반영된 后土信仰」, 『歷史學研究』 100, 2025년 11월.
- 박현숙, 「백제 유민 부여씨 여성 묘지명의 특징과 혼인의 양상」, 『韓國史學報』 102, 2026년 2월.
- 方京一, 「金代 墓誌銘에 실린 渤海遺民」, 『白山學報』 76, 2006년 12월.
- 방향숙, 「扶餘隆의 정치적 입지와 劉仁軌」, 『韓國古代史探究』 25, 2017년 4월.
- 배노찬, 「묘지명과 고고자료로 본 在唐 新羅人 金泳」, 『韓國古代史研究』 119, 2025년 9월.
- 卞麟錫, 「似先義日墓誌 出土地點의 現地調査」, 『唐 長安의 新羅事蹟』, 아세아문화사, 2000년 6월.
- 卞麟錫, 「難元慶墓誌의 現狀」, 『唐 長安의 新羅事蹟』, 아세아문화사, 2000년 6월.
- 손영종, 「덕흥리 벽화무덤의 피장자 망명인설에 대한 비판」, 『력사과학』 1991-1·2, 1991년.
- 孫永鍾, 「고구려 벽화무덤의 묵서명과 피장자」, 『高句麗研究』 4, 1997년.
- 宋基豪, 「渤海 貞惠公主墓碑의 고증에 대하여」, 『韓國文化』 2, 1981년 12월.
- 송기호, 「高句麗 유민 高玄 墓誌銘」, 『博物館年報』 10, 서울대학교 博物館, 1999년 1월.
- 송기호, 「고구려 유민 高氏夫人 墓誌銘」, 『韓國史論』 53(서울대학교 國史學科), 2007년 6월.
- 송기호, 「龍頭山 古墳群 발굴보고서의 검토」 『震檀學報』 145, 2025년 12월.
- 신희권, 「중국 묘지명의 역사와 형식 변천 탐구」, 『百濟學報』 54, 2025년 11월.
- 안정준,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 -高句麗에서 활동했던 柵城지역 靺鞨人의 사례-」, 『木簡과 文字』 11, 2013년 12월.
- 안정준, 「李濟 墓誌銘」, 『木簡과 文字』 12, 2014년 6월.
- 안정준, 「「豆善富 墓誌銘」과 그 一家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인문학연구』 27(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년 6월.
- 안정준, 「「李他仁墓誌銘」 탁본 사진의 발견과 새 판독문」, 『高句麗渤海研究』 52, 2015년 7월.
- 안정준·최상기, 「당대(唐代) 묘지명을 통해 본 고구려·백제 유민(遺民) 일족(一族)의 동향」, 『역사와 현실』 101, 2016년 9월.
- 안정준, 「당대(唐代)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起源) 고구려 유민(遺民) 일족(一族)의 현황과

- 그 가계(家系) 기술 -고구려 유민(遺民)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제언-, 『역사와 현실』 101, 2016년 9월.
- 안정준, 「4~5세기 樂浪·帶方郡 故地の 中國地名 官號 출현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86, 2017년 6월.
- 안정준, 「唐代 高句麗 遺民 一族인 劉元貞과 그의 부인 王氏 墓誌銘 -8세기 초반 高句麗 遺民 후손의 활동 사례-」, 『木簡과 文字』 23, 2019년 12월.
- 안정준, 「5~6세기 '영주(營州) 낙랑(樂浪)' 본관의 묘지명과 낙랑군(樂良郡)」, 『역사와 현실』 137, 2025년 9월.
- 梁起錫, 「百濟 夫餘隆 墓誌銘에 대한 檢討」, 『國史館論叢』 62, 1995년 8월.
- 梁起錫, 「百濟 扶餘隆 墓地名의 "百濟 辰朝人"」, 『鄉土史學論叢: 金顯吉教授定年紀念』, 修書院, 1997년 12월.
- 양종국, 「흑치상지와 백제부흥운동 -재검토의 필요성-」, 『先史와 古代』 55, 2018년 3월.
- 여호규,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百濟文化』 54, 2016년 2월.
- 余昊奎·李明, 「高句麗 遺民 <李他仁墓誌銘>의 재판독 및 주요 쟁점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85, 2017년 3월.
- 여호규·拜根興,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東洋學』 69, 2017년 10월.
- 여호규, 「고구려 금석문·문자자료의 출토 현황과 연구 과제」, 『東北亞歷史論叢』 90, 2025년 12월.
- 尹善泰, 「渤海 文字資料의 現況과 課題」, 『大東漢文學』 26, 2007년 6월.
- 尹龍九, 「樂浪遺民의 墓誌 二例」, 『仁荷史學』 3, 1995년 12월.
- 尹龍九,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韓國古代史研究』 32, 2003년 12월.
- 윤용구, 「중국 출토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 연구동향」, 『韓國古代史研究』 75, 2014년 9월.
- 윤용구, 「북위대 낙랑·고구려계 이주민 -평성 출토 문자자료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17, 2021년 12월.
- 李基天, 「唐宋代 墓誌의 연구와 生年 표기 -나이 세는 방식의 혼란과 제안-」, 『中國學報』 96, 2021년 5월.
- 李基天, 「唐代 高句麗·百濟系 蕃將의 존재양태」, 『韓國古代史研究』 75, 2014년 9월.
- 이기천, 「이구부인 김씨 묘지명과 재당 신라인의 선조 인식」, 『금석문으로 읽는 신라 이야기』, 지식산업사, 2026년 4월.
- 李道學, 「『禰寔進墓誌銘』을 통해 본 百濟 禰氏 家門」, 『전통문화논총』 5, 2007년 8월.
- 李道學, 「百濟 黑齒常之墓誌銘의 檢討」, 『鄉土文化』 6, 1991년 12월.
- 이동훈, 「고구려유민 『高德墓誌銘』」, 『韓國史學報』 31, 2008년 5월.
- 李東勳, 「高句麗·百濟遺民 誌文構成과 撰書者」, 『韓國古代史研究』 76, 2014년 12월.
- 李文基, 「百濟 黑齒常之 父子 墓誌銘의 檢討」, 『韓國學報』 64, 1991년 9월.
- 李文基, 「百濟 遺民 難元慶 墓誌의 紹介」, 『慶北史學』 23, 2000년 8월.
- 李文基, 「高句麗 遺民 高足酉 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6, 2001년 2월.
- 李文基, 「高句麗 寶藏王의 曾孫女 「高氏夫人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9, 2002년 8월.
- 이문기, 「墓誌로 본 在唐 고구려 유민의 祖先의식 변화」, 『大丘史學』 100, 2010년 8월.
- 李玟洙, 「부여부대수령 諾思計의 출신과 투항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43, 2023년.
- 李星培, 「웅진 시대 백제 서예고찰 -무령왕릉 출토 명문을 중심으로-」, 『韓國書藝』 12, 2000년.

- 李成市(정동준 역), 「禰軍 묘지 연구 -禰軍의 외교상 사적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10, 2013년 6월.
- 李成制,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75, 2014년 9월.
- 李成制,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분석-」, 『中國古中世史研究』 38, 2015년 11월.
- 李成制, 「遺民 墓誌를 통해 본 高句麗의 中裏小兄 -중리소형의 역임자와 직임을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42, 2016년 11월.
- 李成制, 「高句麗 遺民의 遼西지역 世居와 존재양상 -〈高英淑墓誌〉의 譯註와 분석-」, 『中國古中世史研究』 46, 2017년 11월.
- 李成制, 「唐 高宗의 泰山 封禪과 高句麗의 對應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高句麗渤海研究』 64, 2019년 7월.
- 이성제, 「榮留王의 王權 강화와 淵蓋蘇文 政變 -高乙德 일가의 官歷을 통해 본 영류왕대 政局-」, 『韓國古代史研究』 104, 2021년 12월.
- 이성제, 「新出 墓誌자료를 통해 본 遼西 豪族의 존재 양상과 隋·唐의 懷遠鎮 鎮守」, 『先史와 古代』 70, 2022년 12월.
- 이영호, 「在唐 신라인 金氏墓誌銘의 검토」, 『新羅史學報』 17, 2009년 12월.
- 李鎔賢, 「祿軍 墓誌의 “日本”에 대한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75, 2014년 9월.
- 이우태, 「한국의 買地券」, 『歷史教育』 115, 2010년 9월.
- 이정빈, 「「천남생 묘지」에 보이는 將軍과 7세기 고구려의 군사 운용」, 『韓國古代史探究』 22, 2016년 4월.
- 이준성, 「「牟頭婁 墓誌」의 판독과 역주 재검토」, 『木簡과 文字』 25, 2020년 12월.
- 이천우, 「고흥덕 묘지명을 통해 본 고구려 유민의 唐 내 관직 제수와 특진 배경」, 『이화사학 연구』 57, 2018년.
- 林起煥,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 안악3호분·덕흥리고분의 墨書銘 검토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47, 1995년 9월.
- 장미애, 「4~6세기 백제에서의 중국계 이주민의 정착과 활동」, 『역사와 현실』 117, 2020년 9월.
- 장병진, 「새로 소개된 고구려 유민 ‘南單德’ 묘지에 대한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52, 2015년 7월.
- 장병진, 「『泉男產墓誌』의 역주와 찬술 전거에 대한 고찰」, 『高句麗渤海研究』 55, 2016년 7월.
- 장병진, 「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고구려 관련 전승과 그 계통」, 『역사와 현실』 117, 2020년 9월.
- 장병진, 「백제 부여풍 후손의 행적에 관한 새 자료 -조인본, 부여씨 부부의 묘지명-」, 『역사와 현실』 123, 2022년 3월.
- 장병진, 「최근 소개된 두 건의 고구려 유민 묘지명 자료 -「李仁晦 墓誌銘」, 「太夫人 泉氏 墓誌銘」-」, 『白山學報』 127, 2023년 12월.
- 장병진, 「부여풍은 백제 의자왕의 태자인가?」, 『百濟學報』 48, 2024년 5월.
- 張寅成, 「武寧王陵 墓誌를 통해 본 百濟人의 生死觀」, 『百濟研究』 32, 2000년 8월.
- 전주농, 「안악 하무덤(3호분)에 대하여」, 『문화유산』 1959-5, 1959년.
- 전주농, 1963 「다시 한번 안악의 왕릉을 논함」, 『고고민속』 1963-2, 1963년.
- 정나영·홍성민, 「耶律宗福 묘지명을 통해 본 遼代 漢人과 渤海遺民 大延琳의 활동」, 『史林』 92, 2025년 4월.
- 정동준, 「「陳法子 墓誌銘」 역주」, 『木簡과 文字』 13, 2014년 12월.
- 정동준, 「「陳法子 墓誌銘」의 검토와 백제 관제」, 『韓國古代史研究』 74, 2014년 6월.

- 정동준, 「高乙德 墓誌銘」, 『木簡과 文字』 17, 2016년 12월.
- 정동준, 「유민묘지명으로 본 백제 관제」, 『한국고대사탐구』 43, 2023년 4월.
- 鄭淳一, 「唐代 金氏 관련 墓誌의 초보적 檢討」, 『新羅史學報』 16, 2009년 8월.
- 정병준, 「당에서 활동한 백제유민」, 『百濟 遺民들의 活動』,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년 6월.
- 鄭炳俊, 「唐代 嗣虢王 李邕과 王妃 夫餘氏」, 『중국사연구』 145, 2023년 8월.
- 정재운, 「武寧王妃 誌石을 통해 본 백제 여성의 지위」, 『中國古中世史研究』 42, 2016년 11월.
- 정호섭, 「高句麗 壁畫古墳의 銘文과 被葬者에 관한 諸問題」,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년 3월.
- 정현숙, 「발해 <貞惠公主墓誌>와 <貞孝公主墓誌>의 서풍」, 『書誌學研究』 43, 2009년 9월.
- 정현숙, 「漢에서 唐 墓誌의 양식과 서체」, 『중국 낙양 출토 고대 묘지 탁본 -무령왕릉 묘지의 원류를 찾아서-』, 국립공주박물관, 2019년 7월.
- 조경철, 「백제사의 블랙박스, 무령왕릉 지식」, 『금석문으로 백제를 읽다』, 학연문화사, 2014년 9월.
- 曹凡煥, 「중국인 유이민의 백제 귀화와 정착 과정에 대한 검토 -「陳法子墓誌銘」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19, 2015년 4월.
- 조범환, 「熊津都督 扶餘隆의 對新羅政策에 대한 검토」, 『韓國古代史探究』 25, 2017년 4월.
- 조범환, 「在唐 고구려 遺移民의 삶과 죽음」,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년 8월.
- 조범환, 「재당 고구려 유민 환관 高延福 묘지명의 새로운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3, 2023년 4월.
- 조범환, 「재당 의자왕 후손들의 혼인과 활동」, 『서강인문논총』 68, 2023년 12월.
- 조범환, 「재당 고구려 유이민 출신 환관 연구 -似先義逸 墓誌銘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6, 2024년 4월.
- 조재우, 「말갈 투항수령 낙사계에 대하여 -「諾思計墓誌」의 분석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28, 2022년 6월.
- 조재우, 「三韓의 貴種, 靺鞨人 李多祚의 출신에 대하여 -「李多祚墓誌」의 분석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32, 2024년 6월.
- 조재우, 「唐代 靺鞨系 高句麗人 蕃將李多祚 一家의 휘하집단 -「李承嗣墓誌」의 분석을 실마리로-」, 『한국고대사탐구』 50, 2025년 8월.
- 주영현, 「안악 제3호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2, 1963년.
- 채민석, 「扶餘隆 墓誌銘」 관련 연구성과 검토」, 『韓國古代史探究』 25, 2017년 4월.
- 崔珉熙, 「무령왕릉 묘지석에 사용된 역법과 상장례기간」, 『百濟研究』 67, 2018년 2월.
- 崔珉熙, 「무령왕릉 묘지석의 제작 과정과 배치 변화와의 관계」, 『百濟研究』 74, 2021년 8월.
- 최상기, 「「禰軍 墓誌」의 연구 동향과 전망 -한·중·일 학계의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12, 2014년 6월.
- 최상기, 「백제 멸망 이후 예씨(禰氏) 일족의 위상 -묘지명(墓誌銘)과 관련 문헌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역사와 현실』 101, 2016년 9월.
- 최상기, 「「高足酉墓誌銘」의 검토와 전망 -판독과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中央史論』 59, 2023년 8월.
- 최일례, 「牟頭婁墓誌銘에 투영된 5세기 고구려의 정치세력」, 『韓國古代史研究』 85, 2017년 3월.
- 최진열,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의 正體性」, 『東北亞歷史論叢』 24, 2009년 6월.
- 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38, 2012년 12월.

崔虎林,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墓誌에 관한 一研究」, 『韓國學論集』 15, 1989년 2월.
 한준수, 「在唐 渤海人の 삶과 시대 인식」,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년 8월.
 홍승현, 「漢~唐 시기 墓誌의 전개와 그 역할」, 『중국 낙양 출토 고대 묘지 탁본 -무령왕릉 묘지의 원류를 찾아서-』, 국립공주박물관, 2019년 7월.

2. 중국의 묘지명 관련 연구 성과

(1) 자료집 - 58권

羅振玉, 「唐代海東藩閔誌存」, 1937; 『石刻史料新編』 第2集 第15冊, 新文豐出版公司(臺北), 1979년 6월.
 河南省文物研究所·河南省洛陽地區文管處, 『千唐志齋藏志』, 文物出版社, 1984년 1월.
 毛漢光 編, 『唐代墓志銘彙編附考』 전18책, 中州古籍出版社, 1984년-1994년.
 李希泌 編, 『曲石精廬藏唐墓誌』, 齊魯書社, 1986년 5월.
 北京圖書館金石組 編, 『北京圖書館藏 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 전101책, 中州古籍出版社, 1989-1991년.
 河南省文物研究所 河南省洛陽地區文管處, 『千唐志齋藏志』, 文物出版社, 1989년.
 洛陽市文物工作隊 編, 『洛陽出土歷代墓志輯繩』,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년.
 陳長安 等 編, 『隋唐五代墓志匯編』 전30책, 天津海古籍出版社, 1991년.
 趙超, 『漢魏南北朝墓志彙編』, 天津海古籍出版社, 1991년.
 周紹良 編, 『唐代墓志匯編』 上·下, 上海古籍出版社, 1992년.
 中國文物研究所·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新中國出土墓志』 河南(1), 文物出版社, 1994년.
 中國文物研究所·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 編, 『新中國出土墓志』 陝西(1), 文物出版社, 2000년.
 周紹良 編, 『唐代墓志匯編』 續集, 上海古籍出版社, 2001년.
 洛陽市文物管理局, 『洛陽出土墓志目錄』, 朝華出版社, 2001년.
 中國文物研究所·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新中國出土墓志』 河南(2), 文物出版社, 2002년.
 袁道俊 編, 『唐代墓志: 南京博物院藏唐代墓志』, 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3년.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 編, 「唐代海東藩閔誌存」, 『隋唐五代石刻文獻全編』 4,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년.
 中國文物研究所·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 編, 『新中國出土墓志』 陝西(2), 文物出版社, 2003년.
 楊作龍 編, 『洛陽新出土墓志釋錄』, 北京圖書館出版社, 2004년.
 郭培育·郭培智, 『洛陽出土石刻時地記』, 大象出版社, 2005년 4월.
 吳鋼 主編, 『全唐文補遺: 千唐志齋新藏專輯』, 三秦出版社, 2006년.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編, 『洛陽新獲墓志』, 文物出版社, 2006년.
 趙力光 主編, 『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志彙編』, 綫裝書局, 2007년.
 王其禕·周曉薇 編, 『隋代墓志銘彙考』 전6책, 綫裝書局, 2007년.
 喬棟·李獻奇·史家珍 著·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編, 『洛陽新獲墓志續編』, 科學出版社, 2008년.
 張建華 主編, 『新中國出土墓志』 河南(3) 千唐志齋(1), 文物出版社, 2008년.
 故宮博物院 編, 郭玉海·斌 主編, 『故宮博物院藏歷代墓志匯編』, 紫禁城出版社, 2010년.
 李永強·余扶危 編, 『洛陽出土少數民族墓志匯編』, 河南美術出版社, 2011년.
 齊淵 編, 『洛陽新見墓志』, 上海古籍出版社, 2011년.
 趙君平·趙文成 編, 『秦晉豫新出土墓志搜佚』, 國家圖書館出版社, 2011년.
 西安市長安博物館 編, 『長安新出土墓志』, 文物出版社, 2012년.
 胡戟·榮新江 編, 『大唐西市博物館藏墓志』 전3책, 北京大學出版社, 2012년.

周立 編,『洛陽出土墓志目錄續編』,國家圖書館出版社,2012년.

齊運通 編,『洛陽新獲七朝墓志』,中華書局,2012년.

周阿根,『五代墓志彙考』,黃山書社,2012년.

余扶危 編,『洛陽流散唐代墓志匯編』,國家圖書館出版社,2013년.

郭茂育·谷國偉·張新峰 編,『新出土墓志精粹』,上海書畫出版社,2014년.

趙力光 主編,『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志續編』,陝西師範大學出版社,2014년.

吳敏霞·王素 編,『新中國出土墓志』陝西(3),文物出版社,2015년.

李明·劉杲運·李舉綱 編,『長安高陽原新出土隋唐墓志』,文物出版社,2016년.

西安市文物稽查隊 編,『西安新獲墓志集萃』,文物出版社,2016년.

羅申·葉煒,『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修訂本)』,中華書局,2016년 5월.

胡戟 著,『珍稀墓志百品』,陝西師範大學出版社,2016년.

陝西歷史博物館 編,『風引薤歌:陝西歷史博物館藏墓志萃編』,陝西師範大學出版社,2017년.

中國國家博物館 編,『中國國家博物館館藏文物研究叢書:墓志卷』,上海古籍出版社,2017년.

齊運通·楊建鋒 編,『洛陽新獲墓志二〇一五』,中華書局,2017년.

尚民杰,『唐長安家族葬地出土墓志輯纂』,商務印書館,2018년.

毛陽光 編,『洛陽流散唐代墓志匯編續集』,國家圖書館出版社,2018년.

李明 編,『陝西省考古研究院新入藏墓志』,上海古籍出版社,2019년.

故宮博物院·陝西省考古研究院 編,『新中國出土墓志』陝西(4),文物出版社,2021년.

王連龍 編,『南北朝墓志全集』,上海人民出版社,2021년.

陳振濂 主編,『千唐志齋碑銘全集』,朝華出版社,2022년.

周紹良 編,『唐代墓志匯編』(修訂本) 전9책,上海古籍出版社,2024년.

齊運通 編,『北朝墓志全集』 전8책,中華書局,2024년.

齊運通 編,『北朝墓志全集』補編,浙江古籍出版社,2025년.

故宮博物院·洛陽師範學院 主編,『新中國出土墓志』河南(4),洛陽師院,文物出版社,2025년.

李明 主編,『咸陽洪瀆原新出土碑志』,三秦出版社,2025년.

南京市博物館總館 編,『貞珉流徽-南京出土東晉南朝墓志』,鳳凰出版社,2025년.

(2) 저서 - 21권

趙振華 主編,『洛陽出土墓志研究文集』,朝華出版社,2002년.

趙超,『古代墓志通編』,紫禁城出版社,2003년.

拜根興,『唐朝與新羅關係史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9년.

趙振華,『洛陽古代銘刻文獻研究』,三秦出版社,2009년 12월.

胡元超 著,張志攀 主編,『昭陵墓志通釋』,三秦出版社,2010년.

陝西省考古研究院 編,『唐嗣虢王李邕墓發掘報告』,科學出版社,2012년.

昭陵博物館 編,『昭陵墓志紋飾圖案』,文物出版社,2015년.

江清波,『入唐三韓人研究』,暨南大學出版社,2010년 3월.

苗威,『高句麗移民研究』,吉林大學出版社,2011년 8월.

拜根興,『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以西安洛陽出土墓志為中心』,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2년.

拜根興,『石刻墓誌與唐代東亞交流研究』,科學出版社,2015년 12월.

祝立業 主編,『近十年高句麗碑志研究新收穫』,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6년 5월.

바이건성(구난희·김진광 옮김),『당으로 간 고구려·백제인-시안·뤄양 출토 묘지명을 중심으로-』,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2019년 3월.

拜根兴,『七世纪中叶唐与新罗关系研究(修订版)』,社会科学文献出版社,2020年 6월.
 马强,『出土唐人墓志历史地理研究』,科学出版社,2020년.
 董明,『隋唐五代墓志死亡表述语辑汇』,黄山书社,2021년.
 蒋爱花,『身份、记忆、反事实书写:隋唐时期幽州墓志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2021년.
 王军花,『洛阳古代异域移民遗存研究』,上海交通大学出版社,2022년.
 王連龍,『中国古代墓志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23년.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吉林大學 考古學院·和龍市文物管理所 編,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2004-2005, 2008 發掘報告』,文物出版社,2025년 6월.
 王連龍,『唐代高句麗百濟新羅移民石刻整理與研究』,中西書局,2025년.

(3) 연구 논문 - 106편

勞幹,「跋高句麗大兄冉牟頭婁高句麗都城之位置」,『歷史言語研究集刊』11, 1944년.
 金毓黻,「關於‘渤海貞惠公主墓碑研究’的補充」,『考古學報』1956-2, 1956년.
 閻万章,「渤海貞惠公主墓碑的研究」,『考古學報』1956-2, 1956년.
 王健群,「渤海貞惠公主墓碑考」,『文物集刊』2, 文物出版社, 1980년.
 王承禮,「唐代渤海《貞惠公主墓誌》和《貞孝公主墓誌》的比較研究」,『社會科學戰線』1982-1, 1982년.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社會科學戰線』1982-1, 1982년.
 王承禮,「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研究」(上),『博物館研究』1984-2, 1984년.
 王承禮,「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研究」(中),『博物館研究』1984-3, 1984년.
 耿鐵華,「高句麗貴族冉牟墓及墓誌考釋」,『遼海文物學刊』, 1987-2, 1987년.
 방학봉,「발해정효공주묘지명서에 대한 고역」,『발해사연구』1, 연변대학출판사, 1990년.
 方學鳳,「『貞孝公主墓誌』에 반영된 儒家思想연구」,『한국학연구』2, 1990년 3월.
 黃清連,「從‘扶餘隆墓誌’看唐代中韓關係」,『大陸雜誌』85-6, 1992년.
 黃清連(金善昱 譯),「夫餘隆墓誌」에서 본 當代 中韓關係」,『百濟史의 比較研究』,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93년 12월.
 張乃玄·張成昆,「跋洛陽出土的聖曆二年黑齒常之墓誌」,『唐史論叢』6, 1995년.
 马咏钟·张安兴,「唐似先义逸墓志考释」,『碑林集刊』3, 1995년.
 束有春·焦正安,「唐代百濟黑齒常之·黑齒俊父子墓誌文解讀」,『東南文化』1996-4, 1996년.
 耿鐵華,「高句麗冉牟墓研究」,『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吉林文化出版社, 1997년.
 馬馳,「『舊唐書』黑齒常之傳의 補闕과 考辨」,『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研究
 所, 1997년 12월.
 孫鐵山,「唐李他仁墓志銘考釋」,『遠望集』下, 陝西人民美術出版社, 1998년.
 金宪鏞·李健超,「陝西新發現的高句麗人, 新羅人遺迹」,『考古與文物』1998-6, 1999년.
 连劭名,「唐代高丽泉氏墓志史事考述」,『文献』1999-3, 1999년.
 耿鐵華,「冉牟墓誌와 中原高句麗碑」,『高句麗研究』10, 高句麗研究會, 2000년 12월.
 馬馳,「『難元慶墓誌』簡釋」,『春史卞麟錫教授 停年紀念論叢』, 2000년.
 杜文玉,「唐代泉氏家族研究」,『渭南師範學院學報』2002-3, 2002년.
 趙超,「唐代墓志中所見的高句麗與百濟人士」,『戡芬集』, 社会科学文献出版社:『鏗而不舍-中國
 古代石刻研究』, 三秦出版社, 2002년.
 馬馳,「『難元慶墓誌』簡釋」,『洛陽出土墓志研究文集』, 2002년.
 拜根興,「高句麗遺民高足西墓誌銘考釋」,『碑林集刊』9, 2003년.
 拜根興,「高句麗百濟遺民关联问题研究的现状与展望」,『中国历史地理论丛』2006-2, 2006년.

- 马一虹, 「从唐墓志看入唐高句丽遗民归属意识的变化—以高句丽末代王孙高震一族及权势贵族为中心」, 『北方文物』 2006-1, 2006년.
- 董延壽·趙振華, 「洛陽·魯山·西安出土的唐代百濟人墓誌探索」, 『东北史地』 2007-2, 2007년.
- 王化昆, 「武周高質墓誌」考略, 『河洛春秋』 2007-3, 2007년.
- 王俊·邵磊, 「百濟武寧王墓志與六朝墓志的比較研究」, 『南方文物』 2008-3, 2008년.
- 拜根興, 「百濟와 唐 관계에 관련한 두 문제 -웅진 도독 왕문도의 사망과 예식진묘지명에 관하여-」, 『百濟研究』 47, 2008년 2월.
- 拜根興, 「百濟遺民《祔寔進墓志銘》关联问题考释」, 『东北史地』 2008-2, 2008년.
- 바이건성,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년 5월.
- 張溫·汪幼軍, 「唐故虢王妃扶餘氏墓誌考」, 『木簡과 文字』 2, 한국목간학회, 2008년 12월.
- 拜根興, 「唐 <<李訓夫人王氏墓誌>>의 新考察」,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2009년 5월.
- 拜根興, 「入乡随俗: 墓志所载百济入唐遗民的生活轨迹」,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8-4, 2009년 7월.
- 拜根興, 「高句麗 遺民 高性文·高慈 父子 墓誌의 考證」, 『忠北史學』 22, 2009년.
- 拜根興, 「唐李他仁墓志研究中的幾個問題」,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9-1, 2010년 1월.
- 拜根興, 「唐 李他仁 墓志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충북사학』 24, 2010년 2월.
- 張彥, 「唐高麗遺民“高鏡苗墓誌”考略」, 『文博』 2010-5, 2010년.
- 王連龍, 「百济人祔军墓志考论」, 『社会科学战线』 2011-3, 2011년.
- 張全民·郭永洪, 「唐代百濟移民禰氏家族墓」, 『2011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2012년.
- 葛繼勇(鄭淳一 역), 「《祔軍墓誌》에 대한 覺書 -唐代 백제인 관련 石刻의 釋文-」, 『新羅史學報』 25, 2012년 8월.
- 王其禕·周曉薇, 「國內城高氏: 最早入唐的高句麗移民-新發現唐上元元年“泉府君夫人高提昔墓誌”釋讀」,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2-3, 2013년 5월.
- 樓正豪, 「高句麗遺民 高牟에 대한 考察」, 『韓國史學報』 53, 2013년 11월.
- 拜根興, 「入唐百濟移民陳法子墓誌涉及地名及關聯問題考釋」, 『大明宮研究』 8, 2013년.
- 胡戟, 「大唐西市博物館藏有有关中韓交往的三方墓誌」, 『大明宮研究』 8, 2013년.
- 張全民, 「唐代百济祔氏家族墓葬誌的涉发现与世系考証」, 『大明宮研究』 8, 2013년.
- 拜根興, 「入唐百济移民陳法子墓志关联问题考释」, 『史學集刊』 2014-3, 2014년.
- 拜根興, 「중국 학계의 백제 유민 禰氏 家門 墓誌銘 검토」, 『韓國史研究』 165, 2014년 6월.
- 拜根興, 「중국 학계 백제사 연구 현황 및 과제 -중국 출토 백제인 묘지명을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19, 2014년 12월.
- 陳瑋, 「新見武周百濟移民陳法子墓誌研究」, 『武則天與廣元』, 文物出版社, 2014년.
- 马云超, 「东亚视野下的百济人祔军墓志—以“日本余曺”和“僭帝称臣”为中心」, 『唐史论丛』 21, 2015년.
- 孫泓, 「幽州刺史墓主身份再考證」, 『社會科學戰線』 2015-1, 2015년.
- 葛繼勇(이유포 역),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79, 2015년 9월.
- 葛繼勇, 「新出高乙德墓志与高句丽末期的内政外交」, 『郑州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9-1, 2016년.
- 王菁·王其禕, 「平壤城南氏: 入唐高句麗移民新史料 -西安碑林新藏唐大曆十一年《南單德墓志》-」, 『北方文物』 2015-1, 2015년.

- 樓正豪,「高句麗遺民 李隱之 家族의 出自 의식에 대한 考察 -새로 발견된 「李隱之 墓誌銘」을 중심으로-」,『韓國古代史探究』21, 2015년 12월.
- 樓正豪,「新見高句麗遺民 南單德墓誌銘 考釋」,『西部考古』8, 科學出版社, 2015년.
- 辛时代,「唐高句麗移民刘元贞墓誌考釋」,『高句麗与东北民族研究』7, 吉林大学出版社, 2015년.
- 王連龍,「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志及相關問題研究」,『吉林師範大學學報』2015-4, 2015년.
- 拜根兴·宋丽,「新见高句麗百濟移民墓志的新探索」,『陕西历史博物馆馆刊』22, 2015년.
- 王连龙,「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志及相关问题研究」,『吉林师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43-4, 2015년.
- 葛继勇,「从高句麗百濟人墓志看高句麗末期对外关系」,『東洋學』58, 2015년.
- 祝立业,「从碑志看高句麗人的始祖记忆与族群认同」,『社会科学战线』2016-5, 2016년.
- 林泽杰,「高藏入唐前后相关史事考一以入唐高句麗人墓志资料为中心」,『东北史地』2016-3, 2016년.
- 全瑩·楊璐,「中國의 百濟學 研究에 대한 略考」,『百濟文化』54, 2016년.
- 王連龍,「【翻譯】唐代の高句麗移民「高乙德墓誌」および関連する問題」,『駿台史学』158, 2016년 9월.
- 拜根興,「중국 출토 入唐 百濟人 墓誌 관련 연구 성과 및 현황」,『중국 출토 百濟人 墓誌 集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청남도, 2016년 12월.
- 張全民,「당나라 백제유민 고분과 출토 묘지」,『중국 출토 百濟人 墓誌 集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청남도, 2016년 12월.
- 王連龍,「戰爭與命運: 總章元年(668年) 後高麗人生存狀態的考察-以唐代高麗人南單德墓誌為線索」,『奎章閣』49, 2016년 12월.
- 王连龙·丛思飞,「战争与命运:总章元年后高句麗人生存状态考察一基于高句麗移民南单德墓志的解读」,『社会科学战线』2017-5, 2017년.
- 王连龙·丛思飞,「唐代新罗人金日晟墓志及相关问题研究」,『北方文物』2017-3, 2017년.
- 范恩实,「入居唐朝内地高句麗遺民的迁徙与安置」,『社会科学战线』2017-5, 2017년.
- 樓正豪,「新见高句麗移民李隱之墓志铭考釋」,『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50-2, 2017년.
- 趙力光,「西安碑林所藏與海東關聯墓誌概述」,『碑林集刊』17, 2017년.
- 趙力光(소현숙 역),「중국 묘지(墓誌)의 기원과 변천」,『중국 낙양 출토 고대 묘지 탁본 -무령왕릉 묘지의 원류를 찾아서-』, 국립공주박물관, 2019년 7월.
- 陳璋,「陈法子墓志所见入唐百濟遺民史事研究」,『北方文物』2017-1, 2017년.
- 冯立君,「高句麗泉氏与唐朝的政治关系」,『社会科学战线』2018-8, 2018년.
- 王连龙·丛思飞,「唐代《高英淑墓誌》考釋一兼論遼西地區高句麗移民問題」,『古典文献研究』2018-2, 2018년.
- 王连龙·丛思飞,「唐《高延福墓志》考略」,『中国书法』2019-20, 2019년.
- 拜根兴,「入唐高句麗移民研究的现状及问题」,『社会科学战线』2019-8, 2019년.
- 拜根兴,「入唐 高句麗移民 研究의 現況과 問題」,『韓國史學史學報』43, 2021년 6월.
- 王连龙,「唐代《高乙德墓誌》所見高句麗官制考」,『文史』2021-2, 2022년.
- 王连龙·黄志明,「唐代高句麗移民《李仁晦墓志》考论」,『文物季刊』2021-1, 2021년.
- 王连龙·丛思飞,「唐代百濟太子扶餘豐女夫妻合葬墓誌考論」,『古典文献研究』2021-4, 2021년.
- 王连龙·丛思飞,「北魏平城时代高句麗移民史事考略一以《申洪之墓志》为线索」,『考古与文物』2021-5, 2021년.
- 拜根兴,「《唐故余杭郡太夫人泉氏墓志》考釋」,『文博』2022-3, 2022년.
- 拜根興,「자료로 본 3명의 고구려 여성 이민 사적에 관한 고찰」,『嶺南學』81, 2022년 6월.

景亚鹵·张安兴·杨玮燕, 「唐代《似先义逸墓志》再研究」, 『陕西历史博物馆论丛』 29, 陕西历史博物馆, 2022년.

拜根兴·林泽杰, 「隋唐時期 李禎墓誌 관련 문제 검토」, 『新羅史學報』 57, 2023년 4월.

拜根兴(張元燮 역), 「새로 발견된 餘杭郡太夫人 泉氏 墓誌 고찰」, 『木簡과 文字』 30, 2023년 6월.

拜根興, 「石刻碑誌所見唐與新羅關係研究的現狀及問題」,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6-4, 2023년.

沈屹霖, 「唐《高远望墓志》考释」, 『辽东学院学报』(社会科学版) 25-4, 2023년.

王连龙·明鹏飞, 「遗忘与建构:唐代高句丽移民族源记忆研究—以石刻文献为线索」, 『中国文献学研究』 2024-2, 2024년.

宋卿, 「中国学界高句丽移民研究述评」, 『地域文化研究』 2025-1, 2025년.

王连龙·余文玉, 「新见新罗质子《金泳墓志》疏证」, 『地域文化研究』 2025-4, 2025년.

陝西省考古研究院, 「陝西西安唐新羅質子金泳墓發掘簡報」, 『考古與文物』 2025-6, 2025년.

夏培朝·魏铨, 「唐新罗质子金泳墓志考略」, 『考古与文物』 2025-6, 2025년.

샤 페이지차오(夏培朝)·웨이 청(魏铨) 저(김영관 역), 「唐의 新羅質子 金泳 墓志 考略」, 『한국고대사탐구』 50, 2025년 8월.

樓正豪, 「고구려 유민 高冲雲 묘지명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 65, 2025년 12월.

周鵬, 「唐代新羅人「金泳墓誌」所見幾個問題」, 『中國史研究』 155, 中國史學會, 2026년 1월.

拜根兴·赵力光, 「大相惠墓志揭示高句丽移民融入唐朝」,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5-2, 2026년.

拜根兴·赵力光, 「入唐高句丽移民大相惠墓志涉及问题考论」, 『地域文化研究』 2026-2, 2026년.

3. 일본의 묘지명 관련 연구 성과

(1) 자료집 - 2권

氣賀澤保規 編, 「新版唐代墓誌所在總合目錄(増訂版)」, 明治大学アジア石刻研究所·汲古書院, 2009년 10월.

氣賀澤保規 編, 「新編唐代墓誌所在總合目錄」, 明治大学アジア石刻研究所·汲古書院, 2017년 3월.

(2) 저서 - 1권

植田喜兵成智,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古代東アジア国際關係の變化と再編-』, 山川出版社, 2022년 3월.

(3) 자료집 - 35편

內藤虎次郎, 「近獲の二三史料 - 扶余隆墓誌·扶余隆と新羅王との盟文·泉男生 泉男産墓誌銘·高慈墓誌 -」, 『芸文』 11-3, 京都大學京都文學會, 1920년.

葛城末治, 「百濟扶余隆の墓誌に就て」, 『朝鮮』 103, 朝鮮總督府, 1923년.

小田省吾, 「朝鮮上世史」, 『朝鮮一般史』, 朝鮮史學會, 1924년.

稻葉君山, 「高句麗の泉男生の墓誌に就て」, 『朝鮮史講座 特別講義』, 朝鮮史學會, 1925년.

葛城末治, 「高句麗泉男生墓誌」, 『朝鮮金石攷』, 京城 大阪屋號書店, 1935년.

池內宏, 「高句麗人牟頭婁の墓と墨書の墓誌」, 『書苑』 1-8, 法書會, 1937년.

岡崎敬, 「安岳第三号墳(冬寿墓)の研究: その壁画と墓誌銘を中心として」, 『史淵』 93, 九州大学文学部, 1964년 7월.

瀧川政次郎, 「百濟武寧王妃墓碑陰の冥券」, 『古代文化』 24-3, 1972년.

瀧川政次郎, 「百濟武寧王妃墓碑と陰冥券考追考」, 『古代文化』 24-7, 1972년.

大谷光男, 「百濟 武寧王·同王妃의 墓誌에 보이는 曆法에 對하여」, 『考古美術』 119, 1973년 9월.

佐伯有清, 「高句麗牟頭婁塚墓誌の再検討」, 『史朋』 7, 北海島大學文學部, 1977년.

田中俊明, 「德興里壁畫古墳の墨書銘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報』 59, 1980년.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権」, 『朝鮮學報』 99·100, 朝鮮学会, 1981년 7월.

佐保竹子, 「百濟武寧王陵誌石の字跡と中國石刻文字との比較」, 『朝鮮學報』 111, 1984년.

佐伯有清, 「高句麗廣開土王時代の墓誌」, 『東アジアの古代文化』 51, 1987년.

武田幸男, 「德興里壁畫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朝鮮學報』 130, 1989년.

奥田尚, 「鄒牟王物語をめぐる二、三の問題 -好太王碑文と牟頭婁墓誌の鄒牟王物語-」, 『アジア文化学科年報』 3, 追手門学院大学文学部アジア文化学会, 2000년 11월.

氣賀澤保規, 「『西安碑林全集』所収「唐代墓誌目錄」」, 『明大アジア史論集』 7, 明治大学東洋史談話会, 2002년 2월.

石見清裕(全炫室 역), 「唐代墓誌史料의 概觀 -前半期官撰墓誌·規格·行狀과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0, 2008년 3월.

荊木美行, 「祔軍墓誌の出現とその意義」, 『皇學館論叢』 45, 2012년.

東野治之, 「百濟人祔軍墓誌の日本」, 『図書』 756, 2012년.

古代東アジア史ゼミナール, 「祔軍墓誌訳注」, 『史滴』 34, 早稲田大学東洋史懇話会, 2012년 12월.

古代東アジア史ゼミナール, 「祔寔進墓誌訳注」, 『史滴』 35, 早稲田大学東洋史懇話会, 2013년 12월.

井上直樹, 「570年代の高句麗の対倭外交と高句麗·北齊關係 -新出『裴遺業墓誌』の検討を中心に-」, 『高句麗渤海研究』 45, 2013년 3월.

金子修一, 「禰氏墓誌と唐朝治下の百濟人の動向」, 『日本史研究』 615, 2013년.

西本昌弘, 「祔軍墓誌の日本と風俗」, 『日本歴史』 779, 2013년.

古代東アジア史ゼミナール, 「祔素士墓誌訳注」, 『史滴』 37, 早稲田大学東洋史懇話会, 2015년 12월.

小林敏男, 「祔軍墓誌銘の「日本」と白村江戦前後」, 『大東文化大学紀要』 14, 2016년.

古代東アジア史ゼミナール, 「祔仁秀墓誌訳注」, 『史滴』 40, 早稲田大学東洋史懇話会, 2018년 12월.

植田喜兵成智, 「韓国学界における遺民墓誌研究の現況-最近刊行された資料集の比較を中心に」, 『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 17, 2018년.

이나다 나츠코(稻田奈津子), 「일본 고대 묘지와 한국, 그리고 무령왕릉 지식」, 『百濟學報』 26, 2018년 11월.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內臣之番’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武周시기부터 玄宗 開元期에 이르기 까지 유민 양상과 그 변화-」, 『高句麗渤海研究』 64, 2019년 7월.

植田喜兵成智, 「黒齒常之·俊親子の事績とその墓誌の制作背景」, 『古代文化』 70-4, 古代学協會, 2019년 03월.

森部豊, 「唐代営州における契丹人と高句麗人」,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 52,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 2019년 04월.

近藤浩一, 「白村江直後における熊津都督府の対倭外交 -朝鮮半島西南地域と北部九州にみる交流史の視点から-」, 『人文×社会』 4, 2021년.

西本昌弘, 「祔軍墓誌再論」,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 57, 2024년 7월.

주제발표 1

고구려 묘지에 나타난 생사관과 장송 의례

김 근 식
(전남대학교)

-
- I. 머리말
 - II. 고구려 묘지의 구조와 생사관
 - 1. 안악3호분 묘지의 구조와 죽음 인식
 - 2. 모두루총 묘지의 구조와 죽음 인식
 - 3. 덕흥리벽화고분 묘지의 구조와 죽음 인식
 - III. 고구려 묘지와 장송 의례
 - IV. 맺음말
-

I. 머리말

喪葬禮의 ‘喪’은 본래 ‘잃다(失)’·‘상실하다(亡)’의 의미를 지닌 글자로,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은 자를 잃은 이후의 상태를 가리킨다.²⁰⁾ 따라서 ‘상’은 단순한 사망의 기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일정한 시간 속에서 수행되는 애도와 상례의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葬’은 시신을 감추고 매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글자로, 죽은 자를 일정한 의례를 통해 삶의 세계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을 뜻한다.²¹⁾ 따라서 ‘장’은 단순한 매장 행위가 아니라, 죽음을 사회적으로 완결하는 의례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상’이 죽음 이후의 상실과 애도의 상태를 가리킨다면, ‘장’은 그러한 상태를 일정한 의례 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과 ‘장’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시간성과 의례 과정을 서로 다른 층위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흔히 喪葬과 葬送을 동일시하거나 혼동하는데 상장은 장송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에 가깝다.²²⁾

고구려 묘지에는 묘주의 생애뿐 아니라 장례 시점과 길일 선택, 이후에 대한 기원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무덤 내부라는 장례 공간 속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송 의례의 일부 양상을 반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구려의 묘지가 상장례 전체를 직접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구려 묘지는 죽음을 둘러싼 상장 과정 전체를 복원하기보다, 장송 의례를 통해 드러나는 죽음 인식과 의례 구조를 살필 수 있는 텍스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구려에 남겨진 묘지는 묘주의 생애와 정치적 위상을 밝히는 1차 사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로 이해되었다.²³⁾ 무엇보다 주요 벽화고분에서만 확인되는 묘지는 고구려의 대외 관계와 지배 질서, 그리고 묘주의 출신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활용되며 고구려 중기 연구의 핵심 자료로 자리매김하였다.²⁴⁾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묘지를 묘주의 행적을 정리한 기록물로 이해하였으며, 벽화의 방제 역시 장면을 설명하는 보조적 텍스트로 파악하였다.²⁵⁾ 이러한 연구 경향의 문제는 묘지와 목서를 무덤이라는 공간으로써

20) “喪, 亡也. 又 失位也.”(『康熙字典綱上版』, 200쪽).

21) “葬, 葬也者, 藏也, 藏也者, 欲人之弗得見也.”(『康熙字典綱上版』, 1046쪽).

22) 권오영, 2000, 「고대 한국의 상장의례」, 『한국고대사연구』 20, 6쪽.

23) 이 연구에서 다루는 명문 자료의 판독과 연구사는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 사료 DB 금석문·문자 자료의 고구려와 낙랑 항목에 잘 정리되어 있다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gskh_001).

24) 佐伯有清, 1987, 「食大倉考-德興理高句麗壁畫古墳の墓誌に關聯して」, 『日本常民文化紀要』 13; 1995, 『古代東アジア金石文論考』, 吉川弘文館 재수록; 공석구, 1989, 「안악3호분의 목서명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21; 손영중, 1991, 「덕흥리 벽화무덤의 피장자 망명인설에 대한 비판」, 『역사과학』 1991-1-2; 공석구, 1990, 「덕흥리벽화고분의 그 주인공과 그 성격」, 『백제연구』 21; 임기환, 1995,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경영 -안악 3호분·덕흥리 고분의 목서명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47; 이인철, 1998, 「덕흥리벽화고분의 목서명을 통해 본 고구려의 유주경영」, 『역사학보』 158; 여호규, 2009,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 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정호섭, 2010, 「고구려 벽화고분의 명문과 피장자에 관한 제문제」, 『고구려발해연구』 36; 최일례, 2017, 「모두루묘지명에 투영된 5세기 고구려의 정치세력」, 『한국고대사연구』 85.

25)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 (고구려·백제·낙랑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南秀雄, 1995, 「高句麗古墳壁畫の圖像構成」, 『朝鮮文化研究』 2; 한국고대사학회 편, 2004,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 서경문화사, 177~236쪽.

터 분리된 독립적인 문자 자료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연구는 무엇이 기록되었는가에 주목했지만, 왜 무덤 내부에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그 기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무덤 내부에 문자를 남긴 행위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덕흥리벽화고분 연도 동벽 ‘觀者’ 묵서에 대한 발견을 통해 무덤 내부를 방문하여 벽화를 관람한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벽화고분의 일부가 일정 기간 외부에 개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²⁶⁾ 이는 무덤 내부의 묘지와 방제가 단순히 망자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대상을 전제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장례 시점과 무덤 폐쇄 시점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은, 고구려 사회에서 죽음이 단일한 순간이 아니라 일정한 전이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후 무덤 내부 문자와 벽화를 관람자의 시선 및 이동을 연관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묘지와 방제가 단순한 망자 기록이 아니라, 일정한 관람자를 전제로 구성된 장송 텍스트였음을 논의하였으며, 나아가 벽화와 묵서를 하나의 시각적·서사적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장례 중에 무덤이 일정 기간 외부에 개방되었을 가능성과, 관람 행위를 고려한 벽화 및 방제의 배치 문제가 함께 검토되었다.²⁷⁾ 또한 장례를 주관한 세력이 남긴 명문 자료를 다양한 독자층에 전달한 정치·사회적 메시지로 이해하는 시각도 제시되었다. 묘지와 묵서를 단순한 死者의 기록이 아니라, 장례를 계기로 生者가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기반을 드러내는 매체로 파악한 것이다.²⁸⁾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고구려 묘지들은 모두 동일한 성격의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 안악3호분 묘지는 묘주의 관직과 출신, 생애 이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죽음을 ‘기록’하는 성격이 강하다. 모두루총 묘지는 시조 신화와 가계, 그리고 공적에 관한 서술을 통해 죽음을 하나의 역사적 ‘서사’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반면, 덕흥리벽화고분 묘지는 장례 시점과 길일, 그리고 이후의 기원을 포함함으로써 죽음을 장례 과정에서 ‘의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고구려 묘지가 단일한 성격의 기록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과 장례 환경에 따라 구성되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 묘지를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장례 의례 속에서 실제로 읽히고 기능한 ‘장송 텍스트’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안악3호분·모두루총·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를 비교하여, 각 묘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을 서술하고 의미화하였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묘지의 서술 구조와 장례 시점, 무덤의 공간 구성 및 관람 가능성 등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고구려 사회에서 죽음이 단순한 생의 종결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의례를 거쳐 완성되는 상태로 이해되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고구려 묘지가 단순한 死者의 기록을 넘어, 죽음을 해석하고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의례적 텍스트로 활용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6) 김근식, 2020, 『고구려벽화고분의 묵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a, 「덕흥리벽화고분의 ‘觀者’묵서와 ‘觀覽者’」, 『한국고대사연구』 101.

27) 안정준, 2021, 「樂浪·帶方郡 故地の 고분 속에 구현된 對外用 敘事와 구성 의도 -德興里壁畫古墳의 벽화와 방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03.

28) 오영찬, 2022, 「4세기 서북한지역 명문자료의 다중적 메시지」, 『한국고대사연구』 106.

II. 고구려 묘지의 구조와 생사관

현재까지 확인된 안악3호분·덕흥리벽화고분·모두루총의 묘지는 모두 벽화고분 내부에 남겨졌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서술 방식과 성격은 서로 다르다. 안악3호분 묘지가 묘주의 정치적 위상과 생애 이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모두루 묘지는 가계의 정통성과 선대의 공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된다. 이에 비해 덕흥리벽화고분 묘지는 장례 시점과 길일 선택, 그리고 자손의 번영에 대한 기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고구려 묘지를 단일한 형식의 기록물로 파악하기보다는, 각 자료가 남겨진 墓葬 환경과 서술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문헌에 기록된 죽음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생각은 『三國志』와 『隋書』 사이에서 내용상의 차이가 확인된다. 『삼국지』에는 “남녀가 결혼하면 곧 죽어서 입고 갈 수의를 미리 조금씩 만들어 둔다.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니, 금·은의 재물을 모두 장례에 소비하며,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잣나무를 그 주위에 벌려 심는다”고 전한다.²⁹⁾ 반면, 『隋書』에는 “고구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집 안에 안치하여 두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좋은 날을 가려 장사를 지낸다. 부모 및 남편의 상에는 모두 3년 복을 입고, 형제는 3개월간 입는다. 初喪에는 땀과 泣을 하지만 장사 지낼 때는 복치고 춤추며 풍악을 울리면서 장송한다. 매장이 끝난 뒤 죽은 자가 생존 시에 썼던 의복과 거마를 모두 거두어다 무덤 옆에 두는데, 장례에 모였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가져간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⁰⁾

두 사료는 시기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고구려 사회에서 장례가 죽음 이후의 상태를 규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해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특히 殯葬,吉日 선택, 공동체적 장송 행위 등에 대한 기록은 죽음 이후에도 일정한 시간적 단계가 존재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고구려 벽화고분 묘지의 서술 구조 안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한편, 고구려 벽화고분과 묘지 문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漢·魏·晉代부터 전해오던 장송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초기 평양 지역 벽화고분은 낙랑·대방 고지의 중국계 유민 문화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 역시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덕흥리벽화고분에서 확인되는 관자 묵서와 무덤의 개방 가능성은 묘지와 벽화가 단순히 무덤 내부에 남겨진 기록이나 장식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묘지가 장례 과정에서 어떠한 구실을 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1. 안악3호분 묘지의 구조와 죽음 인식

안악3호분 묘지는 전실 서벽 입구 상부에 묵서된 형태로 남아 있으며, 현재 확인되는 고구려 벽화고분 묘지 가운데 가장 이른 사례(357년)로 알려져 있다. 묘지의 내용은 동수의 출신과 관직, 그리고 사망 시점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使持節 都督諸軍事 平東將軍 護撫夷校尉 樂浪相 昌黎·玄菟·帶方太守 都鄉侯” 등의 장황한 관직명은 묘주의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나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9)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三國志』東夷傳 高句麗)

30)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初終哭泣, 葬則鼓儛作樂以送之. 埋訖, 悉取死者生時服玩車馬置於墓側, 會葬者爭取而法.”(『隋書』東夷列傳 高句麗).

A. 永和 13년 초하루날이 戊子日인 10월 26일 癸丑에 使持節 都督諸軍事 平東將軍 護撫夷校尉이고 樂浪相이며 昌黎·玄菟·帶方太守이자 都鄉侯로 幽州 遼東郡 平郭縣의 都鄉 敬上里 출신 冬壽는 字가 安인데 나이 69세에 官으로 있다가 사망하였다.³¹⁾

안악3호분 묘지의 서술상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을 하나의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묘지에는 동수의 출신과 관직, 나이, 사망 사실 등이 비교적 간결하게 쓰여 있으며, 장례 절차나 사후 기원과 같은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묘지는 죽음 이후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기보다는 묘주의 생애와 정치적 정체성을 정리하는 데에 중심이 놓여 있다. 따라서 안악3호분 묘지는 죽음을 사회적 기억 속에 남기는 傳記的 기록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악3호분의 朱書 방제 체계 역시 이러한 특징과 연결된다. 벽화에 남겨진 주서들은 대부분 인물의 관직이나 역할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벽화 장면의 서사적 전개보다는 묘주의 위계와 권위를 알려주기 위한 시각적 표현에 가깝다. 즉, 문자 체계 역시 정치적 위상과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징은 안악3호분이 중국계 묘지 문화와의 관련성을 말해준다. 특히 묘주 중심의 전기적 서술 방식과 관직 중심의 기록 구조는 중국식 묘지 형식과 유사성을 드러낸다. 결국 안악3호분 묘지는 기본적으로 중국계 유이민의 묘지 전통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연구 역시 晉代 묘지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안악3호분 묘지의 서술 구조가 ① 사망 시점, ② 역임 관직·출신지, ③ 성명·字, ④ 사망 연령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대 묘지와 유사성이 지적되었다.³²⁾ 물론 일반적인 양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³³⁾ 시기상 진대 묘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형식은 요양 지역 벽화고분과 동일한 모습을 띠지는 않는다. 실제로 요양 일대의 한·위진 벽화고분에서는 무덤 내부에 간단한 선각 문자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안악3호분처럼 벽면에 장문의 묘지를 남긴 사례는 드물다.

반면 낙랑·대방 지역에서 확인되는 명문전 가운데에는 묘주의 이름·관직·사망 등을 기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그 내용과 기능 면에서 묘지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특히 修利墓에서 발견된 永和九年銘塼(353년)에는 “永和九年 遼東 韓 玄菟太守領 修利 造”라는 명문이 남겨졌는데, 안악3호분 묘지와 시기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인물의 출신과 관직을 기록하는 방식에도 일정한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점은 안악3호분 묘지가 중국 요양 지역 벽화고분 전통뿐 아니라, 낙랑·대방 고지의 묘장 문화 역시 함께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³⁴⁾ 그러나 단순히 위진대 묘지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도 확인된다. 안악3호분 묘지는 벽화와 결합한 상태로 무덤 내부에 기록되었으며, 각 장면의

31) “永和十三年十月戊子朔廿六日癸丑, 使持節·都督諸軍事·平東將軍·護撫夷校尉·樂浪相·昌黎玄菟帶方太守·都鄉侯·幽州遼東平郭都鄉敬上里冬壽, 字安, 年六十九薨官.”(안악3호분 묘지에 대한 판독과 해석은 김근식, 2021b, 「안악3호분의 연원과 ‘무덤 내 문자’」, 『중앙사론』 54, 24~27쪽과 정호섭이 작성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사료 DB 고구려 묘지명·목서명 안악3호분 목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통합·정리하였다).

32) 공석구, 1989, 「안악 3호분의 목서명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21, 6쪽.

33)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191~193쪽.

34) 김근식, 2021b, 앞의 글, 24~27쪽.

방제와 함께 하나의 시각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묘지의 문자 역시 독립된 비문이나 묘표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벽화와 함께 무덤 내부의 시각적 구성 속에서 배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안악3호분 묘지의 서술 목적은 묘주가 생전에 어떠한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을 가졌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다. 자신의 출신지에 대한 명시와 역임한 관직의 나열은 그 정체성을 정치적 질서에 위치시키는 만큼, 전기적 서술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처리되고 있다. 결국 사망은 묘주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사건으로 제시될 뿐, 장례 과정이나 사후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예 서술하지 않는다. 즉 안악3호분 묘지에서의 죽음은 이후 변화를 강조하기보다, 생애를 마무리하는 기록상의 종결점에 가깝다. 따라서 안악3호분 묘지에서 확인되는 생사관은 장례 의례나 사후 전이보다는, 생전의 정치적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모두루총 묘지의 구조와 죽음 인식

모두루총 묘지는 현재 전하는 고구려 묘지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가진 사례로, 그 내용 역시 안악3호분·덕흥리벽화고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 묘지는 묘주의 개인적 생애보다 시조 전승과 가계, 그리고 先代의 공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서술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 내용은 모두루 개인의 이력에 더해 북부여 계통의 역사 인식과 선조의 활동, 그리고 聖王 계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모두루총 묘지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결국 여기에서 죽음은 생애의 종결이 아니라, 가계와 공적을 계승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B. 대사자 모두루 𐎠𐎡𐎣 河泊의 손자이며 일월의 아들인 추모성왕은 본래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니, 天下四方은 이 國郡이 가장 성스럽다는 것을 안다. … 治此郡之嗣 … 聖王之 奴客인 祖 … 북부여에서 성왕을 따라왔다. 노객 … 대대로 관을 입었다. … 國上聖太王之 치세에 … 立禮 1 僕 … 非一枝 … 叛逆 … 之 … 冉牟 … 遣招 … 拘雞 … 暨農 … 1 … 恩1 … 官客止 … 염모가 𐎠𐎡로 하여금 … 慕容鮮卑 𐎠𐎡; 使人 𐎠𐎡 하백의 손자이며 일월의 아들이 태어난 곳임을 알고 북부여로 … 왔다. 大兄 염모 才 … 公 𐎠𐎡 … 牟婁 … 白 … 亡 … 存 … 세상 사람에게 알려[造世人] … 𐎠 … 人 … 夫餘 … 하백과 일월의 … 祖 대형 염모의 목숨이 다하니 … 죽음에 喪禮하였다. 조부 …에서 연유하여 대형 慈 𐎠와 대형 … 가 대대로 관을 입었다. 恩貝 祖의 𐎠道·城民·谷民, 아울러 前王 … 양육 … 이와 같았다. 國上廣 𐎠土地好太聖王에 이르러 조부가 [태왕의] 은혜를 받들었던 연유로 노객 모두루에게 교를 내리셨고, 교를 내려 北夫餘守事로 보냈다. 하백의 손자며 일월의 아들인 성왕 … 族 …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奄便 … 노객은 멀리 떨어져 있어 襄切 … 若 … 不 … 月不 … 明 … 客 … 知 … 在 … 之 … 還 … 教之 … 葵 … 潤太隊蛹躍 … 人 … 늙은 노객에게 교를 내려 … 관을 緣… 使… 寃極言教 … 心… 免 … 述 … 不 … 一 … 公依如若 … 知… 𐎠… 如 … 朔月 … 35)

35) “大使者牟頭婁 𐎠𐎡 河泊之孫日月之子鄒牟聖王, 元出北夫餘, 天下四方知此國郡最聖. 1 𐎠治此

안악3호분이 생전의 정치적 위상을 강조하였다면, 모두루총은 장기적인 역사성과 계통 의식을 중시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모두루총 묘지는 안악3호분·덕흥리벽화고분 묘지 에서 확인되는 관직 중심의 기록 방식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조 전승과 가계 서사, 그리고 선대의 공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개토왕릉비나 집안고구려비 등 과 같은 비문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모두루총 묘지가 고구려 내부의 계보 의식과 역사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고구려는 여러 고구려 비문에서 왕권의 계보, 공적을 장대하게 서술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달리 모두루총 묘지는 무덤 내부에 쓰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 구성은 고구려 비문의 서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묘지라는 형식 자체를 비문의 변형 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국내성 지역에서는 5세기 전반 이전까지 무덤 내부에 장문의 묘지를 남긴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두루총은 덕흥리벽화고분과 규모·구조·묘지 위치 등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평양 천도 이후 두 지역 사 이의 문화 교류를 고려할 때 평양 지역의 묘지 문화가 모두루총 묘지에 영향을 끼쳤을 가 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두루총은 단순히 평양계 묘지 문화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 조 전승과 가계 서사, 왕권 계보 등을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국내성 지역 특유의 역사 서사 안에서 재구성되었다.³⁶⁾ 따라서 모두루총 묘지는 중국계 묘지 전통과는 별개로, 고 구려 내부의 역사 서사와 결합한 묘지로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안악3호분과 모두루총 묘지는 모두 묘주의 권위와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서술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안악3호분이 묘주의 생애 와 관직을 중심으로 한 전기적 서술을 특징으로 한다면, 모두루총은 시조 전승과 계보, 그 리고 선대의 공적을 통해 가문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각하고 있다. 즉, 전자가 생전의 정 치적 위상을 기록하는 데 중심이 놓여 있다면, 후자는 역사적 계승과 권위의 지속성을 강 조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고구려 묘지가 단일한 형식으로 존재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과 장례 환경 아래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모두루 총 묘지의 핵심은 가문의 지속성과 정치적 정당성이다. 선조의 공적을 통해 왕권과의 관 계를 반복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묘주 개인보다 가문 전체의 역사적 권위를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생사관 역시 죽음 자체보다 시조 전승과 선조의 공적, 그리고 가문의 역사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안악3호분과 모 두루총은 모두 장례 절차나 사후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두 묘지 모두 죽음을 기록하거나 역사적 서사와 연결하고 있지만, 장례 자체를 독립적인 의미 체계로 강조 하지는 않는다. 즉, 죽음 이후의 전이나 의례 절차는 상대적으로 중심적인 서술 대상으로

郡之嗣…聖王奴客祖…北夫餘隨聖王來。奴客[?]之[?]造…世遭官恩[?]。國[?]上聖太王之世…立禮[?] 儼…非[?]枝…叛逆[?]之…冉牟…遣招…拘雞…暨農…[?]恩[?]…官客止…冉牟令[?]靈…慕容鮮卑[?]；使人[?]知 河泊之孫日月之子所生之地，來[?]北夫餘。大兄冉牟才[?]公[?]多…牟婁…白…[?]存…造世人…[?]人…夫 餘…河泊日月之…祖大兄冉牟壽盡[?]於彼，喪亡終。由祖父[?]大兄慈[?]大兄[?]世遭官恩，恩具祖之 [?]道·城民·谷民，并[?]前王[?]育如此。遷至國[?]上廣[?]土地好太聖王，緣祖父[?]恭恩，教奴客牟頭婁[?]牟， 教遣令北夫餘守事。河泊之孫日月之子聖王[?]族昊天不弔奄便[?]奴客在遠襄切[?]若[?]不[?]月不 [?]明[?]客…知[?]在[?]之[?]選[?]教之[?]葵…潤太隊蛹躍…人教老奴客…官恩緣…使…冤極言教[?] 心…免…述…不…公依如若…知…[?]如…朔月…”(모두루총 묘지에 대한 판독과 해석은 이준성, 2020, 「牟頭婁 墓誌의 판독과 역주 재검토」, 『목간과 문자』 25를 따른다).

36) 김근식, 2023, 「평양천도 후 고구려 묘장문자문화의 전이와 변용」, 『동북아역사논총』 79, 153~161쪽.

다루어지지 않는다.

3. 덕흥리벽화고분 묘지의 구조와 죽음 인식

마지막으로 덕흥리벽화고분 묘지는 고구려 묘지 가운데 가장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사례에 해당한다. 묘지는 전실 북벽 통로 상단에 위치하며, 총 14행 150여 자가 남겨져 있다. 이 묘지는 단순히 생애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장례 시점과 길일 선택 그리고 자손의 번영에 대한 기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악3호분 및 모두루총과 구별된다.

C. 信都縣 都鄉 中甘里 출신으로, 釋加文佛의 弟子인 鎮은 역임한 관직이 建威將軍 國小大兄 左將軍 龍驤將軍 遼東太守 使持節 東夷校尉 幽州刺史였다. 진이 77세로 죽어, 영락 18년(408) 戊申年인 해의 초하루가 신유년인 12월 25일 을 유일에 (무덤을) 완성하고, 靈柩를 옮겼다. 주공이 땅을 살피고, 공자가 날짜를 택하였으며, 무왕이 때를 골라, 날짜를 모두 좋게 하였다. 葬送한 후에, 부유함이 7대 동안 미치고, 자손이 번창하고, 벼슬도 나날이 올라가니, 지위가 侯와 王에 이를 것이다. 무덤을 만드는 데 만 명의 공력이 들었고,³⁷⁾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술과 고기 쌓은 다 먹지 못할 정도이다. 아침에 먹을 간장을 충분히 마련하였다.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며, 이 무덤을 방문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기를.³⁸⁾

묘지의 전반부는 묘주의 출신과 관직, 생애 이력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악3호분과의 일정한 공통성을 가진다. 묘주의 배경 설명과 관직 중심의 기록 방식은 중국계 유민 전통과의 관련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덕흥리벽화고분 묘지는 단순한 전기적 기록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특징도 함께 지니고 있다. 후반부에 이르면 장례 시점과 길일 선택, 자손의 번영과 사회적 상승을 기원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망 시점보다 장례일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덕흥리벽화고분 묘지에서 죽음은 단순히 생애의 종결로 처리되지 않는다. 죽음 이후 어떠한 장례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장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가 핵심적인 관심사로 제시된다. 이는 사망 자체보다 장례의 완성과 그 이후의 결과가 강조되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안장일과 무덤 폐쇄일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확인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연도 서벽에 쓰인 묵서와 묘지 내용을 비교하면, 장례 이후 일정 기간 무덤이 개방된

37) 이정빈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덕흥리고분 묵서」에서 ‘造▼萬功’을 ‘전력을 다하였으니’로 보기도 하나, 여기서는 ‘만 명의 공력이 들었고’로 해석하였다. 덕흥리 벽화고분 제작에 실제 만 명이 참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를 ‘전력을 다했다’로만 해석하기에는 그 뉘앙스가 모두 전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김근식, 2020, 앞의 글, 53~56쪽).

38) “信都縣 都鄉 中甘里, 釋加文佛弟子, 鎮氏鎮, 仕建威將軍 國小大兄 左將軍 龍驤將軍 遼東太守 使持節 東夷校尉 幽州刺史. 鎮年七十七薨焉. 永樂十八年, 太歲在戊申, 十二月辛酉朔, 廿五日乙酉成, 遷移玉柩. 周公相地, 孔子擇日, 武王選時, 歲使一良. 葬送之後, 富及七世, 子孫蕃昌, 仕宦日遷, 位至侯王. 造▼萬功, 日煞牛羊, 酒穴米粢, 不可盡掃, 旦食鹽▼食一椀. 記之後世寓寄無疆.”(덕흥리 벽화고분 묘지에 대한 판독과 해석은 발굴보고서인 박진욱 외 4인, 1981, 『덕흥리 고구려 벽화무덤』, 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김근식, 2020, 앞의 글, 53~56쪽, 이정빈이 작성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사료 DB 고구려 묘지명·묵서명 덕흥리고분 묵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통합·정리하였다).

상태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장례가 단일한 행위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죽음 역시 단일한 순간에 완결되는 사건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삶과 죽음은 절대적으로 단절된 영역이라기보다 일정한 전이 과정을 통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무덤이 완전히 폐쇄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죽음을 완성해 가는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묘지 후반부에 나타나는 자손의 번영과 관직 상승에 대한 기원 역시 마찬가지다. 묘지에서는 “葬送한 후에, 부유함이 7대 동안 미치고 자손이 번창하여 벼슬도 나날이 올라가 지위가 侯와 王에 이를 것이다”라는 장례 이후의 희망을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도 가문의 번영과 사회적 지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관념을 반영한다.

또한 연도 동벽에 남겨진 ‘관자’ 묵서는 무덤 내부를 방문하여 벽화를 관람한 존재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나아가 무덤 내부의 벽화와 묵서가 단순한 장식이나 기록물이 아니라, 실제 장례 중에서 일정한 대상에게 읽히고 보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벽화·묘지·묵서가 서로 결합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 역시 덕흥리벽화고분이 단순한 매장 공간이 아니라, 장례 의례가 수행되는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덕흥리벽화고분 묘지는 중국계 장송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벽화와 묘지 그리고 관람 행위가 결합한 복합적 의례 구조를 갖춘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는 죽음을 기록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의례 과정에서 실제로 읽히고 활용되는 텍스트였던 것이다. 결국 덕흥리벽화고분 묘지에 나타난 생사관은 ‘죽음=종결’이라는 단순한 인식으로 환원되기 어렵다. 죽음은 장례 의례와 시간적 전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의미화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生과 死는 절대적으로 단절된 영역이라기보다, 장례라는 절차를 매개로 서로 이어지는 연속선 위에서 이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자면 안악3호분·모두루총·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안악3호분이 생전의 정치적 위상을 기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모두루총은 가문의 역사성과 권위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덕흥리벽화고분은 죽음 이후의 장례 과정과 시간 구조,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과정적이고 의례적인 생사관을 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구려 사회 내부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단일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묘지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죽음을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텍스트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덕흥리벽화고분에는 묘지·벽화·묵서와 관람의 흔적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해 있다는 점에서, 묘지가 장송 의례 속에서 활용된 텍스트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Ⅲ. 고구려 묘지와 장송 의례

墓誌는 일반적으로 禁碑令 이후 지하로 들어간 墓碑와 墓記類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⁹⁾ 초기 묘지는 묘주의 이름과 본적, 사망 시기 등을 기록하는 기능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묘주의 생애와 공적, 가족 관계, 장례 시점 등이 함께 기록되면서

39) 홍승현, 2022, 『석각의 사회사 -고대 중국인의 욕망과 그 기록-』, 혜안, 29~30쪽.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 특히 묘지는 때에 따라誌와 銘이 시간차를 두고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묘지가 단순히 특정 시점에 완성된 기록물이 아니라 장례와 추모의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구성되는 성격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묘지가 무덤 내부에 배치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이것은 묘지가 단순한 외부 표식이 아니라 장례 의례와 결합한 내부 텍스트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⁴⁰⁾

이러한 점은 고구려 묘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구려 묘지는 모두 벽화고분 내부에서 발견되며, 벽화나 묵서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고구려 묘지가 단순한 사자 기록이 아니라, 무덤 공간 내부에서 장례 과정과 관람 행위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벽화와 묘지가 동일한 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두 요소가 서로 분리된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의 장례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안악3호분 묘지에서 서술의 중심은 묘주가 어떠한 관직과 권위를 지녔는가에 있으며, 죽음 이후의 장례 절차나 의례적 양상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묘지 내용만으로는 장송 의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모두루총 묘지 역시 장례 과정 자체보다는 가문의 역사성과 계통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장례 시점이나 절차, 그리고 사후의 전이 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결국 모두루총 묘지도 죽음을 의례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그것을 가문의 역사 속에 위치시키는 데 중심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덕흥리벽화고분 묘지는 장례와 장송 의례 자체가 하나의 서술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사례와 구별된다. 묘지에는 장례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길일을 선택하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연도 서벽에 기록된 무덤 폐쇄 시점과 비교하면, 장례 이후 일정 기간 무덤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장례가 단발성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흐름 속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장례일과 폐쇄일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간격은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한다. 곧 죽음 이후의 상태는 즉각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 종결에 머무르지 않고, 장례 절차를 거쳐 사회적으로 완성되는 상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시간 간격은 죽음 이후 전이 단계의 존재를 짐작하게 하며, 장송 의례는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덕흥리벽화고분 연도 동벽에서 확인되는 ‘觀者’ 묵서는 의례가 실제 무덤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단서이다. 관자의 존재는 묘지와 벽화를 특징한 독자가 관람한다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즉, 무덤 내부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단순히 사자를 위한 상징 체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장례에 참여한 이들에 의해 실제로 읽히고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덕흥리벽화고분의 벽화와 묘지는 장례 의례에서 시각적·문자적 경험을 함께 구성하는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방 구조와 관람 행위를 곧바로 고구려 고유의 장송 방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漢代 이래 중국 벽화고분에서도 관람과 개방이 연관된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흥리벽화고분의 장송 구조 역시 기본적으로는 魏晉계 장송 전통의 연장선 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0) 홍승현, 2024, 『돌에 새긴 인생 -석각 속 중국 고대의 풍경-』, 혜안, 87~90쪽.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요소들이 고구려 사회 내부의 묘장 환경 속에서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운용되었는가에 있다. 특히 덕흥리벽화고분에서는 벽화·묘지·목서가 하나의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관자의 존재도 이 배치 속에서 확인되는 만큼, 장례 과정과 무덤 공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연도 동벽의 ‘관자’ 기록과 서벽의 폐쇄일 기록이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존재한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이것은 무덤 내부를 들어간 관람자의 동선과 시선 속에서 특정한 정보와 의미가 순차적으로 전달 되도록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무덤은 단순히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례에서 일정한 경험과 인식을 유도하는 의례 공간으로 기능한 것이다.

더욱이 묘지 말미에는 무덤 조성에 만 명의 공력이 들었으며,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술과 고기, 쌀을 충분히 마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장송 의례에 상당한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며, 이 무덤을 방문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구절은 이러한 장송 행위가 단순히 매장의 완료에 그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무덤 조성의 장례를 위해 투입된 공력과 그 성취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묘주에 대한 기억 또한 지속되기를 바라는 인식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덕흥리벽화고분 묘지는 장례의 진행 양상뿐 아니라, 이를 위해 동원된 인력과 물자, 그리고 장송의 의미를 함께 기록하고 전하려는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성 지역 우산하 3319호분에서 출토된 와당 명문(357년) 내용이 주목된다. 명문에는 ‘太歲 丁巳의 5월 20일에 中郎夫人 … 무덤을 덮는 기와를 만들었다. 또 백성 4천을 시켜 … 때마다 흥하게 되니 … 만세토록 …’⁴¹⁾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무덤 축조에 상당한 인력과 공력이 투입되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와당 명문에 동원 인원과 축조 사실을 함께 기록하였다는 점은, 무덤 조성의 장례 행위 자체가 단순한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를 고구려 왕권이 망명인 세력에게 제공한 정치적 배려와 권위의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하며,⁴²⁾ 명문 자체가 망명인과 왕권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한다.⁴³⁾ 이는 고구려 사회에서 무덤 조성의 장송 의례는 단순한 매장 행위를 넘어, 정치적 질서와 사회적 위계를 재확인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장송에 동원된 인력과 의례 수행의 구체적 양상은 전명 자료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특히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발견된 張撫夷墓 塋銘은 장례에 참여한 인력과 의례 수행의 실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⁴⁴⁾ 전명에는 묘주

41) “太歲在丁巳五月廿日, [爲]中郎[及]夫人, 造蓋墓瓦, 又作民四千 …[收用盈時] 四時興詣 … 萬世.”(우산하3319호분 출토 와당 명문에 대한 판독과 해석은 정호섭, 2010, 「고구려 벽화고분의 명문과 피장자에 관한 제문제」, 『고구려발해연구』 36, 52~55쪽과 조영광이 작성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사료 DB 와명·전명, 중국 집안지역 출토와명, 「정사」명 와당 3점의 내용을 참고하여 통합·정리하였다).

42) 정호섭, 2010, 앞의 글, 55쪽.

43) 오영찬, 2022, 앞의 글, 215~217쪽.

44) “① 슬프도다, 夫人(張撫夷)께서 갑자기 백성을 등지시니 子民이 수심에 차서 夙夜로 평안하지 않구나, 영원히 玄宮에 계심에 애통함이 人情을 찢는 듯하다. ② 天生小人이 君子를 공양하여 1천명이 전돌 만들기를 부모 장사를 지내는 듯이 하니, 이미 좋고 또 견고하게 만들어짐에 이를 기록한다. ③ 8월 28일 전돌을 만드니 하루 80石酒가 들었다.”(장무이묘에 대한 판독과 해석은 김근식·안정준·정화승, 2021, 「樂浪·帶方郡 지역에서 출토된 年度가 기재된 銘文塋」, 『목간과 문자』 27, 168~175쪽을 참조).

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함께, 다수의 인력이 전돌 제작과 장례에 참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장례를 “부모를 장사 지내듯이” 수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⁴⁵⁾ 장례에서 사용된 술의 양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역시 눈길을 끈다. 곧 장례가 공동체적 참여와 의례 수행을 동반하였음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물론 장무이묘와 덕흥리벽화고분의 성격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평양·안악 지역에서는 장례 과정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덕흥리벽화고분의 장송 구조는 단순히 죽음을 처리하는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질서를 재확인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였다. 묘지 후반부에 나타나는 자손의 번영과 관직 상승에 대한 기원은 장례가 단순한 애도의 행위를 넘어, 이후의 사회적 관계와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잘 나타낸다. 특히 장례 과정에서 관자가 무덤 내부를 방문하고 벽화와 묵서를 통해 묘주의 생애와 위상을 인식하였다는 점은, 장례가 공동체 내부에서 사회적 기억을 공유하는 계기로 작용한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고구려 묘지가 단순히 사자 기록을 넘어, 장례 의례와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안악3호분과 모두루총의 묘지가 각각 기록과 서사의 기능에 중심이 놓여 있었다면, 덕흥리벽화고분 묘지는 장례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더 의례적인 성격을 띤다. 이 차이는 고구려 묘지가 단일한 기능의 기록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작성 목적과 사용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덕흥리벽화고분은 죽음이 단순히 기록되는 데 그치지 않고, 장례 의례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화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IV. 맺음말

고구려 벽화고분에 남겨진 묘지는 지금까지 주로 묘주의 생애와 정치적 위상, 그리고 고구려의 대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역사 자료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는 중국계 유이민의 활동과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며, 모두루총 묘지는 시조 전승과 가계 서사를 통해 고구려의 역사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묘지의 기록 내용에 집중하였을 뿐, 그것이 무덤 공간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안악3호분·모두루총·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를 비교하여, 고구려 묘지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에 따라 구성된 장송 텍스트였음을 검토하였다. 세 묘지는 모두 무덤 내부에 기록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서술 구조와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안악3호분 묘지는 묘주의 관직과 생애 이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기적 성격이 강하며, 죽음은 생애 기록을 마무리하는 종결점으로 제시된다. 모두루총 묘지는 시조 전승과 계보, 선조의 공적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개인의 죽음을 가문의 역사성과 권위 안에 위치시키는 역사 서사의 성격을 띤다. 반면 덕

45) 안정준, 2021, 앞의 글, 32~33쪽.

흥리벽화고분 묘지는 장례일과 길일 선택, 자손 번영에 대한 기원, 무덤 폐쇄 시점 등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죽음을 장례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의미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덕흥리벽화고분에서 확인되는 장례일과 폐쇄일 사이의 시간 간격, 그리고 관자의 존재는 장례가 단일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 할 수 있다. 이는 죽음이 단순한 생물학적 종결이 아니라 장례 의례와 시간의 경과를 통해 사회적으로 완성되는 상태로 이해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벽화·묘지·묵서·관람 행위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묘지가 단순한 사자 기록이 아니라 장례 의례에서 실제로 활용된 텍스트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덕흥리벽화고분 묘지 말미에는 무덤 조성에 만 명의 공력이 들었고, 날마다 소와 양을 잡아 술과 고기, 쌀을 충분히 마련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장송 의례에 상당한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례가 공동체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행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나아가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며, 이 무덤을 방문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구절은 장송 행위가 단순히 매장의 완료에 그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무덤 조성의 장례를 위해 투입된 공력과 그 의미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묘주에 대한 기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인식이 함께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우산하3319호분 와당 명문과 장무이묘 전명에 나타나는 인력 동원과 장례 기록과도 일정한 공통성을 보이며, 고구려 사회에서 무덤 조성의 장송 의례가 사회적 기억과 권위의 재현이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구조를 곧바로 고구려 고유의 장송 문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벽화고분과 묘지 문화는 한·위진대 중국의 장송 전통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관람과 개방의 구조 역시 그러한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요소들이 고구려 사회의 묘장 환경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덕흥리벽화고분에서는 벽화·묘지·묵서·관람 행위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장례 의례와 사회적 기억을 함께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결국 고구려 묘지는 단일한 형식의 기록물이 아니라 기록·서사·장송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에 따라 전개된 복합적 텍스트군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덕흥리벽화고분은 죽음이 장례 의례와 시간의 경과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받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고구려 묘지는 죽음을 기록하는 텍스트인 동시에, 장송의 의미와 사회적 기억을 조직하고 전승하는 매체였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 묘지는 단순한 역사 자료를 넘어 고구려 사회의 죽음 인식과 장송 문화를 담아낸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志』 東夷傳 高句麗, 『隋書』 東夷列傳 高句麗
『康熙字典綱上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 사료 DB 금석문·문자 자료

저서 및 논문

- 공석구, 1989, 「안악3호분의 묵서명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21.
공석구, 1990, 「덕흥리벽화고분의 그 주인공과 그 성격」, 『백제연구』 21.
권오영, 2000, 「고대 한국의 상상의례」, 『한국고대사연구』 20.
김근식, 2020, 『고구려벽화고분의 묵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근식, 2021a, 「덕흥리벽화고분의 ‘觀者’묵서와 ‘觀覽者」, 『한국고대사연구』 101.
김근식, 2021b, 「안악3호분의 연원과 ‘무덤 내 문자」, 『중앙사론』 54.
김근식, 2023, 「평양천도 후 고구려 묘장문자문화의 전이와 변용」, 『동북아역사논총』 79.
김근식·안정준·정화승, 2021, 「樂浪·帶方郡 지역에서 출토된 年度가 기재된 銘文磚」, 『목간과 문자』 27.
나희라, 2004, 「고대의 상장례와 생사관」, 『역사와 현실』 54.
박진옥 외 4명, 1981, 『덕흥리 고구려 벽화무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손영종, 1991, 「덕흥리 벽화무덤의 피장자 망명인설에 대한 비판」, 『력사과학』 1991-1·2.
안정준, 2021, 「樂浪·帶方郡 故地の 고분 속에 구현된 對外用 敍事와 구성 의도 -德興里壁畫 古墳의 벽화와 방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03.
여호규, 2009,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 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오영찬, 2022, 「4세기 서북한지역 명문자료의 다중적 메시지」, 『한국고대사연구』 106.
이인철, 1998, 「덕흥리벽화고분의 묵서명을 통해 본 고구려의 유주경영」, 『역사학보』 158.
이준성, 2020, 「牟頭婁 墓誌의 판독과 역주 재검토」, 『목간과 문자』 25.
임기환, 1995,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경영」, 『역사학보』 147.
전호태, 2018,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세계관과 생사관」, 『역사학보』 240.
정호섭, 2010, 「고구려 벽화고분의 명문과 피장자에 관한 제문제」, 『고구려발해연구』 36.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최일례, 2017, 「모두루묘지명에 투영된 5세기 고구려의 정치세력」, 『한국고대사연구』 85.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 (고구려·백제·낙랑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한국고대사학회 편, 2004,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 서경문화사.
홍승현, 2016, 「漢代 墓記·墓碑·墓誌의 출현과 상호 관련성 -墓記의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42.
홍승현, 2022, 『석각의 사회사 -고대 중국인의 욕망과 그 기록-』, 해안.
홍승현, 2024, 『돌에 새긴 인생 -석각 속 중국 고대의 풍경-』, 해안.
南秀雄, 1995, 「高句麗古墳壁畫の圖像構成」, 『朝鮮文化研究』 2.
佐伯有清, 1987, 「食大倉考 -德興理高句麗壁畫古墳の墓誌に關聯して-」, 『日本常民文化紀要』 13: 1995, 『古代東アジア金石文論考』, 吉川弘文館 재수록.

김근식, 「고구려 묘지에 나타난 생사관과 장송 의례」에 대한 토론문

안정준(서울시립대학교)

이 발표문에서는 고구려에서 조영된 몇몇 고분들의 묘지를 중심으로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고분 공간이 장송 의례의 한 도구로써 활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가운데, 묘지가 갖는 다양한 기능을 무덤에 그려진 벽화나 다른 방제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접근하였다는 점이 이 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분 내의 묘지와 방제, 벽화들이 고분을 방문한 자(관람자)들에게 전시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묘지도 망자인 묘주의 生時 행적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의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기억 등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특히 발표자는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고분, 모두루총의 묘지 3건을 비교·검토하면서 각각의 묘지가 기본적으로 한·위진대 장송 전통에 기원을 둔 가운데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기억을 공유하는 기능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구려 사회의 묘장 환경에 따라 각각의 성격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음을 제시하였다.

1. 이 글에서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고분, 모두루총의 묘지 3건을 모두 ‘고구려 묘지’라는 범주로 묶었지만, 사실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주는 외래 이주민인 반면, 모두루총은 북부여 일대에서 대대로 고구려의 지방관을 역임했던 집안이었다. 각각의 출신 기반이 다르며, 고분의 조영과 장례 과정, 향후 관리에 개입했을 집단의 사회·문화적 특성도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세 묘주들이 처해 있던 정치·사회적 상황을 크게 감안하여 각각의 묘지가 갖는 유형 차이와 특징을 서술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2. 1번 지적과 관련해서, 세 고분이 공통적으로 한·위진대 장송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모두루총의 경우 자기 선대의 공적과 고구려 왕실과의 관계 등을 통한 가문의 역사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강하게 지니는데, 그 배경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3.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 전반부에서 묘주의 출신과 官歷에 대한 서술이 나오며, 후반부에는 장례 시점과吉日 선택, 자손의 번영과 사회적 상승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후반부의 내용, 특히 사망 시점보다 장례일이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그리고 이는 고분이 단순한 망자의 매장공간이 아닌, 장례 과정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적용할 경우, 안악3호분 묘지는 생전의 정치적 위상을 기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장례 과정에서의 관람자 방문이나 매장 이후 사회적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안악3호분 역시 화려한 벽화와 이를 설명하는 榜題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관람자의 존재를 일정 부분 전제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魏·晉代 장례 문화에서 기원한 '죽음을 사회적

기억 속에 남기는' 전통, 즉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 종결이 아니라 장례 절차를 통해 사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인식한 관념, 그리고 장례가 공동체적 참여와 의례 수행을 수반한다는 특징은 덕흥리벽화고분과 안악3호분을 포함한 동시기 고분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4.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에 보이는 아래의 자손의 번영과 관직 상승에 대한 문구를 사회적 관계와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기능과 연관하여 보았다.

“주공이 땅을 살피고, 공자가 낱자를 택하고, 무왕이 때를 골라, 낱자를 모두 좋게 하였다. 장송(葬送)한 후에, 부유함이 7대 동안 미치고, 자손이 번창하고, 벼슬도 나날이 올라가니, 지위가 후(侯)와 왕(王)에 이를 것이다.”¹⁾

그런데 위 문구가 장례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억 공유와 관련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는 문맥상 무덤을 만든 곳과 장례 날짜 및 시간이 좋으니, 앞으로도 묘주의 가문이 번창할 것이라는 吉祥句에 가까우며, 이러한 표현은 漢代의 칠기나 기타 부장품들에서도 표기된 사례들이 많이 보인다. 논문의 주장에 다소 과도하게 연관시킨 것이 아닐까.

5. 4세기 중반~5세기 초반에 조영된 묘지나 塋銘에는 고분의 조영에 동원된 인부(역부) 숫자에 이어, 이들에게 제공한 양식의 수량을 표현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²⁾ 이러한 문구들은 무덤의 조영을 발주 내지 감독한 자의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투적인 표기로서, 무덤을 방문하거나 장례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 명문을 통해 지극한 정성이 들었음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와 장무이묘의 전돌에서 고분 조영에 들어간 물질적 정성을 기록한 배경에 대해 장례 이후 망자를 둘러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질서와 사회적 위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라고 파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분을 조영한 자의 부모(망자)에 대한 효성을 드러내거나, 혹은 門生과 故吏 관계에 의거해 이전에 모셨던 상관(혹은 옛 주군(舊君)) 혹은 추천자인 故將에 대한 충절·예의를 보이려는 의도와 관련된다고 보는 기존 의견도 있다. 덕흥리벽화고분과 장무이묘의 사례를 반드시 전자의 사례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6. 본문에서 종종 묘주에 대한 묘지와 벽화의 설명을 위한 방제를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어서 서술하는 문장들이 있다. 양자의 유형과 기술 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周公相地 孔子擇日 武王時 歲使一良 葬送之 [富]及七世 子孫蕃昌 仕宦日遷 位至侯王.”

2) “元璽 4년(355) 경술일이 초하루인 달의 14일 을유, 봉거도 관내후인 마원월이 도(陶)를 지었는데, 5만매를 만들었으며, 공력을 쓴 것이 3만 2천에 달한다. 토실(土室)은 감작(監作)인 중장(中將) 모용건(慕容乾)을 보냈으며, 청주(淸酒)가 7백이 들었고, 송아지를 잡은 것이 2백두였다”(元璽四年庚戌朔十四日乙未 奉車都 / 關內侯馬遠越造陶 作五萬 / 枚 用功三萬二千 土室遣監作中將慕 / 容乾淸酒七百解牛犢二百頭)〈河北省 正定縣 大豐屯村 출토 명문전〉

王陵에서 地方으로

-百濟 冥界 空間秩序 속 買地券의 전개-

쉬 리

(부산외국어대학교)

I. 머리말

II. 매지권의 契約성과 漢魏六朝 墓葬文書 冥界秩序

1. 매지권의 계약성: 구성 요소, 의제, 그리고 '立券爲憑'
2. 묘장 문서 전통 속의 매지권: 명계의 관료제적 질서와 장지에 대한 권리 확정
3. 계보적 전개와 무령왕 매지권의 위치

III. 무령왕릉 매지권과 왕릉 장지의 합법화

1. 神名 서열과 층위 구조: 훈고에서 질서의 도상으로
2. '不從律令'과 왕권-명계 관료 질서의 관계
3. 간지도, 四至와 '명당지심': 공간 합법화의 장치화
4. '양식 수용의 시차'에서 '질서 선택'으로

IV. 왕릉에서 지방으로: '土王土父母'銘과 명계 공간 인식의 편린

1.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자료의 성격
2. '土王土父母' 호칭과 명계 질서의 수용
3. 제도적 매지권에서 단편화된 명계 관념으로

V. 맺음말

I. 머리말

1971년 무령왕릉 발굴은 백제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고고학·문자 자료를 한꺼번에 제공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능 내에서 출토된 두 매의 지석 가운데 한 매의 정면에는 무령왕 묘지가, 배면에는 干支圖¹⁾가 새겨져 있으며, 다른 한 매의 양면에는 각각 무령왕 매지권과 무령왕비 묘지가 새겨져 있다. 이러한 구성은 현재까지 알려진 백제 시대 자료 가운데 묘지와 매지권이 함께 확인된 유일한 사례로, 한편으로는 백제 왕실의 장송 의례를 복원하는 데 새로운 단서를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위·육조 시기의 매지권 문화가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변용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자료로 자리매김한다.

무령왕릉 지석과 매지권을 둘러싸고 있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상당히 풍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기본적인 텍스트 해독과 용어의 성격·출전 검토²⁾, 매지권 문서의 계통과 수용 방식 및 그 배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³⁾ 최근에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백제 왕실 장송 의례의 복원을 시도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발굴 보고와 과학 분석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묘지와 매지권, 삼년상, 鎭墓獸 등의 요소를 하나의 틀 안에 포괄함으로써 왕실 장례의 구체적인 절차와 구조를 보다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⁴⁾ 아울러 지석과 매지권의 제작 시점, 간지도의 刻字 순

- 1) 방위도(이병도, 1972, 「百濟 武寧王陵 出土 誌石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 11)와 능역도로 보는 견해(成周鐸·鄭求福, 1991, 「무령왕릉의 지석」, 『백제무령왕릉』,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65~186쪽)가 각각 존재하지만, 본문 논술의 편의상 이를 모두 '간지도'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成周鐸, 1971, 「武寧王陵」, 『百濟研究』 2; 任昌淳, 1973, 「買地券에 대한 考察」,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鄭求福, 1987, 「武寧王 誌石 解釋에 對한 一考」,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金英心, 1992, 「武寧王妃 誌石」,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고구려·백제·낙랑 편)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권오영, 2005,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개; 시라스 조신(白須淨眞), 2007,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무령왕)·왕비 합장묘의 묘권·묘지석에 관한 한 제언」,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권영필·김호동 편), 술; 권인한·김경호·윤선태 외, 2015, 『한국고대문자자료 연구: 백제(상) -지역별-』, 주류성; 국립공주박물관, 2018, 『武寧王 陵新報告書 IV -출토유물1 (옥석류)-』; 김영관, 2018, 「백제 무령왕릉 출토 지석과 매지권 판독 재고」, 『한국고대사탐구』 30; 張團偉, 2025a, 「武寧王買地券再考 -以“土王土伯土父母土下众官二千石”釋读为中心-」, 『한중인문학연구』 88; 2025b, 「무령왕릉 출토 金石文에 대한 語學的 高찰 -銀製龍文釧銘과 買地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5.
- 3) 李宇泰, 2010, 「한국의 買地券」, 『歷史教育』 115; 張守男, 2011, 「武寧王陵 買地券의 起源과 受用背景」, 『百濟研究』 54; 洪承賢, 2017, 「六朝 買地券의 계통과 매지권 문화의 동아시아적 전개 -<武寧王買地券>의 역사적 위치에 대하여-」, 『中國古中世史研究』 45.
- 4) 권오영, 2002, 「喪葬制를 중심으로 한 武寧王陵과 南朝墓의 비교」, 『백제문화』 31; 강원표, 2016, 『百濟 喪葬儀禮 研究 -古墳 埋葬프로세스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남석·이현숙, 2016, 「百濟 喪葬儀禮의 研究 -錦江流域 上流의 遺蹟의 意味-」, 『백제문화』 54; 崔珉熙, 2018, 「무령왕릉 묘지석에 사용된 역법과 상장례기간」, 『百濟研究』 67; 이장웅, 2019, 「백제 武寧王과王妃의 喪葬禮 -殯과 假埋葬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3; 정재윤·박초롱, 2020, 「문헌 및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대 장송의례 -백제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31; 이장웅, 2020,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통해 본 매장 의례와 그 사상적 배경」, 『韓國思想史學』 66; 강원표, 2021, 「武寧王陵 葬禮過程에서 <設置式棺>의 檢討」, 『百濟學報』 38; 김규동, 2021, 「백제 무령왕릉 상장례 재고 -목관 안치 방식으로 본 매장 의례 복원-」, 『한국고대사연구』 104; 강원표, 2022, 「백제 왕실 상장의례의 전개 과정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중심으로-」, 『고대 동아시아의 상장의례』(국립공주박물관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공주박물관; 김환희·장재원, 2022, 「백제 사비기 왕릉원의 조영과 상장의례」, 『고대 동아시아의 상장의례』(국립공주박물관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공주박물관; 나희락, 2023, 「고대

서, 두 석판의 안치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왔으며,⁵⁾ 지석 중앙 원공의 용도에 관해서 역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⁶⁾

이에 비해 지금까지의 무령왕릉 매지권 연구는 대체로 텍스트의 해독과 문서 계통의 정리, 또는 남조 영향의 일례로서 그 의의를 지적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매지권이 어떤 계약 구조와 토지신 체계, 지하 관료제에 대한 상상, 그리고 석판의 안치 방식 등을 매개로 하여 왕릉이라는 현실의 장지를 명계 질서 속에서 승인된 ‘합법적 공간’으로 전환시키는가 하는 물음은 충분히 깊이 있게 제기되지 못한 면이 있다. 말하자면 매지권과 그에 관련된 문자·도상이 장례 공간 속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기능과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한 셈이다. 지석 배면의 간지 각문 역시 흔히 ‘방위도’ 또는 ‘능역도’ 정도로 단순화하여 이해되어 왔고, 묘지와 매지권과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무령왕릉의 지석·매지권·간지도를 하나의 분석 틀 안에 놓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 문자와 도상이 장례 공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호응하고 맞물리며, 왕릉 장지의 공간 구성과 그 정당화 과정에 함께 관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다음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물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무령왕릉 매지권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왕릉 장지를 명계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둘째, 지석·간지도·매지권은 공간 배치와 의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서로 접합되며, 왕릉 장지의 구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가. 셋째,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에서 출토된 ‘土王土父母’ 명문은 왕릉급 명계 공간 관념이 지방 묘장 맥락으로 확장·분절되어 수용된 사례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세 번째 물음과 관련해서는, 본고가 전제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왕릉에서 지방으로’라는 표현은 백제 지방 사회에 이미 완비된 매지권 제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명문 토기의 경우 立券 시점이 제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계약 대가, 매매 대상, 매수자의 신분 등이 함께 빠져 있어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이고 완결된 매지권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⁷⁾ 본고가 관심을 두는 지점은

한국인의 생사관과 무령왕릉,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특별전 도록), 국립공주박물관; 박순발, 2023, 「무령왕릉과 백제의 상장의례」,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특별전 도록), 국립공주박물관; 이윤섭, 2023, 「백제 왕실무덤에서 치른 의례」,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특별전 도록), 국립공주박물관.

5) 李丙燾, 1972, 앞의 글; 任昌淳, 1973, 앞의 글; 강인구, 1991, 「무령왕릉의 구조와 묘제」, 『백제무령왕릉』,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성주탁, 1991, 「무령왕릉 출토 지석에 관한 연구」,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무령왕릉 발굴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권오영, 2005 앞의 책; 시라스 조신, 2007, 앞의 글; 이재환, 2015, 「武寧王陵 出土文字」, 『한국고대 문자자료 연구: 백제(상) -지역별-』, 주류성; 최민희, 2021, 「무령왕릉 묘지석의 제작 과정과 배치 변화와의 관계」, 『백제연구』 74; ; 강원표, 2023, 「武寧王陵 墓室 內 葬禮過程의 復原」, 『백제학보』 46.

6) 성주탁, 1991, 앞의 글; 鄭求福, 1987, 앞의 글; 권오영, 2005, 앞의 책; 시라스 조신, 2007, 앞의 글; 이경화, 2014, 「백제 무령왕릉 간지도의 해석」, 『백제문화』 51; 朴淳發, 2020, 「무령왕릉 墓誌 형태 비교 연구」, 『百濟研究』 72; 王志高, 2022, 「關於百濟武寧王陵出土墓志, 買地券의 幾個疑難問題」, 『東亞文明』 3; 쉬리, 2024, 「무령왕릉의 입지와 지석 -오음묘법과 명당지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207.

7) 박초롱, 2025, 「고대 ‘土王土父母’銘에 반영된 后土信仰」, 『歷史學研究』 100, 188~189쪽; 張團偉,

무령왕릉 매지권이 보여 주는 토지신의 권위, 장지에 대한 護佑, 공간의 합법화와 질서화와 같은 일련의 명계 공간 인식이 지방 묘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다 축약되고 파편화된 형태로 어떻게 절취·전용·재구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이하의 논의는 네 단계로 나누어 전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한위·육조 시기 묘장 문서에 나타나는 계약 전통과 그 속에 반영된 명계 질서의 핵심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무령왕릉 매지권에 담긴 관련 관념을 이해하기 위한 제도적·문서사적 배경을 제시한다. 제3장은 무령왕릉 매지권과 왕릉 장지의 합법화 과정 사이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아울러 지식·간지도·매지권이 공간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제4장은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土王土父母’ 명문 자료로 논의를 옮겨, 관련 명계 공간 관념이 지방 묘장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단편적인 형식을 띠며 보존되고 변용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5장은 앞선 논의를 정리하여 주요 쟁점을 요약하고, 백제 명계 공간 질서 연구에서 앞으로의 심화가 필요해 보이는 과제들을 간단히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매지권의 契約성과 漢魏六朝 墓葬文書 冥界秩序

매지권은 기본적으로 한 장의 계약 문서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전답 매매 계약서라기보다는 묘 안에 함께 묻히는 관념적 성격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피장자가 명계의 토지 권위를 상대로 일종의 의제적 방식을 통해 음택을 매입한다는 설정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매지권은 단순한 장례 문서를 넘어, 의례적·우주론적 차원에서 특정 현실 장지에 대해 명계 질서가 승인하는 하나의 ‘지권’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무령왕릉 매지권이 왕릉 장지를 명계의 공간 질서 속으로 어떻게 편입시키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장에서는 먼저 두 가지 전제를 정리해 두고자 한다. 하나는 매지권이 계약으로서 성립하기 위해 전제되는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 세계의 관부 체계가 지하 세계로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묘장 문서의 전통이다. 본 장의 목적은 매지권의 전개 과정을 새로 서술하는 데에 있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논의할 무령왕릉의 ‘명계 공간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제도사적·문서사적 틀을 마련해 두는 데에 있다.

1. 매지권의 계약성: 구성 요소, 의제, 그리고 ‘立券爲憑’

소위 매지권은 피장자가 사후의 음택을 마련하기 위해 ‘先住者’(먼저 묻힌 이들)나 토지신을 상대로, 관념적·의제적인 방식으로 묘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계약 문서를 가리킨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매지권이 하나의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대체로 아홉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문서의 제목과 권액, ② 입권 시점, ③ 錢主의 성명, ④ 業主의 성명, ⑤ 매매 대상의 특정, ⑥ 券價와 교부 방식, ⑦ 업주의 보증과 위약 시 벌칙 조항, ⑧ 중보인의 기명과 酒禮錢, ⑨ 신도를 설정하여 권리 수호를

2025a, 앞의 글, 632~633쪽.

도모하는 조항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존 자료 가운데에서는 후한 영평 16년(73)에 작성된 요효경 매지권이 가장 이른 연대를 지닌 사례로 흔히 거론된다.⁹⁾

주목할 만한 점은 초기 매지권이 형식상 현실의 전답 매매 문서와 거의 다르지 않게 꾸려져 있다는 것이다. 매수인과 매도인, 매매 대상, 가격, 증인, 입권 사실을 밝혀 두는 문구까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다.¹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매지권의 ‘계약성’은 나중에 비유적으로 덧붙여진 성격이라기보다는, 현실의 토지 계약 제도에서 직접 파생된 성격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매지권이 묘장 공간에서 일정한 효력을 지닌다고 여겨질 수 있었던 것도, 무엇보다 그것이 어떤 신비한 문서여서가 아니라 형식상 완결성과 유효성을 갖춘 하나의 계약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피장자는 지하 세계를 침범하는 ‘침입자’가 아니라 ‘권문을 지닌 토지 매입자’로서 묘지를 정당하게 확보한 존재로 위치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매지권의 의제성은 한층 더 심화된다. 토지가격은 점차 상징적이거나 때로는 다소 과장된 수준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매도인과 증인 역시 생업에 종사하는 현실의 인물에서 신격·자연물·해와 달과 같은 존재로 전환되어 간다. 사방 경계 또한 구체적인 지명 대신 간지, 방위, 혹은 보다 우주론적인 표현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¹¹⁾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후기 매지권은 하나의 현실적 거래를 기록한 문서라기보다 ‘계약 형식을 통해 완결되는 합법화 행위’를 매개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기보다는 계약 구조를 통해 피장자를 위한 이른바 ‘立券爲憑’의 상태를 마련하고, 그가 지하에서 특정 공간을 점유하는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 점은 본고의 논의를 위해서도 특히 중요한데, 매지권이 장지를 ‘합법화’하는 힘은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형식이 얼마나 완비되어 있는가에 더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곧 권문과 지가, 사방 경계, 증인, 정형화된 법적 문구 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야 비로소 피장자는 권문을 손에 쥔, 권리 관계가 분명한 적법한 매입자로 상상될 수 있고, 무단으로 명토에 들어온 침입자로 인식되지 않게 된다. 무령왕릉 매지권 역시 이러한 계약 메커니즘을 통해 현실의 왕릉 공간을 명계 질서 속에서 승인 가능한 합법적 장소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개별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계약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2. 묘장 문서 전통 속의 매지권: 명계의 관료제적 질서와 장지에 대한 권리 확정

매지권은 고립된 문서 유형이 아니라, 한위·육조 시기에 나타난 일련의 종교적 부장 文

8) 张传玺, 2008, 『契约史买地券研究』, 中华书局, 174쪽. 이와 별도로 홍승현은 후한에서 육조에 이르는 매지권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매지권 성립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을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① 매매일(대개 장일과 일치), ② 매수인에 해당하는 墓主, ③ 매도인에 해당하는 선주자 또는 지신, ④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⑤ 지가와 지급 시점, ⑥ ‘時知’, ‘任知’ 등으로 표기되는 증인, ⑦ “券爲約”, “券爲明”과 같이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정형화된 계약 문구와 더불어, “沽酒各半”처럼 약정 행위의 성립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 등이 그에 해당한다(洪承賢, 2017, 앞의 글, 138쪽).

9) 偃师商城博物馆, 1992, 「河南偃师東漢姚孝經墓」, 『考古』 3, 227~231쪽.

10) 吴天颖, 1982, 「汉代买地券考」, 『考古学报』 1, 31쪽; 王志高·董庐, 1996, 「六朝买地券综述」, 『东南文化』 2, 50쪽.

11) 王志高·董庐, 1996, 앞의 글, 50~51쪽.

書群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현실의 행정 문서와는 구분되는 지하 세계의 문서들을 고지서, 진묘문, 매지권, 衣物疏 등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 왔다.¹²⁾ 이 문서들이 공유하는 특징은 호적·율령·관직·요역·권계와 같은 현실 세계의 행정·법률 어휘를 한 세트의 지하 세계에 투사함으로써, 텍스트의 차원에서 관료제적이고 제도화된 명계를 구성한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명계는 무질서한 음혼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등재가 가능하고, 보고와 통보가 이루어지며, 계약을 체결하고,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일종의 ‘지하 官衙의 세계’로 상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하 질서 속에서 각종 문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고지서는 지하주·지하승 등 명관에게 피장자의 도착 사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며, 그 과정에서 부장품 목록을 함께 열거하는 경우가 많다. 鎮墓文은 ‘천제의 사자’라는 형식을 빌려 구승·묘백·지하 이천석·호리군 등에게 解謫除殃, 분묘의 안정, ‘生死異路’의 구분과 같은 사안을 집행할 것을 명령하고, 문서 말미에는 ‘如律令’과 같은 문구가 붙는 예가 자주 보인다. 의물소는 부장 재화를 등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매지권만은 피장자가 점유하게 될 토지가 어느 구역인지, 그 사방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이를 매도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 권리가 성립하는지를 그 전담 영역으로 삼는다.¹³⁾ 이와 같이 볼 때 일련의 종교적 묘장 문서 가운데에서 매지권은 다른 유형의 문서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고유의 역할, 곧 장지에 대한 일종의 ‘공간 권리 확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전체 부장 문서 체계를 함께 놓고 보면, 고지서는 사자가 어떻게 명계에 ‘진입’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鎮墓文은 邪氣와 재앙을 물리치고 고인의 안녕을 보장하는 문제를, 의물소는 부장 재화의 등재 문제를 담당한다. 이에 비해 매지권은 장지로 삼게 될 ‘토지’의 귀속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네 종류의 문서를 함께 고려하면, 사자가 명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통보되고, 등재되며, 안치되고, 보호받고, 나아가 산자와 구분되는가에 관한 하나의 일련의 절차 체계가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매지권은 그 가운데에서도 사자를 위해 ‘서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곧 죽은 이의 장지를 설정하는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 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매지권과 鎮墓文이 서로 완전히 분리된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시기가 내려가면서 鎮墓文의 요소들이 점차 매지권 안으로 스며들어, 이른바 ‘진묘 매지권’이라 부를 만한 복합적 양상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매지권에는 계약 문서로서의 기본 골격 위에 ‘천제의 사자’, ‘解謫除殃’, ‘자손을 옹호·보호할 것’, ‘여율령’ 등 鎮墓文에서 익숙하게 보이는 어휘들이 겹쳐지며, 사방 경계 역시 점차 ‘위로는 창천에 이르고 아래로는 황천에 이른다’와 같은 우주론적 표현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¹⁴⁾ 이처럼 계약과 진묘의 성격이 뒤섞인 형식은 무령왕릉 매지권을 이해하는

12) 黃景春은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宗教性 隨葬文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黃景春, 2018, 『中國宗教性隨葬文書研究: 以買地券, 鎮墓文, 衣物疏為主』, 上海人民出版社 참조.

13) 黃景春은 한위·육조 시기 부장 문서 전반을 대상으로 각 문서 유형의 기능과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어 홍승현은 후한 매지권의 분류와 역사적·지역적 특징, 삼국~남조 매지권의 성격과 양상을 연속적으로 고찰하면서, 각종 권문에 등장하는 신격 체계와 직임 설정, 정형 문구의 구성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매지권을 개별 사례에 한정하지 않고, 동시기 묘장 문서 전통 속에서 그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를 제공한다(黃景春, 2018, 앞의 책, 51~84쪽; 洪承賢, 2016a, 「後漢 買地券의 분류와 역사적·지역적 특징」, 『中國史研究』 101; 2016b, 「三國~南朝 買地券의 특징과 성격」, 『中國古中世史研究』 40; 2017, 앞의 글).

데에서도 중요한 계보적 배경을 이룬다. 이는 곧 무령왕릉의 매지권을 단지 한 장의 텍스트로만 파악하기보다는, 지석·간지도·석판의 안치 방식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하나의 장송 장치 전체 속에 위치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계보적 전개와 무령왕 매지권의 위치

한위·육조 시기 매지권의 전개 과정과 유형 분화에 대해서는 최근의 종합 연구들을 통해 비교적 선명한 윤곽이 제시되고 있다.¹⁵⁾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매지권은 ‘현실의 계약 문서에 가까운 단계’에서 점차 ‘종교적 성격을 띤 부장 문서’로 이행하는 장기적인 변화를 겪는다. 그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분은 사람에서 신격으로 옮겨 가고, 지가 체계는 자연수에 가까운 표기에서 상징성이 강한 수로 변해 가며, 계약 문구의 구조는 점차 정형화되고 도교 법록 계열의 어휘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조합과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선적인 발전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무령왕릉 매지권이 이 계보 속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기본적인 참조틀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삼국 시기 孫吳 후반에 이르면, 북중국에서 유행하던 鎮墓文의 내용이 점차 강남 지역의 매지권 형식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증인은 점차 인간이 아닌 신격이나 자연적 실체로 대체되어, 동왕공·서왕모·토공·토백과 더불어 천지·일월 등이 매매 관계에 관여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된다. 사방 경계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남북 계통의 요소가 뒤섞인 양상을 보인다.¹⁶⁾ 후한 연희 4년(161) 종중유 처 매지권에서는 이미 ‘구승·묘백’, ‘지하 이천석’, ‘묘좌·묘우 주요옥사’ 등이 나란히 등장하는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¹⁷⁾ 이는 토지신과 冥官이 함께 계약 체계 속으로 편입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동진 시기에 들어서면 지역별 요소의 상호 침투가 한층 심화되지만, 전체적인 형식은 여전히 계약 문서로서의 성격을 비교적 강하게 유지한다. 예컨대 함강 4년(338) 주만의 처 설씨 매지권은 사방 경계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東極 甲乙, 南極 丙丁, 西極 庚辛, 北極 壬癸, 中極 戊己, 上極 天, 下極 泉”과 같은 문구¹⁸⁾를 덧붙임으로써 묘지 공간을 평면적 경계 속에 한정하는 대신, 상방의 하늘과 하방의 황천을 잇는 수직적 공간 구조 안에 포섭하려는 지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다시 무령왕릉 매지권을 돌아보면, 앞서 살펴본 전통과 여러 면에서 호응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매도인은 토왕·토백·토부모 및 지하의 여러

14) 洪承賢, 2017, 앞의 글, 139~141쪽; 黃景春, 2018, 앞의 책, 78~84쪽.

15) 王志高·董庐, 1996, 앞의 글; 張傳璽, 2008, 앞의 책; 魯西奇, 2014, 『中国古代买地券研究』, 厦門大學出版社; 洪承賢, 2016a 앞의 글; 2016b, 앞의 글; 2017, 앞의 글.

16) 洪承賢, 2016b, 앞의 글, 149~153쪽.

17) 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延熹四年九月丙辰朔卅日乙酉, 直闭, 黄帝告丘丞墓伯, 地下二千石, 墓左墓右主墓狱史, 墓门亭长, 莫不/皆在: 今平阴偃人乡茌富里钟仲游妻薄命蚤死, 今来下葬. 自买万世冢田, 贾直九万九千, 钱即日毕. 四角/立封, 中央明堂, 皆有尺六桃卷, 钱, 布, 铅人. 时证知者, 先口曾王父母口口氏知也. 自今以后, 不得干口主人./有天帝教, 如律令.”(稻田奈津子·王海燕·榊佳子 編著, 2023, 『黄泉の国との契約書-東アジアの買地券-』, 勉誠出版, 27~28쪽에 수록되어 있음)

18) 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晋咸康四年二月壬子朔四日乙卯, 吴故舍人立节都尉晋陵丹徒朱曼故妻薛, 从天买地, 从地买宅, 东极甲乙, 南极丙丁, 西极庚辛, 北极壬癸, 中极戊己, 上极天, 下极泉, 直钱二百万, 即日交毕. 有志薛地, 当诣天帝; 有志薛宅, 当诣土伯. 任知者东王公, 西王圣母. 如天帝律令. 司.”(稻田奈津子·王海燕·榊佳子, 2023, 앞의 책, 42~46쪽에 수록되어 있음)

이천석 관원들로 설정되어 있어, 도교 경전 체계에 등장하는 존신이 아니라 강남 토속 토지신과 북중국계 명관이 뒤섞인 신격 체계를 전제하고 있다. 지가는 ‘錢一萬文’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남조 매지권에서 흔히 보이는 ‘九九의 수’가 아니라 후한 전기부터 동진 말기까지 자주 확인되는 자연수 계열의 표기 방식에 가깝다.¹⁹⁾ 방위 또한 “買申地”와 같이 地支로 표시되고 있으며, 권문 어디에도 ‘女青詔書’나 ‘玄都鬼律’과 같은 도교 법률 계열의 용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무령왕릉 매지권은 동시대 梁代에 성행하던 도교적 어휘를 대거 수용한 남조식 매지권보다는, 삼국·양진 이래 현실 계약 형식과 鎮墓文적 표현이 뒤섞이고 토지신·명관을 주요 당사자로 삼았던 계약 전통을 보다 직접적으로 계승한 예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²⁰⁾

이와 같은 계보적 판단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나 출발점 가운데 하나에 가깝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대목은, 양대에서 이미 도교 색채가 강한 매지권 양식이 등장하고 있던 상황에서 백제 왕실이 왜 왕릉 장지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문서로 비교적 간결한 형태의 계약 문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율령’과 관련된 표현에서 특히 눈에 띄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무령왕릉 매지권에 드러난 양상이 단순히 새로운 형식의 도입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옛 양식의 잔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왕릉 공간을 둘러싼 선택과 조정의 결과를 반영하는 예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에서 매지권을 간지도, 지석의 안치 방식 등과 함께 나란히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무령왕릉 매지권과 왕릉 장지의 합법화

무령왕릉 매지권에 보이는 ‘土王土伯土父母土下眾官二千石’ 등의 신명 표기에 대한 훈고와 구두법 문제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²¹⁾ 기존 논의를 통해 ‘토왕-토백-토부모-토하중관-이천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어휘가 지닌 음의와 출전, 그리고 한위·육조 시기 묘장 문서에 등장하는 신격 계보와의 대응 관계는 대체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훈고 성과를 전제로 삼되, 개별 명칭을 다시 풀이하는 작업을 반복하기보다는 이 신명 서열 전체를 하나의 명계 질서 층위 구조로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무령왕릉이 전제하고 있는 명계 공간 질서를 분석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1. 神名 서열과 층위 구조: 훈고에서 질서의 도상으로

남조의 매지권, 특히 徐副권과 같은 장문의 권문이 수십, 많게는 백여 개에 이르는 신

19) 張傳奎, 2008, 앞의 책, 248~249쪽.

20) 洪承賢, 2017, 앞의 글, 147~156쪽. 또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중국계 관료의 유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정재윤, 2016, 「武寧王陵 誌石을 통해본 백제 여성의 지위」, 『中國古中世史研究』 42, 406~407쪽). 혹은 이와 같은 백제적 특색의 형성에는 백제 영역 내 낙랑·대방 옛 땅의 한인 유민들이 지닌 장례·장묘 예속의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王志高, 2022, 앞의 글, 238쪽).

21) 張團偉, 2025a, 앞의 글; 洪承賢, 2016a, 앞의 글; 2016b, 앞의 글; 2017, 앞의 글; 張守男, 2011, 앞의 글.

격을 뻗뻗이 열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과 달리, 무령왕릉 매지권의 神名 부분은 매우 간결한 편이다. 여기에는 ‘토왕-토백-토부모-토하중관-이천석’으로 이어지는 상하 방향의 한 줄기 서열만이 남아 있을 뿐, ‘도상장군’, ‘삼도장군’, ‘정장’ 등과 같이 수평적 방위를 담당하는 신격이나 직관 집단은 등장하지 않는다. 남조의 일부 도교적 색채를 띤 매지권이 권문을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명계의 관료 체계와 방위 세력을 최대한 펼쳐 보이려 했다면, 무령왕릉 매지권이 보여 주는 것은 여러 요소를 덜어 낸 뒤 남겨진 하나의 수직적 등급 구조에 더 가깝다. 곧 한 영역의 후토를 총괄하는 최고 토지신에서 출발해, 개별 구역을 맡는 토백·토부모, 그 아래의 ‘토하중관’, 그리고 한대 제도와 연결되는 ‘이천석’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연쇄가 하나의 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개별 명칭을 하나하나 훈고해야 할 어휘 목록이라기보다, 우선은 하나의 ‘질서 층위도’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후토 신앙과 ‘토왕·토부모’ 계열 신격의 백제 수용 양상을 살펴본 논의들,²²⁾ 그리고 묘총 신령의 ‘전담/점직’ 구분에 관한 분석²³⁾을 함께 고려해 보면, 무령왕릉 매지권은 명계에서 상정 가능한 여러 역할 가운데서도 주로 토지와 경계를 직접 관장하는 신격들을 골라 남기고, 이를 준비 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권문 안에서 방위·벽사·교통과 같은 ‘횡적인 기능’을 맡는 신령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 이러한 구성이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 전하는 형태의 무령왕릉 매지권이 토지와 토지에 대한 권리 귀속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등급 질서를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능 집단이 가로로 병렬된 복잡한 관서 체계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묘장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횡적 층위의 약화와 종적 서열의 부각이라는 구도는 종교적 성격을 띤 묘장 문서 체계 속에서 매지권이 주로 ‘공간에 대한 권리 귀속’을 담당한다는 점과 서로 호응한다. 매지권의 핵심 과제가 애초에 피장자가 어떤 땅을 점유하는지, 그 사방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누구에게서 매입했으며 무엇으로 이를 증명하는지를 확정하는 데 있다면, 신명의 선택에 있어서도 토지신과 토지와 직접 관련된 명부 관원을 중심에 두고, 도교적 색채가 짙은 남조 매지권에서 보이는 완비된 명계 관료 체계 전체를 가능한 한 그대로 재현하려 하기보다는, 문서의 기능에 꼭 맞게 정제된 단순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무령왕릉 매지권이 보여 주는 모습을 ‘결손이 많은 남조 신명 목록’으로 보기보다는, ‘토지-지계-토지에 대한 권리 귀속’을 둘러싼 부분만을 따로 추출해 전면부에 부각시킨 결과로 파악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출발해 보면, 무령왕릉 매지권이 하나의 개별 사례로 지니는 특수성은 오히려 열어지고, 대신 그것이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축약·추출되어 재활용될 수 있는 일종의 명계 질서관으로서, 후대에 인용 가능한 구조적 템플릿처럼 이해되기 쉬워진다. 바로 이와 같은 서열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뒤에서 살펴볼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토왕 토부모’ 명문 토기가 무령왕릉의 배경 속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중앙 왕릉 차원에서 완비된 입권 문서·신명 서열·별칙 조항 등을 통해 구축된 질서가 지방 묘장 환경에서는 몇몇 핵심 신명으로 압축되면서도, 여전히 ‘토지신-토부모’를 중심에 둔 명계 공간 관념을 유지

22) 박초롱, 2025, 앞의 글, 182~195쪽.

23) 黃景春, 2018, 앞의 책, 278~279쪽.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2. ‘不從律令’와 왕권-명계 관료 질서의 관계

신명 서열이 무령왕릉이 상정한 ‘누가 지하의 토지를 주재하는가’라는 층위에서의 질서관을 드러낸다면, 권문 말미에 놓인 ‘율령’ 관련 표현은 왕릉 장지가 어떠한 법리적 틀 안에서 승인·보호되는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한·위·육조 시기의 매지권과 진묘문은 대개 문장의 끝에 ‘여율령’, ‘여천제율령’과 같은 정형 구절을 덧붙이는데, 이는 현실의 법률 문서에서 쓰이던 어휘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명계의 권력 운용을 개별 매매 계약을 넘어서는 일종의 ‘명계 율령’ 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율령’은 단순한 상투적 결구가 아니라, 피장자가 획득한 토지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호위·수호가 바로 명계에서 통용되는 율령의 틀 안에서 부여되고 보장된 것임을 선언하는 문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견주어 볼 때, 무령왕릉 매지권에 보이는 ‘불종율령’식의 서술은 유난히 눈에 띈다. 이는 적어도 문말의 법률적 문구에서 통용되던 상례와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명계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율령’이라는 표현이 전제하는 것은 사후 세계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지하 율령 체계가 존재하며, 망자와 명신 모두가 개별 왕조나 군주를 넘어서는 이 규범에 복속된다는 가정이다. 반대로 ‘불종율령’이라는 서술은 왕릉 장지의 지권과 그에 대한 호위·보호가 이러한 보편 규범 속에 단순히 편입되어 있지 않음을 암시하며, 나아가 이 차이를 王者의 신분과 명계 율령 사이에 놓인 일종의 ‘예외’ 관계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불종율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선불리 단정 짓기보다는, 먼저 그 서술이 지닌 제스처에 주목하고자 한다. 완결된 명계 질서의 구축을 분명한 목표로 삼은 왕릉에서, 바로 ‘율령’이라는 핵심 지점에 ‘불종’을 적어 넣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기존의 명계 율령화 경향 바깥에 왕릉 장지의 일정한 특수성을 남겨 두려는 하나의 태도로 읽을 수 있다. 현실 차원에서 백제 왕은 양대의 묘제와 남조 예제 담론 속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설정해야 했던 반면, 지하 세계에서는 구식 계약 구조를 유지하고, 토지신과 명부 관원의 종적 서열을 강조하며, 율령 대목에서 ‘불종’ 두 글자를 적시함으로써, 왕릉 장지가 한편으로는 명계 질서의 승인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중국식 명계 율령’의 관할에 온전히 편입되지 않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성’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추측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다. 王志高는 이미 무령왕 묘지에서 통상 천자의 사망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崩’자가 쓰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석 뒤에 세워진 석수의 경우, 그 외뿔을 짐승의 몸체에 직접 새긴 것이 아니라 쇠로 뿔을 따로 주조한 뒤 짐승 머리에 뚫은 구멍에 꽂아 넣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남조 황제릉 신도 전단에 배치되던 일각 기린 형상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제왕의 위의를 상징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²⁴⁾ 이러한 정황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비교적 은폐된 공간에서는 백제 왕이 명목상의 등급 질서를 넘어서는 내용을 표현할 여지가 일정 부분 존재했을 것이며, 반대로 책봉·조공 관계의 시야 속에 공개적으로 제

24) 王志高, 2022, 앞의 글, 237~238쪽. 이러한 견해는 ‘불종율령’을 은폐된 텍스트 차원에서 왕권과 명계의 율령 관계를 조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려는 본문의 해석과 서로를 뒷받침해 주는 측면이 있다.

시되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남조의 예제와 위계 질서를 한층 엄격하게 준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불종율령’은 최소한 무령왕릉 매지권이 문말 표현에서 취한 하나의 ‘보류된 제스처’로 이해할 수 있다. 매지권처럼 지하의 은폐 공간에 놓이는 문서에서는, 백제 왕이 구식 계약 구조와 ‘(불)종율령’이라는 서술 방식을 통해 명계 율령화된 질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왕릉 장지가 명계 안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를 부각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다. 아래에서 간지도·묘지·매지권의 공간적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율령’에 대한 거리 두기가 결코 왕릉 장지가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오히려 간지를 통한 경계 설정, ‘명당지심’ 축과 관련된 묘지 조영 지식과 더불어, 왕릉을 중심에 둔 하나의 명계 공간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간지도, 四至와 ‘명당지심’: 공간 합법화의 장치화

매지권이 계약 형식을 통해 왕릉 장지의 ‘공간에 대한 권리 귀속’을 문서 차원에서 완결했다면, 두 매의 지석 가운데 무령왕 묘지의 배면에 새겨진 간지도는 이러한 확정을 시각적으로 지시·지정·배치할 수 있는 공간 표현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무령왕릉 지석 배면의 간지 각문을 주로 ‘방위도’, ‘능역도’, 혹은 묘실 방향과 안치 방식에 관련된 일종의 방위 표식으로 이해해 왔으나,²⁵⁾ 이러한 해석에만 머문다면 왜 그것이 반드시 묘지와 매지권과 더불어 하나의 지석 세트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성 속에서 圓孔이 왜 그토록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앞의 논의를 전제로 할 때, 간지도는 단순한 ‘도식적 약도’로 고립시켜 이해하기보다는, 매지권에 등장하는 ‘買申地’, 신명 서열 속 토지신 계열, 그리고 지석 자체의 안치 방식과 함께 검토해야 할, 왕릉 장지 합법화 과정의 한 단계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매지권이 다루는 쟁점이 ‘이 땅이 누구의 것인가’라면, 간지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땅이 어디에 있으며’, ‘그 영역이 어떻게 식별되는가’를 처리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자가 문자로 된 계약을 통해 지권을 확립한다면, 후자는 도상화·방위화를 통해 그 공간적 경계를 가시화한다. 매지권과 간지도가 두 매의 지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성 속에 함께 배치된 것은 우연한 중첩이 아니라,²⁶⁾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왕릉의 장지가 문자적으로는 ‘매입’되고 도상적으로는 ‘측량·확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드러내려는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무령왕릉 지석은 여러 정보를 한데 새겨 넣은 매체에 그치지 않고, 물질적 차원에서 ‘입권-勘界-안치’가 결합된 하나의 복합 장치를 조립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위·육조 시기 매지권의 전개 과정에서, 四至를 표현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25) 이병도, 1972, 앞의 글; 成周鐸·鄭求福, 1991, 앞의 글; 이경화, 2014, 앞의 글; 최민희, 2021, 앞의 글.

26) 무령왕릉 간지도에는 서방과 ‘申地’에 해당하는 ‘申·庚·酉·辛·戌’ 부분이 인위적으로 결락되어 있다. 시라스 초신은 이 잘려 나간 서방 부분을 정방형 원권에서 절취된 破券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장방형 매지권 역시 그 반권에 접합되는 副券의 기능을 지닌 동일한 반권으로 해석한 바 있다(2007, 앞의 글, 192쪽).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간지도에서 의도적으로 제거된 서방 방위는 오히려 거래 대상인 ‘申地’가 매매의 초점이 되는 방향임을 부각시키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매지권이 문자 계약을 통해 ‘누가 그 땅의 주인인가’를 규정한다면, 간지도는 잘려진 서방 부분을 포함한 방위 배열을 통해 ‘그 땅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경계 지워지는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 지명에 의존하다가, 점차 간지 방위와 우주론적 경계, 나아가 ‘上極天, 下極泉’과 같은 상하 공간의 표현으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묘지 공간의 규정이 더 이상 단순한 토지 계량의 문제가 아니라, 장지를 보다 거대한 우주 질서 속에 편입시키는 문제로 점차 전환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무령왕릉 간지도는 권문에 나타나는 ‘買申地’와 서로 호응하면서, 바로 왕릉 장지가 지하 질서 안에서 어떤 방위에 귀속되며 그 공간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루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곧 그것은 단순히 묘실 구조를 기록한 장인의 작업용 약도가 아니라, 장지의 방향성과 경역을 명계 질서 안에서 정당화·가시화하는 도식으로 읽을 수 있다.

동진 주만의 처 설씨 매지권에 보이는 “中極戊己, 上極天, 下極泉” 등의 표현을 함께 고려해 보면, 육조 시기 매지권에 나타난 공간 관념은 단순한 평면상의 사주 구획에 머무르지 않고, ‘中極’, ‘天’, ‘泉’과 같은 어휘를 통해 묘지를 상하를 관통하는 하나의 우주적 축선 위에 놓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간지 방위, 買申地, 왕릉의 안치 방식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맥락 속에서, 무령왕릉 지석의 원공 역시 묘역의 중심점을 상징하는 의미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간지 방위 체계와 함께 살펴보면, 그 원공의 기능은 평면상 공간의 중앙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하를 관통하는 ‘地心’ 혹은 묘지의 명당이 자리한 지점,²⁷⁾ 곧 왕릉 장지가 지하 질서 속에서 차지하는 중심이자 중심축으로서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령왕릉 간지도는 최소 두 겹의 공간적 기능을 지닌다. 첫째, 간지의 배치를 통해 왕릉 장지의 평면적 경역을 일종의 ‘勘界’ 대상으로 삼아 확정함으로써, 권문에서 말하는 ‘買申地’에 시각적으로 대응하는 공간 좌표를 부여한다. 둘째, 원공을 매개로 장지의 평면적 경계를 하나의 수직적 우주 축선과 연결함으로써, 매입된 토지가 단순히 지표 아래의 한 구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명당지심’이라는 지점을 통해 천지 질서 속에 위치 지어진 왕릉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간지도는 부수적인 삽화가 아니라, 매지권이 담고 있는 추상적 계약 조항을 공간화·중심화된 형태로 구현해 내는 핵심 매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령왕릉 지석의 전체 구성을 다시 바라보면 묘지, 매지권, 간지도 사이의 관계가 한층 더 분명해진다. 묘지는 묘주의 신분과 장례 시점을 확정해 주고, 매지권은 지하에서의 지권과 그 합법적 점유를 설정하며, 간지도는 이러한 지권을 식별 가능한 경역과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 요소가 함께 작동할 때야 비로소 왕릉 장지는 하나의 현실적 매장 장소에서, 명계 질서 속에 등기되고 감계되며 중심화된 합법적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는 또한 지석이라는 물질 매체, 그 각자 내용, 그리고 안치 방식이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곧 이것들은 정적인 정보를 단순히 모아 둔 집합이 아니라 실제 장례 절차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공간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4. ‘양식 수용의 시차’에서 ‘질서 선택’으로

매지권, 신명 서열, ‘불종율령’, 간지도를 함께 놓고 보면, 무령왕릉 매지권을 “권문을 작성한 사람이 당시 양대의 새로운 풍조를 알지 못해 이전 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

27) 명당지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쉬리, 2024, 앞의 글 참조.

는 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²⁸⁾는 양대 매지권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다만 이하에서는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무령왕릉 내부의 장례 질서 자체에 주목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함께 제기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무령왕릉 매지권과 도교적 색채를 띤 양대 매지권의 문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짚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차이를 곧바로 “문자를 담당한 집단이 달랐다”는 이유로만 돌리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해석은 본래 하나의 왕릉 안에서 높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던 묘장 질서를, 서로 잘 맞물리지 않는 몇 개의 분절된 요소로 나누어 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한쪽에는 양대와 보조를 맞춘 묘제·예제·부장 체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집단이 ‘구식 전통’을 고집하여 작성한 매지권이 따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 방식은 “왜 양대의 매지권과 같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응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러한 ‘옛 양식’이 어떻게 지식, 간지도, 신명 구조와 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명계의 공간 질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무령왕릉이 보여 주는 여러 요소들은 하나의 전체로서 훨씬 더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우선 신명 서열에서 횡적인 방위 신들을 덜어 내고 토지신과 명부 관원의 종적 위계를 남겨 둔 점은, 매지권이 특히 토지와 그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권문 자체가 자연수에 의한 가격 책정과 간지를 통한 토지 지정 등 비교적 강한 계약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도교적 색채를 띤 매지권에서 볼 수 있는 법륜적 문구의 권위성보다는 지권과 경역의 명료한 인지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불종율령’이라는 서술을 통해 이 왕릉은 한편으로는 지하 질서 안에 편입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말에서 일반적인 명계 율령과는 다른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끝으로 간지도와 원공은 이러한 여러 지점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고 중심화 하는 역할을 한다.

무령왕릉이 묘실 구조나 부장품 구성 면에서 남조 동시기 전축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정보 전달의 미비’나 ‘기술적 후진성’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관련 지식과 기술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지권이 여전히 구식 계약적 성격과 도교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한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한 선택과 취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무령왕릉 매지권의 이러한 특징은 梁代의 매지권 양식에 대한 정보 부족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왕릉의 공간 표현과 장례 질서에 적합한 서술 방식을 취하려는 일정한 선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옛 양식’은 단순한 후진성이 아니라, 일정한 표현 의도가 담긴 선택된 양식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계약의 골격을 유지하고 토지신의 위계를 부각하며, 도교적 법륜과 명계 율령의 직접적인 지배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한편, 간지도를 통해 왕릉의 중심과 사지를 감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왕의 장지는 남조와 지식 자원을 공유하면서도 그 지하 율령 체계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특수한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또한 무령왕릉 매지권의 의미를 단지 “어느 중국 매지권 유형에 속하는가”라는 문제로만 한정해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백제 왕릉이라는 구체적인 정치·의례적 場 속에서, 이 매지권이 왕권, 토지, 명계 질서에 관한 하나의 표현 체계로

28) 洪承賢, 2017, 앞의 글, 159~161쪽.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할 때, 무령왕릉은 더 이상 단순히 ‘중국 매지권 문화의 東傳’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사례가 아니라, 명계의 공간 질서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한 하나의 결절점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왕릉이 양대 최신 권문 양식을 얼마나 충실히 추종했는가가 아니라, 기존의 문서 전통·술수 지식·토지신 관념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왕릉의 위계와 王者의 신분에 걸맞은 지하 합법화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무령왕릉이 보여 주는 질서관은 지방 묘장의 문맥 속에서 일정 부분 잘려 나가고 압축된 형태로, 보다 단편적인 방식으로 계속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생긴다.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토왕토부모’ 명문에 대한 논의 역시 이러한 연장선 위에 놓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IV. 왕릉에서 지방으로: ‘土王土父母’銘과 명계 공간 인식의 편린

전남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에서 출토된 ‘토왕토부모’ 명문 토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백제 지방 묘장 자료 가운데서 무령왕릉 매지권이 담고 있는 관념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실물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이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무엇이 아닌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명문 토기는 곧바로 매지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백제 지방 사회 전반에 이미 완비된 매지권 제도가 존재했다고 추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1.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자료의 성격

매지권은 기능이 온전한 명계 합법화 문서로서, 그 핵심 구조 요소에 최소한 입권 시점, 매수자 신분, 계약 가격, 고지 대상인 신명 서열, 매매 대상, 입권의 증거, 금령과 벌칙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토왕토부모’ 명문 토기는 이 가운데 ‘토왕토부모’라는 신명만을 새긴 것으로, 고지 대상 신명 서열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발췌해 놓은 것에 해당하며, 입권 시점, 매수자 신분, 계약 가격, 매매 대상, 입권의 증거, 금령 및 벌칙 조항 등 핵심 요소들은 모두 빠져 있다. 문서 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이 유물은 매지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능 면에서 보더라도, 이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명문 토기는 매지권이라기보다 진묘병 계열의 진묘 명문 토기에 더 가까운 예로 보아야 한다. 곧 단일 묘장을 둘러싸고 ‘지기를 누르고 토지신의 수호를 기원하는’ 지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 구조를 통해 명계에서의 지권을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백제의 지진구 전반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백제의 토지신 제의에 사용된 기물은 건축지뿐 아니라 묘장 유적에서도 확인되며, 웅진기 이후에는 관련 제의가 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 지진 의례에서 점차 단일 묘장이나 개별 건축물 주변을 무대로 하는 단위 제의로 옮겨 가는 경향을 보인다.²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수

29) 이현숙, 2022, 「백제 地鎮具의 현황과 의미」, 『馬韓·百濟文化』 40, 43~44쪽.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토왕토부모’ 명문 토기는 왕릉급에서 제도화된 매지권의 직접적인 복제판이라기보다는, 지방 묘장 환경 속에서 행해진 진묘·지진 의례에 사용된 예기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토왕토부모’ 명문은 매지권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를 들어 백제 지방 사회에 이미 완비된 매지권 제도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료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로 그것이 완전한 제도 단위로서의 매지권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문서의 전체 구조에서 분리된 뒤에도 어떤 관념적 요소들이 여전히 지방 사회에서 식별·보존·재활용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된다.

2. ‘土王土父母’ 호칭과 명계 질서의 수용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명문이 매지권 전체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 절에서는 그 명문에 나타난 호칭이 무령왕릉 매지권과 맺는 관념적 연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명문에서 무령왕릉 매지권의 신명 서열 가운데 ‘토왕’과 ‘토부모’에 해당하는 두 호칭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반면 그 사이의 중간 층위에 해당하는 토백과 말단에 해당하는 ‘토하중관 이천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토백’과 ‘토하중관’의 의미는 온전한 문서 격식 속에서 차지하는 위계상의 자리와 문장 구조에 훨씬 더 의존한다. 이에 비해 ‘토왕’은 명계에서 토지 권위를 대표하는 최고 신격으로, ‘토부모’는 직접적인 보호 성격을 띤 인격적 신령으로 설정되어 있어, 비록 완전한 입권 구조에서 떼어 놓더라도 비교적 독립된 방식으로 식별될 수 있다. 특히 ‘토부모’라는 호칭은 ‘부모’라는 친속적 표현을 통해 강한 호위·수호의 뉘앙스를 부여함으로써, 지방 묘장 맥락에서는 피장자를 직접적으로 비호하는 토지 신령으로 이해되기 용이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두 호칭은 완결된 매지권 문서 구조에서 분리된 뒤에도, 명문화·기물화를 거쳐 지방 묘장 환경에 단독으로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상대적으로 더 잘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자료에 남아 있는 것은 무령왕릉 매지권의 신명 서열 가운데서도 가장 독립된 신격으로 기능할 수 있는 양 끝, 곧 최고 토지 권위로서의 ‘토왕’과 보호적 성격을 지닌 ‘토부모’라고 할 수 있다. 생략된 것은 보다 정형화되고 관료적인 성격이 강한 중간 단계의 호칭들이다. 적어도 현재까지의 자료만을 놓고 보면, 이와 같은 호칭 구성이 지방 사회가 수용한 대상이 온전한 명계 관료 제도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쉽게 분리해 낼 수 있고 소규모 장례 의례의 맥락에서 계속 기능할 수 있는 핵심 신명과 호위·수호의 관념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곧바로 왕릉 권문의 신명 서열에 대한 ‘선택적 절취’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지는 더 많은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양자 사이에 놓인 관념적 연관 자체는 분명 주목할 만하다.

3. 제도적 매지권에서 단편화된 명계 관념으로

무령왕릉이 보여 주는 것이 하나의 완결된 ‘문서-공간 장치’라면,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명문에 드러난 것은 이 장치 자체의 지방적 복제가 아니라, 그 관념적 핵심이 지방 묘장 맥락에서 단순화되어 되비친 반향에 가깝다.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명문은

매지권 문서 구조를 이루는 주요 요소들을 대부분 결여하고 있어, 매지권 제도가 지방으로 직접 연장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명문에 남아 있는 신격 호칭은 무령왕릉 매지권과 뚜렷한 관념적 연관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왕릉 차원에서 구성된 명계 공간 관념의 몇몇 핵심 요소가 실제로 지방 묘장 환경 속에 하나의 흔적으로 남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흔적은 완결된 제도의 복제가 아니라, 보다 단편적인 관념의 유통에 가깝다. 몇몇 핵심적인 위상을 지닌 신명 호칭과 토지신에 대한 보호 의식, 그리고 지하 공간 합법화에 관한 기본적인 상상력은, 본래 의존하고 있던 온전한 문서 격식으로부터 분리된 뒤 축약된 형태의 명문화·기물화를 거쳐 지방적 맥락 속에서 수용되고 활용된다. 이 글은 이러한 전파 양식을 ‘관념의 잔향’으로 개념화하여 ‘제도 확산’과 구분하고자 한다. 전자가 수용 주체가 기존 문서 격식을 온전히 복제할 만한 제도적 역량을 전제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기존 제도 구조와 그 기능을 통째로 이식하는 과정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백제 문화가 중심에서 지방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왕릉 장례 의례 속에서 응축된 명계 공간 관념은 반드시 완비된 제도의 형태로 지방에까지 확산되는 것은 아니며, 그 대신 핵심 신명과 주요 호칭, 그리고 그에 실린 명계적 보호 의식이 보다 간략하고 단편적인 방식으로 지방의 묘장 실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토왕토부모’ 명문은 매지권 제도가 지방 사회에서 정형화되었음을 입증한다기보다는, 왕릉급에서 구축된 명계 질서가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한 여러 관념적 요소로 분해된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곧 몇몇 토지신의 이름, 묘역의 수호를 기대하는 의식, 그리고 장지의 합법성을 최소한으로나마 확인하려는 의식이 그와 같은 요소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 말하는 ‘왕릉에서 지방으로’라는 표현은 중심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일방향적인 제도 전파의 고리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편의상 취한 하나의 관찰 각도에 가깝다. 이 표현을 빌려 쓰는 이유는 백제 왕릉에서 문서와 공간 배치를 통해 구현된 명계 공간 관념이 지방 묘장 맥락에서는 보다 간략하고 단편적인 형태로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무령왕릉 매지권은 중고 강남의 묘장 문서 전통, 토지신 관념, 술수적 공간 지식을 백제 왕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명문은 이러한 통합의 결과가 더 넓은 사회적 층위에서 남긴 부분적인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무령왕릉 매지권과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토왕토부모’ 명문이라는 두 가지 자료를 중심에 두고, 백제의 명계 공간 질서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것이 지방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매지권은 묘지의 부속 설명이 아니라, 독립된 명계 공간 합법화 문서 유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령왕릉 매지권은 분량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매지권의 기본적인 계

약 구조를 고도로 압축된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 자연수로 표시된 계약 가격(전 1만 문), 명시된 매수자(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토지신과 지하 관료 체계로 구성된 고지 대상(토왕·토백·토부모·토하중관 이천석), 간지로 표기된 매매 대상(申地를 사서 묘지로 삼음), 그리고 ‘입권위명’에 해당하는 입권 증빙과 ‘불종율령’식의 금령 조항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가상의 토지 매매 문서를 통해, 현실의 왕릉 장지는 명계 질서 안에서 값이 있고, 경계가 있으며, 주인이 있고, 증거가 갖추어진 합법적 묘역으로 전환된다. 이때 확보되는 ‘합법성’은 실제 토지 거래 행위 자체보다는, 계약 형식이 지닌 상징적·제도적 힘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묘지·간지도·매지권은 백제 왕릉 장례에서 하나의 ‘문서-공간 장치’를 이루는 상호 보완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매의 지식에는 무령왕 묘지, 왕비 묘지, 매지권, 간지도가 각각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정보의 중첩이 아니라 분명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구성이다. 묘지는 묘주의 신분과 장례 시점을 확인해 주고, 매지권은 명계의 법리 차원에서 지하 지권을 확립하며, 간지도는 간지 방위와 원공을 매개로 왕릉 장지의 평면 경역을 감계하며, 나아가 ‘명당지심’의 축선과 관련된 중심 위치를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권문에 등장하는 ‘買申地’라는 표현은 간지도에 간지로 구획된 공간 구도와 직접적으로 호응하며, 간지도 중앙의 원공은 백제의 지진 의례와 지진구 매납 관행을 고려할 때 묘역 중심 관념과 연결된 일종의 장치점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무령왕릉 장지의 합법화는 한 장의 매지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구조, 신명 서열, 율령 관련 문구, 공간 도식이 결합된 체계를 통해, 왕릉 장지가 명계 질서 속에서 ‘등기-감계-위치 지정’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형성된 명계 공간 표현 방식은 중고 강남의 묘장 문서 전통과 긴밀히 상응하면서도, 동시에 백제적 특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하나의 변형된 양식으로 자리한다.

셋째,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토왕토부모’ 명문이 보여 주는 것은 왕릉 제도가 지방에 온전히 확산된 결과라기보다, 명계 공간 관념이 단편적인 형태로 보존된 양상에 더 가깝다. 여수 명문 토기는 입권 시점, 매수자, 계약 가격, 매매 대상, 입권 증빙, 벌칙 조항 등 문서 구조를 이루는 핵심 요소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성격상 매지권이라기보다 진묘병 계열의 진묘 토기나 지진구에 가까운 예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유물에서는 무령왕릉 매지권의 신명 서열에서도 확인되는 ‘토왕’과 ‘토부모’라는 두 호칭이 나타나며, 토백이나 ‘토하중관 이천석’과 같은 중간의 관료적 단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지방 묘장 맥락에서 수용된 요소가 왕릉 명계 질서관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가장 쉽게 인지되고 간략한 제의 속에서 호출하기 적합한 핵심 신명과 수호 관념이었음을 시사한다. 웅진기 이후 토지신 제의가 ‘묘역 전체’를 둘러싼 의례에서 ‘단일 묘장 단위’ 중심의 제의로 이행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이러한 단순화와 압축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이런 점에서 여수 자료는 매지권 제도가 지방 사회에서 정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기보다, 왕릉급 명계 질서가 지방에서 어떻게 분해되고 재활용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관찰 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고가 말하는 ‘왕릉에서 지방으로’라는 경향은 특정 제도가 지방 사회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되었는가를 추적하는 작업이 아니라, 왕권·토지·명계 질서를 둘러싸고 구성된 하나의 관념 구조가 서로 다른 사회적 위계와 물질적 조건 속에서 어

떠난 방식으로 재조직·단순화되며, 단편적 형태로 보존되는가를 밝히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왕릉급에서는 이 관념 구조가 묘지·매지권·간지도 등의 문서와 도상 결합을 통해 집약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 백제 왕실이 중국 중고기 강남의 묘장 문서 전통, 토지신 신앙, 술수적 공간 지식을 종합적으로 수용·운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지방 묘장 맥락에서는 동일한 구조가 진묘용 기물과 ‘토왕·토부모’류의 신명 조합을 매개로 보다 축약된 방식으로 일부 양상만을 드러낸다. 향후 ‘토부모’ 신격의 구체적 위상, ‘명당지심’ 도식의 문화사적 배경, 지진 의례와 매지권의 관계, 그리고 관련 관념이 고구려·신라 묘장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비교 연구가 심화된다면, 동아시아 중고기 장송 문화 속에서 백제 명계 공간 질서의 위상을 한층 세밀하게 규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및 논문

- 강원표, 2016, 『百濟 喪葬儀禮 研究 -古墳 埋葬프로세스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원표, 2021, 「武寧王陵 葬禮過程에서 <設置式棺>의 檢討」, 『百濟學報』 38.
- 강원표, 2022, 「백제 왕실 상장의례의 전개 과정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중심으로-」, 『고대 동아시아의 상장의례』(국립공주박물관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공주박물관.
- 강원표, 2023, 「武寧王陵 墓室 內 葬禮過程의 復原」, 『백제학보』 46.
- 강인구, 1991, 「무령왕릉의 구조와 묘제」, 『백제무령왕릉』,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국립공주박물관, 2018, 『武寧王 陵新報告書 IV -출토유물1(옥석류)-』.
- 권오영, 2002, 「喪葬制를 中心으로 한 武寧王陵과 南朝墓의 비교」, 『백제문화』 31.
- 권오영, 2005,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개.
- 권인한·김경호·윤선태 외, 2015, 『한국고대문자자료 연구: 백제(상) -지역별-』, 주류성.
- 김규동, 2021, 「백제 무령왕릉 상장례 재고 -목관 안치 방식으로 본 매장례 복원-」, 『한국고대사연구』 104.
- 김영관, 2018, 「백제 무령왕릉 출토 지식과 매지권 판독 재고」, 『한국고대사탐구』 30.
- 金英心, 1992, 『武寧王妃 誌石』,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고구려·백제·낙랑 편) (한국고대사학회 연구소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김환희·장재원, 2022, 「백제 사비기 왕릉원의 조영과 상장의례」, 『고대 동아시아의 상장의례』 (국립공주박물관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립공주박물관.
- 나희라, 2023,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과 무령왕릉」,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특별전 도록), 국립공주박물관.
- 朴淳發, 2020, 「무령왕릉 墓誌 형태 비교 연구」, 『百濟研究』 72.
- 박순발, 2023, 「무령왕릉과 백제의 상장의례」,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특별전 도록), 국립공주박물관.
- 박초룡, 2025, 「고대 ‘土王土父母’銘에 반영된 后土信仰」, 『歷史學研究』 100.
- 成周鐸, 1971, 「武寧王陵」, 『百濟研究』 2.
- 성주탁, 1991, 「무령왕릉 출토 지식에 관한 연구」,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무령왕릉 발굴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成周鐸·鄭求福, 1991, 「무령왕릉의 지식」, 『백제무령왕릉』,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쉬 리, 2024, 「무령왕릉의 입지와 지식 -오음묘법과 명당지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207.
- 시라스 조신(白須淨眞), 2007,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무령왕)·왕비 합장묘의 묘권·묘지석에 관한 한 제언」,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권영필·김호동 편), 솔.
- 이경화, 2014, 「백제 무령왕릉 간지도의 해석」, 『백제문화』 51.
- 이남석·이현숙, 2016, 「百濟 喪葬儀禮의 研究 -錦江流域 상장의례 遺蹟의 意味-」, 『백제문화』 54.
- 이병도, 1972, 「百濟 武寧王陵 出土 誌石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 11.
- 李宇泰, 2010, 「한국의 買地券」, 『歷史教育』 115.

- 이운섭, 2023, 「백제 왕실무덤에서 치른 의례」,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특별전 도록), 국립공주박물관.
- 이장웅, 2019, 「백제 武寧王과王妃의 喪葬禮 -殯과 假埋葬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3.
- 이장웅, 2020,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통해 본 매장 의례와 그 사상적 배경」, 『韓國思想史學』 66.
- 이재환, 2015, 「武寧王陵 出土 文字」, 『한국고대 문자자료 연구: 백제(상) -지역별-』, 주류성.
- 이현숙, 2022, 「백제 地鎭具의 현황과 의미」, 『馬韓·百濟文化』 40.
- 任昌淳, 1973, 「買地券에 대한 考察」,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 鄭求福, 1987, 「武寧王 誌石 解釋에 對한 一考」,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 張團偉, 2025a, 「武宁王买地券再考 -以“土王土伯土父母土下众官二千石”释读为中心-」, 『한중 인문학연구』 88.
- 張團偉, 2025b, 「무령왕릉 출토 金石文에 대한 語學的 고찰 -銀製龍文釧銘과 買地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5.
- 張守男, 2011, 「武寧王陵 買地券의 起源과 受用背景」, 『百濟研究』 54.
- 정재운, 2016, 「武寧王陵 誌石을 통해본 백제 여성의 지위」, 『中國古中世史研究』 42.
- 정재운·박초롱, 2020, 「문헌 및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대 장송의례 -백제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31.
- 崔珉熙, 2018, 「무령왕릉 묘지석에 사용된 역법과 상장례기간」, 『百濟研究』 67.
- 최민희, 2021, 「무령왕릉 묘지석의 제작 과정과 배치 변화와의 관계」, 『백제연구』 74.
- 洪承賢, 2016a, 「後漢 買地券의 분류와 역사적·지역적 특징」, 『中國史研究』 101.
- 洪承賢, 2016b, 「三國~南朝 買地券의 특징과 성격」, 『中國古中世史研究』 40.
- 洪承賢, 2017, 「六朝 買地券의 계통과 매지권 문화의 동아시아적 전개 -<武寧王買地券>의 역사적 위치에 대하여-」, 『中國古中世史研究』 45.
- 魯西奇, 2014, 『中国古代买地券研究』, 厦门大学出版社.
- 偃师商城博物馆, 1992, 「河南偃師東漢姚孝經墓」, 『考古』 3.
- 吴天颖, 1982, 「汉代买地券考」, 『考古学报』 1.
- 王志高, 2022, 「關於百濟武寧王陵出土墓志、買地券的幾個疑難問題」, 『東亞文明』 3.
- 王志高·董庐, 1996, 「六朝买地券综述」, 『东南文化』 2.
- 张传玺, 2008, 『契约史买地券研究』, 中华书局.
- 黃景春, 2018, 『中国宗教性随葬文书研究: 以买地券、镇墓文、衣物疏为主』, 上海人民出版社.
- 稻田奈津子·王海燕·榊佳子 編著, 2023, 『黄泉の国との契約書 -東アジアの買地券-』, 勉誠出版.

쉬리, 「王陵에서 地方으로 -百濟 冥界 空間秩序 속 買地券의 전개-」에 대한 토론문

이장웅(건국대학교)

본 발표문은 무령왕릉의 지석·매지권·간지도를 공간 배치와 의례 실천이라는 종합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면서, 묘지는 묘주의 신분과 장례 시점을 확정해주고, 매지권은 지하에서의 지권과 그 합법적 점유를 설정하며, 간지도는 이러한 지권을 식별 가능한 경역과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토론자 역시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약간의 의문에 대해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무령왕릉 매지권에 반영된 상장례 사상의 성격과 도교 문제

무령왕릉의 묘실 구조는 남조의 최신 기술자가 만든 전축분이고, 만들어진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철제 오수전까지 매납되었다. 그런데 매지권은 동시대 남조 梁代에 성행하던 도교적 매지권 형식이 아니라, 삼국·양진 이래 현실 계약 형식과 鎮墓文의 표현이 섞이고 토지신·명관을 주요 당사자로 삼았던 계약 전통을 보다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매지권만 정보 전달의 미비나 기술적 후진성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 지식과 기술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식의 계약적 성격과 도교적 색채가 약한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정한 표현 의도를 담은 선택으로 명계의 공간 질서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했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종율령’도 지권과 그에 대한 호위·보호가 중국식 명계 율령의 관할에 편입되어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무령왕릉의 외피는 최신 남조식임에도 불구하고 매지권에 보이는 ‘선택된’ 상장례는 백제의 전통적인 사상이 보다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도교적인 모습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은지 궁금하다(『周書』 백제전: 醫藥·卜筮·占相의 術을 알고 있었다. … 僧尼와 寺塔은 심히 많으나 道士는 없다). 토론자도 무령왕릉 출토 유물들을 분석하면서 당시 중국 남조의 영향보다 훨씬 이전인 후한, 낙랑 때부터 백제가 받아들여 계속 발전시켜온 상장례의 모습으로 파악한 바 있다.¹⁾

2. 무령왕릉 지석·간지도·석판의 전체 안치 방식과 간지도의 방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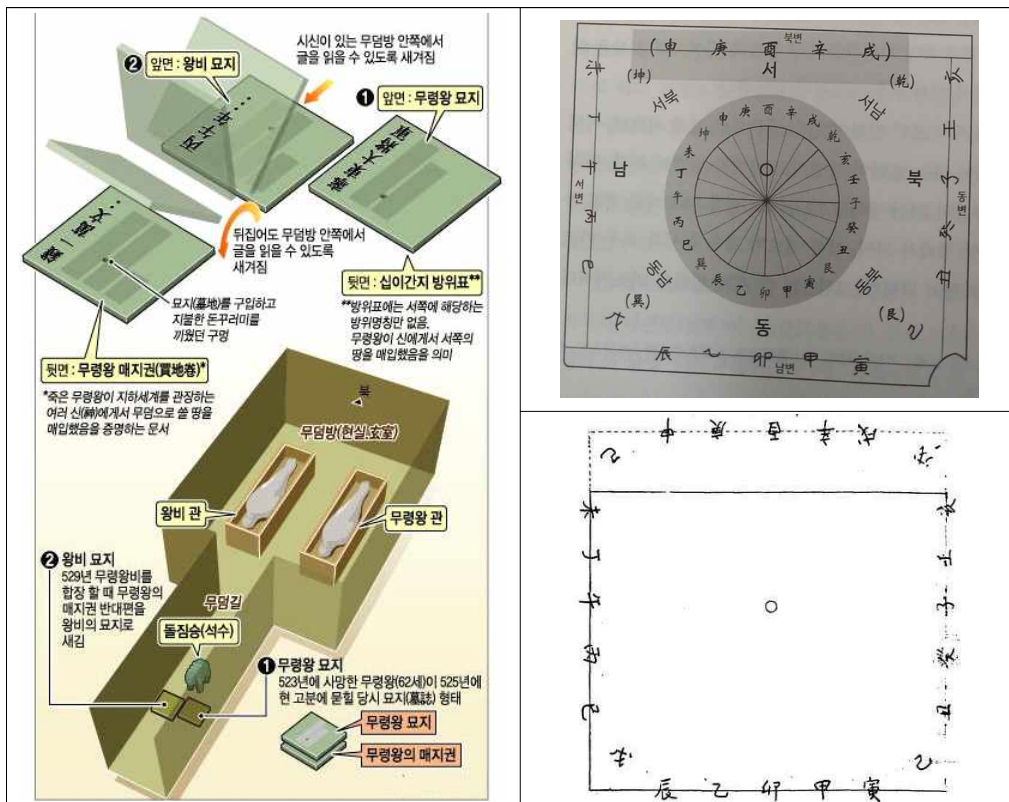
발표자는 매지권이 계약 형식을 통해 왕릉 장지의 ‘공간에 대한 권리 귀속’을 문서 차원에서 완결했다면, 무령왕 묘지의 배면에 새겨진 간지도는 이러한 확정을 시각적으로 도상화·방위화하여 그 공간적 경계를 가시화한 것으로 보았고, 토론자도 이에 동의한다. 기존에 방위도 또는 능역도로 이해하였던 간지도는 권문에 나타나는 ‘買申地’와 서로 호응하면서, 왕릉의 장지가 지하 질서 안에서 어떤 방위에 귀속되며 그 공간적 경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다루어, 장지를 보다 거대한 우주 질서 속에 편입시키려는 장치라는 것이다. 여기서 토론자가 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간지도가 보여주고 있는 방위 표기가 남북조 시기는

1) 이장웅, 2020,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통해 본 매장 의례와 그 사상적 배경」, 『韓國思想史學』 66.

물론, 괘명 사용 시기보다 훨씬 이전의 표기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간지도가 묘실에 실제로 배치된 방향과 간지도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위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무령왕릉 간지도는 17개의 간지로 동·서·남의 방위도를 새기면서 서방 ‘坤·申·庚·酉·辛·戌·乾’의 7개 방위를 의도적으로 생략했고, ‘戊(巽)·己(艮)’ 방위명이 모서리에 새겨진 점이 주목된다. 주역 방위도에서 24방위 패철은 십간 십이지에서 중앙인 ‘戊·己’를 빼고 8괘에서 사이 방위인 4維에 해당하는 乾(서남방)·坤(서북방)·巽(동남방)·艮(동북방)을 합하여 만든 것이다. 24방위를 나타내는 패철과 무령왕릉 간지도를 비교하면, 주역의 ‘巽·艮’을 사용하지 않고 그 방위에 ‘戊·己’를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주역 이론과 십간 십이지를 섞은 것이며, 이는 패철 24방위 이전의 것으로 볼 수 있다.²⁾

그리고 토론자도 무령왕 매장 당시 두 장의 석판이 겹쳐서 매납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는데, 이때 왕의 지석과 간지도를 정합하면, 간지도에서 생략된 서쪽이 실제 가리키는 방향은 왕이 묻혀있는 북쪽 방향이다. 또 간지도와 매지권을 정합하면, 간지도에서 생략된 서쪽 방향과 매지권이 겹치게 되어 그곳이 왕이 사후의 영주지로 토신들로부터 매입한 땅임을 보여준다.³⁾ 곧, 간지도의 좌향은 방위명이 생략된 윗면이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다. 따라서 간지도의 전체 좌향은 통상의 24 방위법 배치(세로 남북 子午 씨줄, 가로 동서 卯酉 날줄)를 90도 회전한 형태가 되어, 상하 세로의 卯酉 동서와 좌우 가로의 子午 남북이 놓인 변형 좌향이 된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리고 4괘명이 모두 나타나지 않은 변형 24산법은 동시기 남북조의 풍수 방위법과 다르며, 4괘명 사용 이전의 단계를 시사할 수도 있다.⁴⁾



2) 이경화, 2014, 「백제 무령왕릉 간지도의 해석」, 『백제문화』 51, 128쪽.

3) 이경화, 2014, 앞의 글, 126쪽.

지석·간지도·석판의 안치 방식은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하나의 장송 장치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표자는 지석·간지도·석판의 전체 안치 방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간지도가 묘실에 실제로 배치된 방향과 간지도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위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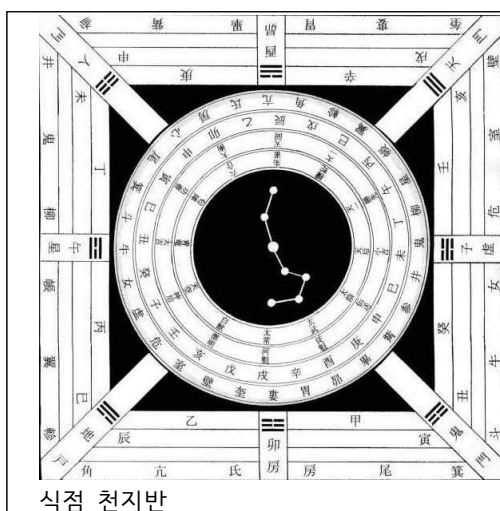
3. 무령왕릉 간지도와 명당 지심전의 연관 문제

발표자는 이전 논문과 이번 발표에서 간지도의 원공을 상하를 관통하는 ‘地心’ 혹은 묘지의 명당이 자리한 지점으로, 왕릉 장자가 지하 질서 속에서 차지하는 중심축을 상징한다고 보았다.⁵⁾ 그런데 명당은 후한 시기 예제에서 3대 공간 건축물로 운영되었던 明堂, 辟雍, 靈臺의 三雍 중 하나로, 천자가 정치 교화를 펼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고분도 명당으로 인식한 예들이 있고 남조 양 무제 시기에도 그렇다고 하지만, 백제에서도 그러했는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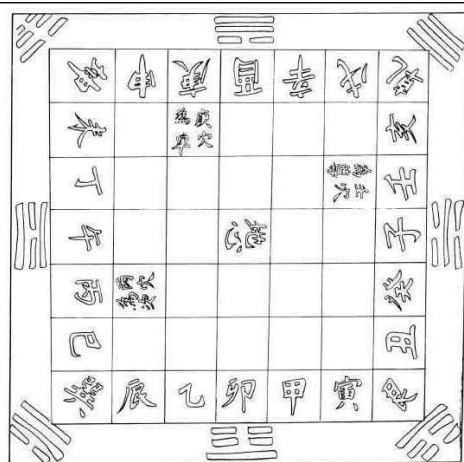
<참고 - 발표자의 이전 논문에서 본 무덤 조영과 매지권 매립 과정의 예>

오음묘법 중 步地取吉穴에 따라 무덤의 길혈을 찾고 명당의 위치 확보 -> 명당 지심에 제단을 만들어 참초 의식을 행한 뒤 매지권 2매 매립(무덤 안의 명당 지심 토갱, 무덤 관구 앞). 산서성 분양 동룡관 송금 벽화묘(1195) 토갱 안에는 澄泥硯, 泥錢, 墨塊 등이 들어있는 도관의 罐口를 朱書로 글자를 쓴 方塼 두 점이 덮고 있는데, 위의 방전은 매지권, 아래의 방전은 지심전이며, 두 방전의 글자가 있는 부분이 맞대하고 있는 형태.

이를 비교하면, 무령왕릉 간지석의 원공과 1195년에 제작된 명당 지심전의 地心 표시 위치는 유사성이 있지만, 이전 후한 시기의 식점 천지반과 더 유사하게 보인다. 또한, 무령왕릉에서는 무덤 조영 전에 토갱을 파고 매지권을 매립한 것이 아닌 무령왕의 사망 후 3년 상이 끝나고 매장하는 시점에 지석과 간지도와 매지권을 함께 안치하였다. 게다가 1195년 제작 명당 지심전에는 무령왕릉 간지도와 같은 원공이 뚫려 있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령왕릉 매지권과 간지도는 남조 당대의 모습보다 훨씬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후보다는 이전의 예들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한다.



식점 천지반



산서성 분양 동룡관 명당 지심전 모사도(1195)

4) 김일권, 2024, 「백제의 역법제도와 무령왕릉 묘지석의 역법 연구」, 『삼국사기 일식 기록과 금석문 역일 기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5) 쉬리, 2024, 「무령왕릉의 입지와 지석 -오음묘법과 명당지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207.



산서성 분양 동룡관 명당지심전 복원(1195) 부여 능산리 4호분 西上塚 출토 지진구 토기



※ 참고 상상: 산서성 분양 동룡관 명당지심전 복원(1195)에서 도관의 罐口를 朱書로 글자를 쓴 方塼 두 점이 덮고 있었다는 점, 부여 능산리 4호분 西上塚 출토 지진구 토기로 보아 그러한 부장 모티프가 백제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무령왕릉 연도 입구에 배치된 중국제 도자기 2점 중 한 점의 뚜껑이 없다는 점에서, 그 도자기 위에 석판 2점이 포개어 올려져 있었을 가능성도? 그러나 도자기가 깨질 듯함.

4. 무령왕릉 매지권에서 土父母의 성격 문제

발표자는 무령왕릉 매지권에서 매도인은 ‘土王-土伯-土父母-土下眾官(-)二千石(지하의 여러 이천석 관원들)’로 이어지는 상하 방향의 한 줄기 수직적 등급 구조 서열만 남아 있고, 수평적 방위를 담당하는 신격이나 직관 집단은 등장하지 않으며, 이는 도교 경전 체계에 등장하는 존신이 아니라 강남 토속 토지신과 북중국계 명관이 뒤섞인 신격 체계라고 하였다. 곧, 명계에서 상정 가능한 여러 역할 가운데 주로 토지-지계-토지에 대한 권리 귀속’을 직접 관장하는 신격들만 골라 남기고, 이를 존비 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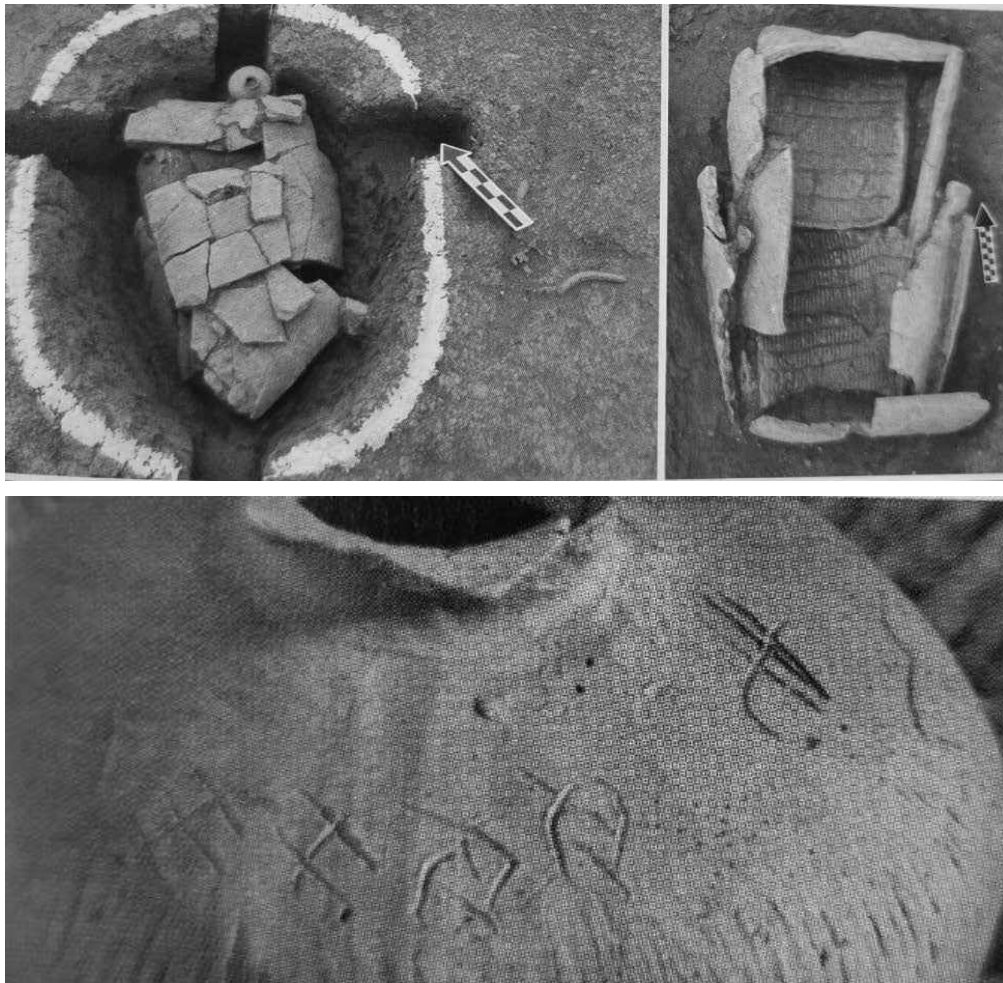
대체로 동의하나 그중 土父母의 신격은 중국의 매지권에 나타난 사례가 없다. 이에 토부모의 신격이 土王과 제후인 土伯보다 아래이면서 하위 말단 관료들보다는 윗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등급 구조상의 의미와, 토지 권리 귀속 상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土父母의 성격은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출토 토기 병에도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발표자는 토부모를 직접적인 호위·수호의 성격을 띤 인격적 신령이라

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백제에서 토부모가 土伯보다 아래 등급으로 평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5. 여수 죽림리 차동 ‘土王 土父母’ 진묘 명문 토기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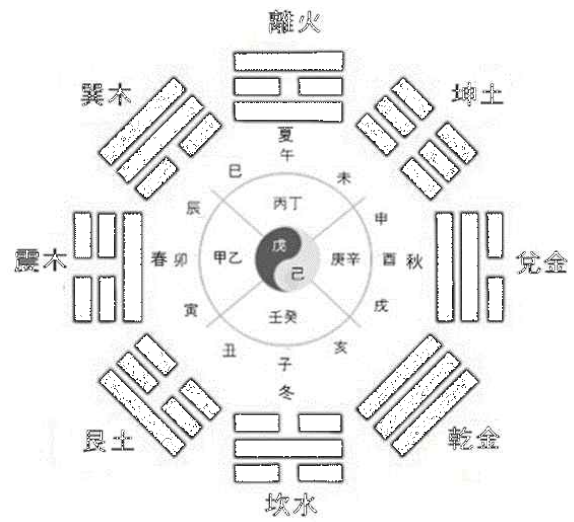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에서 출토된 ‘土王 土父母’ 명문이 새겨진 진묘 명문 토기는 매지권이 아니라 지방의 묘장 환경에서 지기를 누르고 토지신의 수호를 기원하는 의례에 사용된 지진구이다. 이는 중앙 왕릉 차원에서 완비된 입권 문서·신명 서열·별칭 조항 등을 통해 구축된 질서가 지방 묘장 환경에서 몇몇 핵심 신명으로 압축된 것이며, 왕릉급 명계 공간 관념이 지방 묘장 맥락으로 확장·분절되어 수용된 사례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이 토기가 출토된 맥락과 명문의 표기 방식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이 자료는 작은 규모의 와관묘 복단벽 바깥쪽에서 출토된 토기 병의 어깨 부분에 음각으로 “土王土父母 建”이 조악하게 새겨졌다. 따라서 이는 무령왕릉 매지권의 내용을 알고 있던 지방 중소 세력가가 辟邪나 吉祥의 의미를 담아 지진구에 간단하게 새긴 부호 정도로 보인다. “土王土父母”에 이어 새겨진 “建”으로 보이는 글자도 토기에 자주 보이는 “井”이나 “×”와 같은 기호에 가깝다. 이는 무령왕릉 출토 銅托 銀盞의 모티프를 지방에서 토기로 모방한 綠釉 托盞이 나주 북암리 1호분의 연도 입구, 진주 옥봉 7호분 등에서 발굴된 상황과도 상통한다고 본다.





문왕 팔괘도가 그려진 고구려 오희분 4호묘



주제발표 3

발해 묘지명에 드러난 亡者의 삶과 장송의례

-발해 묘지명의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박 유 정
(서울대학교)

-
- I. 머리말
 - II. 묘지명의 형식과 구성
 - III. 묘지명에 투영된 가치와 질서
 - IV. 묘지명에 드러난 장송의례
 - V. 맺음말
-

I. 머리말

1949년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の 고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貞惠公主의 墓誌銘¹⁾이 발견되었다. 무덤의 연도에서 7조각으로 깨진 채 발견된 정혜공주의 묘지명은 복원 끝에 총 21행 725자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훼손이 심하여 식별이 가능한 글자는 491자에 불과하였다.²⁾ 그로부터 약 30년 후, 吉林省 和龍市 龍頭山에서 貞孝公主의 墓誌銘이 발견되었다. 기단부가 잔존하고 있었던 전탑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지하에 무덤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효공주 묘지명 역시 고분의 연도 부분에서 발견되었는데 정혜공주 묘지명과는 달리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그 분량은 18행 728자로 정혜공주 묘지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³⁾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는 발해 문왕의 둘째, 넷째 딸이며 묘지명의 내용을 비교하면 일부 개인사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정효공주 묘지를 통해 훼손이 심했던 정혜공주 묘지의 복원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발해 문왕의 둘째, 넷째 공주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명은 발해인이 직접 남긴 當代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료가 부족한 발해사 연구에 있어 20세기에 발견된 2건의 묘지명은 사서에 담겨 있지 않은 여러 정보를 제공해 주었는데, 묘지명을 통해 정혜·정효공주에 관한 정보는 물론 문왕의 존호, 발해 왕실과 관련된 각종 제도, 장송의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

- 1) 발해 묘지명의 경우 8~9세기 당나라의 일반적인 묘지석의 형태와는 달리 방형이 아닌 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권은주는 묘지석을 지칭할 때는 ‘묘비’라는 용어를, 묘지문을 지칭할 때는 ‘묘지명’을 사용하였다(권은주, 2025, 「발해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90, 8쪽 각주 1번). 묘지명은 묘비가 변형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그 계기로는 위진시기의 금비령 조치가 지적된다. 금비령 조치로 인해 무덤 속에 묘비를 축소한 형태로 매입하게 되면서 묘지명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서진, 16국, 그리고 북위에 이르기까지는 무덤 안에 매입된 묘지명도 소형의 묘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誌石과 蓋石이 세트를 이루는 형태는 북위 효문제의 낙양 천도 이후에 출현하는 것이다. 다만, 묘비는 무덤 앞에 세우는 것인데 묘지명은 무덤 내에 매입하는 것으로 양자의 기능과 목적의 차이도 분명하다(박한제, 2014, 「魏晉南北朝-隋唐時代 葬俗·葬具의 變化와 墓誌銘 -그資料的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75, 32~34쪽). 이를 고려하면 무덤 안에 매입된 발해 묘지석의 형태가 비석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여 ‘묘비’로 지칭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든다. 한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그리고 효의황후의 경우 그 제목이 ‘墓誌并序’ 혹은 ‘墓誌一首并序’로 끝나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銘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墓誌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묘지명’으로 통일해서 지칭하되 묘지명이 새겨진 석재 자체를 지칭할 시에는 ‘묘지석’ 혹은 ‘지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정혜공주 묘지의 발견 경위에 대해서는 王承禮·曹正榕, 1961, 「吉林敦化六頂山渤海古墳」, 『考古』 1961-6; 王承禮, 1979, 「敦化六頂山渤海墓清理發掘記」, 『社會科學戰綫』 1979-3, 吉林文物管理委員會; 송기호, 1981, 「발해 정혜공주묘비의 고증에 대하여」, 『한국문화』 2를 참고하였다.
- 3) 정효공주 묘지의 발견 경위에 대해서는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綫』 1982-1, 吉林省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院; 송기호, 1992a, 「貞孝公主 墓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Ⅲ(신라Ⅱ·발해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방학봉, 1993a,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지에 대하여」 『발해사연구』 1을 참고하였다.
- 4) 정혜공주 묘지명과 정효공주 묘지명에 관한 주요 연구는 閻萬章, 1956, 「“貞惠公主墓碑”的研究」, 『考古學報』 1956-2; 王建群, 1980, 「渤海貞惠公主墓碑考」, 『文物集刊』 2; 王承禮, 1982, 「唐代渤海“貞惠公主墓誌”和“貞孝公主墓誌”的比較研究」, 『社會科學戰綫』 1; 송기호, 1982, 「발해정혜공주묘비의 고증에 대하여」, 『한국문화』 2; 鄒秀玉, 1983, 「貞孝公主墓誌反映出的儒家思想」, 『博物館研究』 3; 羅繼祖, 1983, 「渤海貞惠貞孝兩公主的墓碑」, 『博物館研究』 3; 王承禮, 1984·1985,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研究」 上·中·下, 『博物館研究』 1984-2, 3, 1985-1; 王俠, 1985, 「貞惠公主墓與貞孝公主墓」, 『學習與探索』 4; 채희국, 1988, 「발해의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 방학봉, 1990, 「“貞孝公主墓誌”에 반영된 儒家思想 연구」, 『한국학연구』 2 및 1993a, 앞의 글; 1993b, 「

21세기 초, 발해 묘지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효의황후와 순목황후가 그 주인공이었다. 두 황후의 묘지명은 2004~2005년 길림성 화룡시의 용두산 고분군의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2011년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이하 「용해 구역 간보」)⁵⁾를 통해 발견된 묘지명의 주인이 문왕의 황후인 효의황후와 간왕의 황후인 순목황후임이 밝혀졌으나 여전히 전문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2025년 효의황후와 순목황후의 묘지명은 약 20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2004~2005, 2008年 發掘報告』(이하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가 간행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두 황후의 묘지명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과 논란이 있었으나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 자체가 더디게 진행되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두산 고분군의 유적과 유물 등에 대한 정리가 2020년까지 이어졌고 묘지명의 판독 자체도 2020년이 되어야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⁶⁾

정혜·정효공주의 묘지명과 달리 효의황후와 순목황후의 묘지명은 판독안, 상대적으로 고화질의 탁본,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되어 더욱 꼼꼼히 묘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두 황후의 묘지명은 몇몇 글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글자를 읽어내는데 문제가 없기도 하다. 이에 국내에서는 보고서가 출간된 직후인 2025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두 황후의 묘지명에 대한 분석 보고 및 판독안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판독 및 역주, 그리고 묘지명 내용을 분석한 권은주의 연구가 같은 해 12월 『동북아역사논총』 90호에 게재되었다.⁷⁾ 이외에도 순목황후의 묘지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9세기 초 발해의 정치적 상황을 추정하거나⁸⁾ 효의황후 묘지명의 표현들을 분석하여 발해의 유교문화 수용을 논하기도 하였다.⁹⁾ 보고서가 공개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여러 편의 논저가 발표된 것은 새로 발견된 발해 문자 자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4건의 발해 묘지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의 묘지명이다. 또한 묘지명의 주인은 모두 문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다. 묘지명의 제작 시기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4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효의황후와 가장 늦은 시기에 제작된 순목황후의 묘지명 간의 시차가 54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건의 묘지명을 함께 살펴본다면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전반까지 제작된 발해 묘지명의 양식에 대해 탐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묘지명에는 당시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가치나 질서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묘지명 주인의 행적과 품성에 대한 묘사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묘지명에는 망자의 삶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망자를 보내는 과정을 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관련 사료를 거의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4건의 묘지명은 발해의 장송의례

발해정효공주묘지명서에 대한 고역」, 『발해사연구』 1; 윤선태, 2007, 「渤海 文字資料의 現況과 課題」, 『大東漢文學』 26이 있다.

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2004~2005, 2008年 發掘報告』, 文物出版社, 8~9쪽. 한편 중국 학계에서는 중요한 고고 발굴 보고서라고 할지라도 수십 년 만에 출간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중국 측 전문가의 전언을 참고하면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권은주, 2025, 앞의 글, 10쪽).

7) 권은주, 2025, 앞의 글. 묘지명에 대한 보고와 판독 과정에 대해서는 같은 글, 12쪽 각주 5번 참조.

8) 강진원, 2025, 「「순목황후 묘지명」과 9세기 초 발해의 풍경」, 『한국고대사탐구』 51.

9) 주신, 2026, 「문왕 시기 발해의 유교문화 수용 -「효의황후 묘지명」에 사용된 전고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84.

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4건의 묘지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선 묘지명 구성의 특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망자의 삶과 품성에 대한 묘사를 드러내는 표현에 주목하여 그를 통해 당시 발해 사회가 어떤 가치와 질서를 드러내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해의 장송의례의 과정을 읽어내고자 한다.

Ⅱ. 묘지명의 형식과 구성

현재까지 발견된 발해 묘지명 4건의 제원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발해 묘지명의 제원

묘지명 항목	정혜공주 묘지명	정효공주 묘지명	효의황후 묘지명	순목황후 묘지명
발견 위치	육정산 고분군 (정혜공주묘: I 구역 M2호묘)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 (정효공주묘: M1호묘)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 (M12호묘)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 (M13호묘)
제작 시기	780년	792년	775년	829년
구성	21행 725자	18행 728자	19행 981자	9행 141자
규격(㎝)	높이 90, 너비 49 두께 29	높이 105, 너비 58, 두께 26	높이 94, 너비 52, 두께 28	높이 55, 너비 34.5, 두께 13
서체	해서	해서	해서 ¹⁰⁾	? (集字) ¹¹⁾
재질/형태	화강암/규형	화강암/규형	?/규형 ¹²⁾	사암/모서리가 둥근 장방형

※ 순서는 1차적으로 보고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고,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의 경우 제작 연대에 따랐다.
 ※ 출처: 王承禮, 1979, 앞의 글, 204~205쪽;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앞의 글; 王承禮, 1982, 앞의 글, 181쪽;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69~70쪽 및 80~81쪽.

4건의 묘지석은 모두 무덤의 연도에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¹³⁾ 4건의 묘지석을 비교해

- 10)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는 효의황후 묘지명의 서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80쪽). 권은주는 효의황후 묘지명의 서체를 해서로 판단하면서도 불균형한 좌우방변, 획을 일부 생략하는 방식, 글자의 기울기를 고려할 때 당대 묘지명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정자 해서체가 아니라 복위 등 당 이전의 서법에 좀 더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하였다(2025, 앞의 글, 10쪽). 본고에서는 권은주의 판단을 따랐다.
- 11) 순목황후 묘지명의 서체에 대해서도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69쪽). 권은주는 순목황후 묘지명의 글씨가 ‘集字’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2025, 앞의 글, 10쪽).
- 12)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는 효의황후 묘지석의 재질에 대해서도 서술하지 않았다.
- 13)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지석의 발견 위치에 대해서는 王承禮, 1979, 앞의 글, 204쪽;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앞의 글, 175쪽 그림 참조. 순목황후와 효의황후 묘지명의 발견 위치에 대해서는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62~63쪽 도 62, 77~78쪽 도 81 참조. 단,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에서는 효의황후묘지석이 연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면을 참고할 때 효의황후묘지석의 경우 현실에서 연도 쪽에 살짝 걸쳐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어 애매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발해의 다른 묘지석들이 모두 연도에서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효의황후의 묘지석 역시 연도에

보면 그 형태와, 크기, 무늬 등에서 순목황후 묘지석과 다른 3건의 묘지석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표 1>). 우선,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그리고 효의황후의 묘지석은 흔히 ‘圭形’으로 지칭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묘지석의 규격(크기)도 거의 비슷하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효의황후 묘지석은 낮은 받침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반면 순목황후 묘지석은 다른 3건의 절반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며 형태도 상단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차이가 난다. 형태나 규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발해 문왕 시기에는 묘지석을 제작하는 형식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정혜공주와 효의황후의 묘지석의 무늬가 유사하기도 하다. 묘지석의 둘레에는 唐草紋이, 묘지석의 상단에는 雲紋이 새겨져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¹⁴⁾ 반면, 정효공주의 묘지석에는 둘레와 상단에 선을 음각하여 경계를 표시할 뿐 무늬는 확인되지 않는다. 순목황후의 묘지석도 정효공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정혜공주와 효의황후, 순목황후의 묘지석에는 모두 세로로 줄을 그은 흔적[界線]이 확인된다.¹⁵⁾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지명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은 이른 시기부터 지적되었다. 두 공주의 묘지명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한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묘지명의 제목 및 정혜·정효공주의 개인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文籍院 등과 같은 곳에 묘지명의 정형적인 격식 등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는 추론을 낳기도 하였다.¹⁶⁾

<표 2> 정혜공주묘지명과 정효공주묘지명 중 내용이 相異한 부분¹⁷⁾

貞惠公主墓[誌][并]序	貞孝公主墓誌并序
公主者我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之第二女也.	公主者我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之第四女也.
稚子[又][夭], 未經請郎之日.	稚女又夭, 未延弄瓦之日.
粵以寶曆四年夏四月十四日乙未[終][於]外第, 春秋四十. 諡曰貞惠公主.	粵以大興五十六年夏六月九日壬辰終於外第, 春秋三十六. 諡曰貞孝公主.
寶曆七年冬十一月廿四日甲申陪葬於珍陵之西原, 禮也.	其年冬十一月廿八日己卯陪葬於染谷之西原, 禮也.
寶曆七年十一[月][廿][四]日.	없음

이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묘의 묘지명의 구성은 내용상 다음의 <표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권은주, 2025, 앞의 글, 9쪽).
 14) 정혜공주묘지석에 관한 보고에서는 둘레에 蔓草紋이 상단에 卷雲紋이 새겨져 있다고 하였고(王承禮, 1979, 앞의 글, 204~205쪽), 효의황후묘지석에 관한 보고에서는 둘레에 卷草紋이 상단에 祥雲紋이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80쪽).
 15) 이상의 내용은 王承禮, 1979, 앞의 글, 204~205쪽;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앞의 글, 176~177쪽;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69~70쪽 및 80~81쪽을 참조해 정리하였다.
 16) 송기호, 1992a, 앞의 글, 458쪽; 김중복, 2004, 「정혜·정효공주묘지, 발해사를 이야기하다」,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335쪽.
 17) 王承禮, 1982, 앞의 글, 182쪽; 송기호, 1992a, 앞의 글, 452쪽.

<표 3> 정혜공주 묘지명과 정효공주 묘지명의 구성¹⁸⁾

	구성	정혜공주 묘지명	정효공주 묘지명
序	① 부녀자의 덕을 중국 고사를 통해 전개	2행~3행 14자	2행~3행 9자
	② 공주의 조상과 부왕이 세운 위대한 업적 찬양, 공주의 고귀함과 아름다움	3행 15자~5행 19자	3행 10자~5행 5자
	③ 공주의 생애	5행 20자~11행 16자	5행 6자~10행 17자
	④ 공주의 죽음과 장례	11행 17자~14행	10행 18자~13행
銘	① 공주의 출신	15행	14행 시작~14행 34자
	② 공주의 고귀함	16행	14행 35자~15행 27자
	③ 공주의 혼인	17행	15행 28자~16행 18자
	④ 공주의 수절	18행	16행 19자~17행 13자
	⑤ 공주의 장례	19행	17행 14자~18행 7자
	⑥ 공주의 죽음에 대한 애도문	20행	18행 8자~끝

효의황후의 묘지명은 정혜·정효공주의 묘지명과 마찬가지로 발해 문왕 시기에 제작되었다. 상술하였듯 효의황후는 발해 문왕의 황후로, 문왕의 두 딸인 정혜공주·정효공주와는 가족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효의황후는 726년에 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738년생인 정혜공주의 경우 효의황후의 소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¹⁹⁾ 또한 두 공주의 묘지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효의황후의 묘지명이 약 250여 자 정도 내용이 더 많으며 사용한 전거나 표현 면에서도 정혜·정효공주의 묘지명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성의 측면에서는 효의황후의 묘지명과 두 공주의 묘지명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4> 효의황후 묘지명의 구성²⁰⁾

	구성	효의황후 묘지명	참고 (정혜·정효공주 묘지명의 구성)
序	① 부녀자의 덕을 중국 고사를 통해 전개	2행 시작 ~ 2행 47자	① 부녀자의 덕을 중국 고사를 통해 전개
	② 황후의 조상에 대한 정보, 황후의 고귀함을 밝힘	2행 48자 ~ 5행 19자	② 공주의 조상과 부왕이 세운 위대한 업적 찬양, 공주의 고귀함을 밝힘
	③ 황후의 생애	5행 20자 ~ 12행 2자	③ 공주의 생애
	④ 황후의 죽음과 장례	12행 3자 ~ 14행 47자	④ 공주의 죽음과 장례
銘	① 황후가 갖추어야 할 덕목	14행 48자 ~ 15행 34자	

18) 판독문은 송기호, 1992a, 앞의 글, 459~460쪽 및 1992b, 『貞惠公主 墓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Ⅲ(신라Ⅱ·발해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453~454쪽 참조. <표 3>은 송기호, 1992a, 앞의 글, 458쪽을 참조해 작성하였고, 행과 글자 수는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Ⅲ』에 따라 표기하였다.

19) 권은주, 2025, 앞의 글, 32쪽.

② 황후의 출신	15행 35자 ~ 16행 5자	① 공주의 출신
③ 황후의 고귀함과 아름다움	16행 6자 ~ 16행 39자	② 공주의 고귀함과 아름다움
④ 황후의 간택(혼인)	16행 40자 ~ 17행 16자	③ 공주의 혼인
⑤ 황후의 성품	17행 17자 ~ 17행 51자	④ 공주의 수절
⑥ 유교·불교를 숭상한 황후, 황후의 죽음	17행 52자 ~ 18행 26자	
⑦ 황후의 장례와 애도문	18행 27자 ~ 18행 34자	⑤ 공주의 장례, ⑥ 공주의 죽음에 대한 애도문

<표 4>는 내용에 따라 효의황후의 묘지명 구성을 분석하고 그를 정혜·정효공주 묘지명의 구성과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서문의 경우 정혜·정효공주 묘지명과 구성이 거의 같다. 명문의 경우도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효의황후의 묘지명이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인데, 우선 효의황후의 묘지명에서는 두 공주의 묘지명과 달리 첫 번째로 황후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묘지명의 서문 첫머리의 내용을 요약하여 담은 것이다. 효의황후 묘지명의 여섯 번째 명문에서는 황후가 생전에 유가와 불가를 모두 숭상하였다는 사실과 황후가 죽음을 맞이한 사실을 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문왕 대에 제작된 3건의 묘지명을 살펴보면 당시 발해에는 묘지명을 작성하는 양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에 따라 구성할 것인지는 공통적이었으나 지위 등에 따라 고사를 인용하는 방식 등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반해 순목황후 묘지명은 나머지 3건의 묘지명과 구성의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서술 분량의 차이가 큰데, 순목황후 묘지명의 경우 9행 141자에 불과하여 정혜·정효공주 묘지명의 약 1/5, 효의황후 묘지명의 약 1/7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3건의 묘지명이 모두 부녀자가 갖추어야 할 덕에 대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길게 전개하며 묘지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에 반해, 순목황후 묘지명은 묘지명의 주인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1행 시작 ~ 1행 7자).²¹⁾ 이후 짧게 부녀자의 덕에 대해 논하는 부분(2행 8자~3행 3자)과 황후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 이어진 후(3행 4자~3행 11자), 곧바로 황후의 죽음과 장례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3행 12자~6행 4자). 황후의 행적에 대한 서술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3건의 묘지명에서는 황후의 조상과 출신에 대한 정보가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 순목황후 묘지명에서는 황후의 장례 과정 다음에 해당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6행 5자~7행 12자). 명문 역시도 정혜·정효공주 및 효의황후의 묘지명보다 훨씬 간략하고 짧다. 정혜·정효공주 묘지명 및 효의황후 묘지명과는 달리 공격을 두어 간왕을 높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

20) 판독문은 기본적으로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 81쪽의 판독안을 따랐으나 권은주의 판독안(2025, 앞의 글)을 함께 활용하였다. 空隔(존귀 표시)는 글자 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21) 순목황후 묘지명의 판독문은 역시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69쪽)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권은주(2025, 앞의 글)와 강진원(2025, 앞의 글) 판독안을 함께 활용하였다. 空隔(존귀 표시)는 글자 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는다.

이처럼 순목황후 묘지명의 구성이 다른 3건의 묘지명과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묘지명 작성의 미숙함으로 이를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몇몇 표현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순목황후의 묘지명이 법도 혹은 격식에 잘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순목황후 묘지명은 제목이 “渤海國順穆皇后墓誌銘并序”인데 반해 다른 3건의 묘지명은 명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墓誌并序”로 끝나고 있다. 이는 당시 발해 사회가 묘지명 작성에 미숙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였음을 고려하면,²²⁾ 오히려 더욱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순목황후 묘지명이 좀 더 숙련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황상과 황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효의황후 묘지명에서는 황후의 죽음을 ‘薨’으로 표현한 것에 반해 순목황후 묘지명에서는 ‘崩’으로 표현한다는 점 역시 후자가 좀 더 격식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순목황후 묘지명의 내용이 다른 묘지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구성 또한 다른 이유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간왕에서 선왕으로의 왕위 계승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그 원인일 수 있는 것이다.²³⁾ 간왕이 재위 1년 만에 사망하고 왕계가 대야발계로 바뀌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혼란한 정국 속에서 순목황후는 ‘延平 2년’에 사망하여 “鮮卑不易山原”에 임시로 모셨다가 建興 12년(829)에 遷葬되었다. 이 중 ‘연평’은 기존에 발해의 연호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 순목황후의 사망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최근 연구에서 ‘연평’은 선왕 초의 연호이며 ‘연평 2년’은 818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²⁴⁾ 즉, 순목황후는 발해의 중심지가 아닌 곳에서 사망하여 임시로 모셔졌다가 10년이 넘어서야 왕실 구성원의 무덤이 모여 있는 현재의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으로 이장되었으며 묘지명도 그때 제작되었을 것이다.²⁵⁾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순목황후에 대한 정보가 묘지명을 작성할 만큼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 순목황후의 묘지명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제작된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으로는 선왕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일 수 있다. 효의황후나 정혜·정효 공주의 장례 및 묘지명 제작을 주관한 것은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문왕이었다. 장례를 주관한 문왕의 존재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황후 및 공주의 양식이 충실히 제작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I. 묘지명에 투영된 가치와 질서

상술한 바와 같이 순목황후 묘지명의 경우 묘지명 주인의 생전 행적에 대한 기술이 거

22) 鄒秀玉, 1983, 「渤海貞孝公主墓志并序考譯」, 『延邊文物資料編』, 68~81쪽.

23) 강진원, 2025, 앞의 글.

24) 강진원, 2025, 앞의 글, 101쪽. ‘연평’의 경우 선왕의 연호로 보는 경우가 다수이다(권은주, 2025, 앞의 글, 39쪽 각주 130번).

25) ‘延平’이 선왕의 연호가 아닐 경우 순목황후의 사망 시점과 천장 시점은 10년 이상의 시차가 나게 된다.

의 없어 황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추론하기가 어렵다. 상대적으로 내용이 더 자세한 정혜·정효공주와 효의황후의 묘지명을 통해서도 세 사람의 삶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기는 어렵다. 세 사람의 묘지명 역시 사건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신, 현재까지 확인된 4건의 발해 여성의 묘지명에서는 이상적인 여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해 사회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특히 묘지명에서 인용하고 있는 표현들의 전거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

A-1. 아내로서의 덕이 빛나고 빛나면 명예로운 이름이 후대에까지 있음을 어찌 기약할 수 없겠는가? 어머니로서의 모범이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자손이 받을 복[餘慶]²⁶⁾을 어찌 끝없이 모을 수 없겠는가? … (중략) … 六行을 크게 갖추고 三從이 빛났다.²⁷⁾

-「정효공주 묘지명」-

A-2. ④무릇 강의 섬[河洲]의 새는 시인이 그 조화로운 소리를 표현하며, 노부인의 전기는 집안에서 그 기이한 고사[掌故]를 기록한다. 窈窕를 자세히 구하고, 빼어남과 현명함으로 세워져, 행실과 공을 쌓아 왕의 교화[王化]를 거두고 도우니, ⑤后妃의 의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중략) … 덕화는 三宮에 미치고, 또한 어머니의 도리[母道]는 심히 자애로워 만백성을 적셨다.²⁸⁾

-「효의황후 묘지명」-

A-3. 신령한 계수나무 경관[桂景]²⁹⁾을 품고, 빛나는 은하[銀漢]를 당기어 덕은 어머니의 모범에 부합하고 행실은 부녀자의 도리[內則]을 이룬다. ⑥자웅이 서로 응하는 조화로[關關之化]³⁰⁾ 나라에 쓰이셨다.³¹⁾

-「순목황후 묘지명」-

발해 묘지명에서는 『詩經』, 『周易』, 『尙書』, 『春秋左氏傳』, 『禮記』 등 다양한 중국의 경전과 문헌을 활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³²⁾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을 살펴보다 보면 4건의 묘지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요소가 확인된다. A-1에서 A-3은 정효공주 및 효의·순목황후의 묘지명에서 관련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정혜공주 묘지명의 경우 정효공주

26) “餘慶”에는 “자손을 위한 복”이라는 뜻이 있다.

27) “豈非婦德昭昭，譽名期於有後，母儀穆穆，餘慶集於無疆。…(중략)… 六行孔備，三從是亮.”(송기호, 1992a, 앞의 글, 459쪽)

28) “粵若河洲之鳥，詩人表其和聲，爲魯夫人之傳，家錄其奇掌故。細求窈窕，立以英賢，積行累功，扶助王化，后妃之義，其在茲乎。… (중략) … 化被三宮，抑亦母道深慈，潤霑萬姓.”(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81쪽; 권은주, 2025, 앞의 글, 12~17쪽)

29) 桂景의 용례를 찾기 어렵다. 권은주는 “달 속에 있는 계수나무와 토끼”(2025, 앞의 글, 25쪽)로, 강진원은 “계수나무가 달과 연관된다는 데서 보자면 달빛을 의미하는 것”(2025, 앞의 글, 89쪽 각주 9번)으로 보아 모두 달과 관련 있는 존재로 해석하였다. 본문에서는 직역하였다.

30) “關關之化”는 『시경(詩經)』 관저(關雎)편 “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에서 나온 비유로 보인다(권은주, 2025, 앞의 글, 17쪽 각주 62번).

31) “稟靈桂景，引曜銀漢，德會母儀，行成內則。關關之化，用於邦國.”(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69쪽; 권은주, 2025, 앞의 글, 23~25쪽)

32) 정효공주 묘지명에서 활용하고 있는 중국 경전에 대해서는 방학봉, 1990, 앞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효의황후 묘지명에서 활용하고 있는 중국 경전에 대해서는 주신, 2026, 앞의 글 참조.

묘지명과 표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용하지 않았다.

인용한 사료를 살펴보면 발해 여성 묘지명은 대체로 아내로서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 A-1의 “아내로서의 덕이 빛나고 빛나면”, “삼종이 빛났다”, A-3의 “행실은 부녀자의 도리를 이룬다” 등의 구절이 바로 그 예이다.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모범 혹은 도리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A-1의 “어머니로서의 모범이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A-2의 “어머니의 도리는 심히 자애로워 만백성을 적셨다”, A-3의 “덕은 어머니의 모범에 부합하고” 등의 표현에서 그를 읽어낼 수 있다.

한편, 효의황후와 순목황후의 묘지명에서는 공통적으로 『詩經』 「周南·關雎」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A㉔와 A㉕는 모두 『시경』 「주남·관저」의 “關關雎鳩，在河之洲”에서 유래한 표현이기 때문이다.³³⁾ 『시경』 「관저」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두 황후의 묘지명에서 모두 해당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

『시경』은 고대 유교에서 예악 제도를 다루는 핵심 경전으로 인식되어 경학자들에게 특별히 중시되어 온 존재였고 그 중 첫 편인 「관저」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孔子가 「관저」에 유교적 맥락에 부합하는 문화적 의미를 부여한 이래 「관저」는 교화의 기능을 띠게 되었는데, 이는 다시 三家詩의 刺時說과 毛詩의 后妃之德說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전개되었다. 이 중 唐代에 「관저」를 이해하는 방식은 모시학파의 后妃之德說으로 황후가 후비의 덕을 갖추게 되면 곧 개인-가족-국가-천하의 질서관이 원활히 유지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관저」의 ‘후비지덕’은 「冊淑妃何氏爲皇后文」과 같이 당 황실 여성 관련 冊文에 인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³⁴⁾

이처럼 발해가 유교적 인륜관의 지속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자 특히 황실을 중심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던 중요한 덕목이었던 ‘후비지덕’을 발해 여성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을 두 황후의 묘지명에서 사용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의 유교문화권에서 황실 여성 관련 글쓰기에 요구되었던 관행 및 범례를 충실히 따라 ‘후비지덕’을 강조한 것이며, 동시에 유교적 예법과 인륜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A-2의 ㉔에서 “후비의 의로움”을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발해의 상류층은 왕실 구성원의 ‘죽음’을 통해 당시 정립되어 있었던 유교적 예법과 인륜관을 제도화하고 또 정당화하고자 하였음을 묘지명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³⁵⁾

그런데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갖추고 지킬 것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명에서는 남편에 관한 정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동시기 唐의 공주 묘지명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이례적인 일이다.

8세기를 전후하여 제작된 당나라 공주의 묘지명 몇 건을 살펴보자. 우선 唐 玄宗의 손녀이자 肅宗의 딸인 鄴國大長公主의 묘지명은 貞元 3년(787)에 제작되었는데 해당 묘지

33) 해당 구절 이후에는 “窈窕淑女，君子好逑”라는 표현이 이어진다. 이를 고려하면 A-2의 ‘窈窕’라는 표현 또한 『시경』 「관저」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4) 주신, 2026, 앞의 글, 98~101쪽.

35) 효의황후 묘지명에서는 유교적 관념뿐만 아니라 불교적 관념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정혜·정효공주의 묘지명에서는 전륜성왕의 관념이 보이기도 하며, 정효공주의 경우 아예 봉분 대신에 전탑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효의황후의 묘지명의 온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불교와 관련된 표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한다. 효의황후 묘지명에 등장하는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은 권은주, 2025, 앞의 글, 44~45쪽 참조.

명에는 공주의 남편이자 부마도위인 장청(張淸)의 출신과 가문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기록되어 있다.³⁶⁾ 17세에 혼인하였으나 19세에 요절하여 혼인 기간이 지극히 짧았던 淮陽公主의 묘지명(景雲 2년(711) 제작)에도 부마와 그 가문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³⁷⁾ 정혜·정효공주와 마찬가지로 3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한 宜都公主의 묘지명(貞元 19년(803) 제작)에도 역시 조서를 내려 친족과 인척 중에서 부마도위를 선택하여 혼인하였음이 드러나 있다.³⁸⁾ 당 덕종의 딸인 唐安公主의 묘지명(興元 元年, 784))에는 “위씨의 집안과 인연이 맺어졌다” 정도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나³⁹⁾ 이는 당안공주가 시집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涇原兵亂으로 인하여 피난을 가게 되었고, 질병으로 인해 공주가 피난 도중에 사망하였다는 특수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효공주의 묘지명에 남편에 대한 정보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원인을 당시 발해의 묘지명 작성 능력이나 수준의 부족에서 찾기는 어렵다. 두 공주의 묘지명에는 조부와 부친의 업적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⁰⁾ 작성 시기가 크게 차이하지 않는 효의황후의 묘지명이나 9세기 전반의 순목황후 묘지명에서도 황후의 조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남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⁴¹⁾ 특히 효의황후의 묘지명에서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황후의 부계 조상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⁴²⁾ 이는 당시 발해가 묘지명을 작성함에 있어 남성에 관한 정보도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정혜·정효공주보다 두 공주의 남편들이 먼저 사망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 상술한 담국대장공주의 경우 공주는 58세에 사망하였으나 남편은 공주보다 먼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⁴³⁾ 다만, 담국대장공주와 남편 사이에는 후사로 아들인 (張)怙가 있었으며 공주의 사망 당시까지 살아 있어 장례과정에도 관여하였다. 당시의 황제였던 唐 德宗이 고모인 담국대장공주의 장례를 직접 챙기기도 하였다.⁴⁴⁾

담국대장공주나 다른 공주들의 사례와 달리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경우 남편뿐만 아

36) “駙馬都尉范陽張淸，即玄宗之表姪。肅宗張后之愛弟，蟬聯戚屬，稠疊國姻，家列五侯，門榮三戟。世傾許史，時重金張，雖王鳳之輝華，郭況之豐富，無以尚也。”(周紹良 主編，1992, 「大唐故鄴國大長公主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下, 上海古籍出版社)

37) “年十有七，降於王氏。駙馬都尉·銀青光祿大夫·行司農少卿·琅琊王承慶，維原寶系，沂渚雄材。二十代之衣冠，四百年之富貴。”(西安碑林博物館 編·趙力光 主編，2007, 「大唐故淮陽公主墓誌銘并序」, 『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彙編』)

38) “詔擇親懿，允茲選尚。乃以皇姑故和政公主之少子柳昱，拜駙馬都尉而降嬪焉。”(周紹良·趙超 主編，2001, 「唐故宜都公主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39) “逮年甫有行，禮及釐降。錫之美號，是曰唐安。同姓諸侯，即開湯邑，高車使者，且擇勳華。聿求令族，方繫韋氏。”(西安碑林博物館 編·趙力光 主編，2007, 「故唐安公主墓誌銘并序」, 『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彙編』)

40) “惟祖惟父，王化所興，盛烈戎功，可得而論焉。若乃乘時御辨，明齊日月之照臨，立極握機，仁均乾坤之覆載。配重華而肖夏禹，陶殷湯而韜周文。自天祐之，威如之吉。”(송기호, 1991a, 앞의 글, 459쪽) 해당 구절은 정혜공주 묘지명과 정효공주 묘지명의 내용과 표현이 동일해 정효공주 묘지명만 인용하였다.

41) “祖諱長文，爲南海海守。父諱興節，爲中臺右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2025, 앞의 보고서, 69쪽; 권은주, 2025, 앞의 글, 24쪽 일부 수정)

42) “惟祖惟父，升闢將門，盡忠聖朝，以身許國。安邊之計，營平侯之大功，赴敵之心，李將軍之雄氣。剖符受印，襲軒冕而永傳，比山[擔]河，如帶礪而不絕。”(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2025, 앞의 보고서, 81쪽; 권은주, 2025, 앞의 글, 12~13쪽)

43) “而歡娛不駐，陳駟難留，芳蕙早凋，猗桐半折，形隨運化，張公先主而薨。”(周紹良 主編，1992, 앞의 글)

44) “天癸朝，中使臨弔。玉之禮，贈贈之恩，寵厚諸姑，有加一等。… (중략) … 嗣子怙，痛深樂棘，哀結寒泉，號毀絕漿，崩摧泣血…”(周紹良 主編，1992, 앞의 글)

나라 자식까지 요절하였다.⁴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父王인 문왕이 장례의 전반을 주관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묘지명 작성도 공주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묘지명의 작성 방식이나 그에 담겨 있는 유교적 관념을 받아들이고 또 정당화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질서가 온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하였던 발해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겠다.

IV. 묘지명에 드러난 장송의례

묘지명은 망자의 삶은 물론 망자를 보내주는 과정을 담고 있는 문자 자료이다. 발해의 장송의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사료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4건의 발해 묘지명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우선 4건의 묘지명 속에서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B-1. ①아아, 寶曆 4년(777) 여름 4월 14일 을미에 外第에서 임종하였으니, 나이는 40세였다. ②시호를 貞惠公主라고 하였다. ③보력 7년(780) 겨울 11월 24일 갑신에 珍陵의 西原에 陪葬하니, 예이다. ④皇上은 조회를 파하고 몹시 비통해 하며 正殿을 떠났으며 음악도 중지시켰다. ⑤장례를 치르는 의례는 관청에 명하여 갖추게 하였다. ⑥상여꾼의 목멘 울음은 논밭길 따라 머뭇거리고, 수레 끄는 말의 구슬픈 울음은 들판 따라 오르내리네. ⑦〈한나라〉 鄂長 공주처럼 榮譽를 높여 능묘를 넘게 하고, ⑧〈당나라〉 平陽 공주와 같이 은혜를 더하여 안치하였다[立厝]. … (중략) … ⑨千金과 한번 이별하기에 아쉬워, 만년의 세월에 한 척(尺)의 돌을 남기노라. 이에 명문을 새겨 말한다.⁴⁶⁾

-「정혜공주 묘지명」-

B-2. ①아아, 대흥 56년(792) 여름 6월 9일 임진에 外第에서 임종하였으니, 나이는 36세였다. ②시호를 貞孝公主라고 하였다. ③그해 겨울 11월 28일 기묘에 染谷의 西原에 陪葬하였으니, 예이다. ④皇上은 조회를 파하고 몹시 비통해 하며 正殿을 떠났으며 음악도 중지시켰다. ⑤장례를 치르는 의례는 관청에 명하여 갖추게 하였다. ⑥상여꾼의 목멘 울음은 논밭길 따라 머뭇거리고, 수레 끄는 말의 구슬픈 울음은 들판 따라 오르내리네. ⑦〈한나라〉 鄂長 공주처럼 榮譽를 높여 능묘를 넘게 하고, ⑧〈당나라〉 平陽 공주와 같이 은혜를 더하여 안치하였다[立厝]. … (중략) … ⑨千金과 한번 이별하기에 아쉬워, 만년의 세월에 한 尺의 돌을 남기노라. 이에 〈다음과 같이〉 銘文을 새겨 말한다.⁴⁷⁾

-「정효공주 묘지명」-

45) “稚子又夭, 未經請郎之日.”(송기호, 1992b, 앞의 글, 453~454쪽); “稚女又夭, 未延弄瓦之日.”(송기호, 1992a, 앞의 글, 460쪽)

46) “粵以寶曆四年夏四月十四日乙未終於外第, 春秋四十. 諡曰貞惠公主. 寶曆七年冬十一月廿四日甲申, 陪葬於珍陵之西原, 禮也. 皇上罷朝興慟, 避寢弛懸. 喪事之儀, 命官備矣. 挽郎嗚咽, 遵阡陌而盤桓, 轅馬悲鳴, 顧郊野而低昂. 喻以鄂長, 榮越崇陵, 方之平陽, 恩加立厝, …(중략)… 惜千金於一別, 留尺石於萬齡. 乃勒銘曰.”(송기호, 1992b, 앞의 글, 454쪽)

47) “粵以大興五十六年夏六月九日壬辰終於外第, 春秋三十六. 諡曰貞孝公主. 其年冬十一月廿八日己卯,

B-3. ①寶曆 2년(775) 2월 5일 무진에 文思堂의 側寢에서 돌아가시니, 춘추 50세이다. …(중략)… ③그해 겨울 10월 24일 갑신에 珍陵臺에 遷葬하니 예이다. ④皇上께서는 음악을 정지하시고, 반찬[簠]을 줄이셨으며, 朝를 폐하시고 대단히 슬퍼하셨다. ⑤東園의 秘器·羽葆·鼓吹를 하사하시고, 喪事의 의례에 모두 넉넉히 내려주셨다. ⑥수레와 말은 구름같이 맴돌고, 丹闕(궁궐)에 인사하고서 오르내렸으며, 깃발[旌旄]은 노을처럼 날리고, 靑門을 나서서 바람에 날렸다. ⑧簡翟과 같이 예를 준엄하게 하여 능을 만들고, 昭昭처럼 아름답게 안치하였다[立厝]. … (중략) … ⑨이에 명문을 만들어 말한다.⁴⁸⁾ -「효의황후 묘지명」-

B-4. ①延平 2년(?) 4월 24일에 돌아가시니, 鮮卑 不易山 언덕에 임시로 모셨다[殯]. ⑤典禮를 좇아 ③建興 12년(829) 7월 15일에 昭릉으로 옮겨 안장하니, 예이다. …(중략)… 그 덕과 아름다움을 기술하여 명을 지었다. 명에서 말한다.⁴⁹⁾ -「순목황후 묘지명」-

발해의 장송의례가 당나라, 구체적으로는 『大唐開元禮』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문왕 즉위 초인 738년, 발해에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唐禮』 등의 서적을 구해온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⁵⁰⁾ 나아가 정효공주 묘지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당개원례』와 장례 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기도 하다.⁵¹⁾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인용한 『대당개원례』의 내용 중 하나인 掩壙 부분은 6품 이하의 상을 치르는 내용에 속하는 구절이다.⁵²⁾ 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인용하여 발해의 장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4건의 묘지명을 비교해볼 때, 발해 왕실의 장례 과정을 총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음이 이미 권은주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⁵³⁾ 우선 해당 논저에서 파악한 과정

陪葬於染谷之西原，禮也。皇上罷朝興慟，避寢弛懸。喪事之儀，命官備矣。挽郎嗚咽，遵阡陌而盤桓，轅馬悲鳴，顧郊野而低昂。喻以鄂長，榮越崇陵，方之平陽，恩加立厝。荒山之曲，… (중략) … 惜千金於一別，留尺石於萬齡。乃勒銘曰。”(송기호, 1992a, 앞의 글, 460쪽)

48) “以寶曆二年二月五日戊辰，薨於文思堂側寢，春秋五十。愛昭昭淚，聖主傷心，懷切之懷，於斯爲慘。其年冬十月廿四日甲申，遷葬於珍陵臺，禮也。皇上徹懸，損簠，廢朝，慟昭。賜東園秘器·羽葆·鼓吹，喪事之儀，並皆優給。車馬雲轉，辭丹闕而低昂，旌旄霞飛，出靑門而飄颻。方之簡翟，禮峻營陵，喻以昭昭，嘉在立厝。… (중략) … 乃作銘曰。”(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81쪽; 권은주, 2025, 앞의 글, 14~16쪽)

49) “以延平二年四月廿四日崩，殯于鮮卑不易山原。率由典禮，建興十二年七月十五日，遷安昭陵，禮也。… (중략) … 述其德美爲銘。銘曰。”(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25, 앞의 보고서, 69쪽; 권은주, 2025, 앞의 글, 23~24쪽)

50) “二十六年六月二十七日，渤海遣使，求寫『唐禮』及『三國志』、『晉書』、『三十六國春秋』。許之。”(『唐會要』卷36)

51) 王承禮, 1985,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志”研究」下, 『博物館研究』1985-1.

52) “掩壙。掌事者以玄纁授主人，主人授祝，祝奉以入奠於靈座，主人拜稽顙。施銘誌石於壙門之內，置設訖，掩戶設關鑰，遂覆土三。主人以下稽顙哭，盡哀退，俱就靈所哭。掌儀者設后土祭於墓左，如後儀。”(『大唐開元禮』卷147, 六品以下喪之二) 본 구절에서는 묘지석을 광문의 안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4건의 발해 묘지명이 모두 묘문의 안쪽 연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일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53) 권은주, 2025, 앞의 글, 34~37쪽.

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사망일과 사망 장소를 제시함. 빈장 행위 혹은 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 ② 시호를 정하여 올림
- ③ 빈장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무덤에 안장함[大葬]
- ④ 장례 과정에서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왕의 의례 행위
- ⑤ 해당 관청에 명해 장례 의식을 정하고 물품을 갖추
- ⑥ 운구
- ⑦ 능묘의 조성
- ⑧ 입관 및 매장
- ⑨ 묘지명의 작성

다만, 묘지명에서는 실제 순서에 따라 장송의례의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③에 해당하는 구절은 빈장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무덤에 안장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이후로 장례의 절차라던지 물품을 내리는 일, 그리고 왕의 애도 행위와 능묘의 조성 등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⑧에 등장하는 “立厝”는 관을 안치하는 행위나 최종 매장의 행위로 보인다. 厝에는 “안치하다”, “임시매장” 등의 뜻이 있다. 단, 권은주의 지적처럼 능묘의 조성이 완료된 후 다시 임시로 매장하는 절차를 기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관을 안치한다거나 최종 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⁵⁴⁾ 실제로 厝가 최종적인 관의 안치 혹은 매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는 용례가 唐의 묘지명인 「大周故雍州萬年縣令孫公墓誌銘并序」 등에서도 확인된다.⁵⁵⁾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인 매장 행위인 大葬이 두 차례 기술된 것이 되므로 역시 순서에 따라 기술한 것은 아니다.

장례 과정의 일반적인 순서를 고려할 때 묘지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임종(①) → 장례 의식을 거행하고 물품을 갖추며 애도함(④, ⑤) → 능묘를 조성하고 묘지명을 작성함, 시호를 올림(⑦, ⑨, ②) → 운구(⑥) → 입관 및 매장(⑧, ③)

능묘 조성과 묘지명의 작성과 관련된 서술은 장송의례를 드러낸 부분의 가장 말미에 서술되고 있지만,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장례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능묘의 조성 및 묘지명의 작성이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호도 이 과정에서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장례 과정이 상당히 소략한 순목황후의 사례를 제외하고, 정혜·정효공주와 효의황후의 장례 과정에서는 문왕이 “조회를 폐하고 음악을 중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효의황후의 장례 과정에서는 “반찬의 숫자를 줄이기도” 하였다. 운구의 과정에서는 궁궐 내에서 임종을 맞이한 효의황후의 경우 궁궐을 돈 후 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조회를 폐하는 모습이 세 사람의 묘지명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세 사람의

54) 권은주, 2025, 앞의 글, 37쪽. 무령왕의 지석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최종 매장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등장한다고 하였다.

55) “以長安二年歲次壬寅十一月甲子朔廿一日甲申，權厝於洛城南費村之原，禮也。”(毛陽光·余扶危 主編，2013, 「大周故雍州萬年縣令孫公墓誌銘并序」, 『洛陽流散唐代墓志彙編』, 北九州中国書店)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바로 문왕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사례를 당나라의 묘지명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하였던 회양공주는 唐睿宗의 세 번째 딸로서 19세에 요절하였는데, 이때 황제가 조회를 폐하고 공주가 임종을 맞이한 사저로 사신을 보내어 조의를 표한 사실이 묘지명에 기록되어 있다.⁵⁶⁾ 담국대장공주의 경우 唐德宗의 고모이지만 덕종은 장례를 직접 챙기며 조회를 폐하고 역시 사신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였다.⁵⁷⁾ 父王이 자신보다 일찍 사망한 자녀의 상을 주관하거나 또는 가까운 친속의 장례를 직접 주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회를 폐하는 것이 장례의 절차 속에 편입되고 또 애도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다만, 발해에서는 궁궐이 아닌 바깥의 사제에서 사망한 공주에게 父王인 문왕이 사신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송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무엇일까. 모든 과정이 각각의 의미를 지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망자를 편안하게 안치하는 부분일 것이다. 즉, 무덤을 어느 곳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가 장례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무덤의 조성 위치와 관련된 문제는 珍陵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 관련이 있다. 정혜공주의 묘지명과 효의황후의 묘지명이 발견된 이후 공주와 황후가 묻힌 곳으로 표현되는 珍陵 혹은 珍陵臺의 실체와 위치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하고 또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위치와 관련해서는 정혜공주가 매장된 진릉과 효의황후가 천장된 진릉대의 위치를 옥정산 고분군과 용두산 고분군 중 어느 곳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진릉 및 진릉대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진릉을 특정인의 무덤으로 보는 견해와⁵⁸⁾ 수사적인 표현이나 지명으로 보는 견해로⁵⁹⁾ 나뉜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진릉 및 진릉대의 위치를 정확히 비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매장지와 함께 등장하는 표현에 주목하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B-1~4의 사료를 참조하면 정혜공주는 “진릉의 서원에 ‘陪葬’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정효공주는 “염곡의 서원에 ‘배장’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효의황후는 “진릉대에 ‘遷葬’하였다”라고 하였고, 순목황후는 “[진릉]으로 ‘遷安’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효의황후나 순목황후의 묘지명에 등장하는 遷葬이나 遷安이라는 표현을 보면 마치 이장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唐代의 묘지명에서 遷葬, 遷祔 등이 최초의 매장을 의미하는 사례가 상당히 확인된다고 한다.⁶⁰⁾ 따라서 효의황후의 경우 빈장 이후 묘지명이 발견된 현재의 위치에 정식 안장된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임시로 매장된

56) “以長安四年十月十六日，薨於洛陽永豐里之私第，春秋一十有九。…(중략)… 宸襟則輟朝興感，使臣則杖節而弔。”(西安碑林博物館 編·趙力光 主編，2007，「大唐故淮陽公主墓誌銘并序」，『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彙編』)

57) “貞元二年十月七日寢疾，薨於宣陽里之私第，享年五十八。…(중략)… 及薨也，天癢朝，中使臨弔。”(周紹良 主編，1992，「大唐故鄭國大長公主墓誌銘并序」，『唐代墓誌彙編』下，上海古籍出版社)

58) 王承禮，1957，「敦化六頂山渤海古墓群調查簡記」，『吉林省文物工作通訊』；王承禮·曹正榕，1961，「吉林敦化六頂山渤海古墓」，『考古』1961-6；王健群，1980，「渤海貞惠公主墓碑考」，『文物集刊』2；侯莉閏·李強，2002，「渤海珍陵新探」，『北方文物』2002-02；徐學毅，2003，「敦化六頂山“珍陵”新考」，『北方文物』2003-2；劉曉東，2013，「渤海“珍陵”問題的再檢討—紀念金毓黻先生逝世50周年」，『北方文物』2013-3。

59) 王志剛·張秀榮·林世香，2009，「關於渤海“珍陵”的兩點認識」，『東北史地』2009-4；권은주는 진릉대를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배로운 능대”를 뜻하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았다(2025, 앞의 글, 41쪽)。

60) 劉琴麗，2023，「再論唐代墓誌書寫中的權葬與遷葬」，『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6-6，74쪽 및 77~78쪽。

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임시 매장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에 묻힌 것으로 여겨지는 순목황후의 경우 이장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정혜·정효공주 묘지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바로 ‘陪葬’인데, 이는 근친·군신 관계 등을 맺고 있는 속에서 하위자가 상위자의 무덤 곁에 매장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아울러 배장의 기준이 되는 상위자의 묘역 내에 무덤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정혜공주 묘지명의 진릉과 효의황후 묘지명의 진릉대의 ‘진릉’이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혜공주의 묘지명에서 ‘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용두산 고분군에 진릉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옥정산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는 정혜공주의 무덤은 진릉의 묘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소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두 공주의 남편이 모두 공주보다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하지만⁶¹⁾ 공주는 부마인 남편보다 격이 높았기 때문에 ‘陪(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당나라 영태공주의 묘지명이다.

B-5. 粵二年歲次景午五月癸卯朔十八日庚申，有制，令所司備禮，與故駙馬都尉，合窆於奉天之北原，陪葬乾陵，禮也。⁶²⁾
-「大唐故永泰公主志銘」-

B-5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주와 부마도위는 ‘합장’하여 건릉에 ‘배장’되었다. 즉, 공주와 부마인 남편이 같은 무덤에 묻히는 것은 ‘합장’으로, ‘배장’은 명확히 자신보다 상위자인 황실 구성원의 무덤 옆에 묻히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역시 자신보다 상위자인 왕실 구성원의 무덤 곁에 묻혔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진릉’의 주인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선대 왕실 구성원의 무덤이 옥정산 고분군에 존재하고 있었고 정혜공주는 그 옆에 배장되었던 것이다. 정효공주의 경우 “염곡의 서원”에 배장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어 배장의 기준이 되는 ‘O陵’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정효공주 사망 당시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에 이미 효의황후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황후의 묘역에 묻힌 것을 표현하기 위해 ‘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³⁾

결국 공주들의 무덤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던 존재는 선대의 왕실 구성원, 즉 왕이나 왕비의 무덤이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왕실 구성원의 경우 선대의 무덤을 기준으로 매장할 장소를 선택하고 무덤을 조영함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현실 세계의 신분과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그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혜공주와 정효공주·효의황후·순목황후가 다른 지역에 매장된

61)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역주 기준.

62) 周紹良 主編，1992，「大唐故永泰公主志銘」，《唐代墓誌彙編》上，上海古籍出版社。

63) 이 경우 진릉과 진릉대는 같은 존재를 의미하거나 상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릉대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효의황후의 능이 조성되고 나서도 陵號가 붙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나 더 이상 추론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최근 새롭게 공개된 효의황후와 순목황후의 묘지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4건의 발해 왕실 여성 묘지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발해 묘지명의 양식을 탐구하고 묘지명에 함축되어 있는 발해 사회의 의도와 장송의례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선, 묘지명의 형식과 구성을 통해 발해 왕실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문왕 대에 제작된 정혜공주, 정효공주, 효의황후의 묘지명의 서문과 명문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9세기 전반에 제작된 순목황후 묘지명은 형태는 물론 구성과 분량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묘지명에 투영된 이상적인 여성상은 발해 상류층이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제도화하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묘지명은 『詩經』 등의 전고를 인용하여 ‘后妃之德’과 ‘母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유교적 인륜관을 통해 왕실의 권위와 사회적 질서를 정당화하려 했던 발해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공주들의 묘지명에서 남편에 관한 정보가 생략된 점 등은 유교적 질서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거나 발해만의 독자적인 사회 맥락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묘지명을 통해 장송의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명에서 나타나는 ‘陪葬’ 등의 표현을 고려하면 선대 왕실 구성원의 무덤을 기준으로 다른 왕실 구성원들의 매장 위치를 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죽음 이후에도 현실의 신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혜공주 묘지명⁶⁴⁾

[] : 추독 ㄴ : 공격(존귀 표시)

- [01] 貞惠公主墓[誌][并]序
- [02] [夫][緬][覽][唐][書][媯][汭][降][帝][女]之[濱][博][詳]丘傳魯[館]開王姬之筵豈非[婦]德[昭]〃 譽名期於有後母儀穆[〃][餘]
- [03] [慶][集][於][無][疆][襲][祉][之][稱]其斯之謂也ㄴ公主者我ㄴ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之第二女也惟[祖][惟]
- [04] [父][王][化][所][興][盛][烈][戎][功][可]得而[論][焉]若乃乘時御辨明齊日月之照臨[立][極][握]機仁均乾坤之覆載[配][重]
- [05] [華][而][肖][夏][禹][陶][殷][湯][而][韜][周]文[自]天祐之威如之吉公主稟靈氣於巫岳感[神][仙][於]洛川生於深宮幼聞[婉][嫕]
- [06] [瓊][姿][稀][遇][曄][似][瓊][樹][之][叢]花瑞質絕倫溫如崑峰之片玉早受女師之[教][克][比][思]齊每慕曹家之風[敦]詩
- [07] [悅][禮][辨][慧][獨][步][雅][性][自][然]ㄴㄴ好仇嫁[于]君子標同車之容義叶家人之[永][貞]柔恭且都履愼謙〃 簫樓
- [08] 之上[韻][調][雙][鳳][之][聲][鏡]臺之中舞狀兩鸞之影動響環珮留情組紉黼藻[至][言]琢磨潔[節]繼敬[武][於]勝里
- [09] [擬][魯][元][於]豪[門][琴][瑟][之]和蓀蕙之馥誰謂夫聲先化無終助政之謨稚子[又][夭]未經請郎之日公主出織
- [10] [室]而灑淚[望][空][閨][而][結][愁][六][行]孔備三從是亮學恭姜之信矢銜杞婦之[哀][悽][惠]于ㄴ聖人聿[懷]閔德而
- [11] 長[途]未半[隙][駒][疾][馳][逝]水[成][川]藏舟易動粵以寶曆四年夏四月十四日乙未[終][於]外第春秋四十諡曰
- [12] 貞惠公主寶曆七年冬十一月廿四日甲申陪葬於珍陵之西原禮也ㄴ皇[上][寵][朝]興慟避寢弛[懸]喪事
- [13] [之][儀][命][官][備][矣]挽郎嗚咽邊阡陌而盤桓轅馬悲鳴顧郊野而低昂喻以鄂[長][榮][越]崇陵方之平陽[恩]加
- [14] [立][厝]荒山之[曲]松[櫟][森]以成行古河之隈泉堂邃而永翳惜千金於一別留尺石於萬齡乃勒銘曰
- [15] 丕顯烈祖[功][等][一][匡][明][賞][愼][罰]奄有四方爰及君父壽考無疆對越三五囊括[成][康][其]一
- [16] [惟][主][之][生][幼][而][洵][美][聰][慧]非常博聞高視[北]禁羽儀東宮之姊如玉之顏薜華可[比][其]二
- [17] [漢][上][之][靈][高][唐][之][精][婉][轡]之態閭訓茲成嬪于君子柔順顯名鴛鴦[成]對鳳凰和鳴[其]三
- [18] [所][天][早][化][幽][明][殊][途][雙]鸞忽[背]兩[劍]永孤篤於潔信載史應圖惟德之行居貞且[都][其]四
- [19] [愧][桑][中][詠][愛][柏][舟][詩][玄][仁][匪][悅]白駒疾辭[奠]殯已畢即還靈輅魂歸人逝角咽笳悲[其]五
- [20] [河][水][之][畔][斷][山][之][邊]夜[臺][何][曉]荒隴幾年森〃 古樹蒼〃 野烟泉局俄悶空積悽然[其]六
- [21] 寶曆七年十一月廿[四]日

64) 송기호, 1992b, 앞의 글 및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판독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정효공주 묘지명⁶⁵⁾

☐ : 결락 ㄴ : 공격(존귀 표시) ” : 반복기호

- [01] 貞孝公主墓誌并序
- [02] 夫緬覽唐書媼降帝女之濱博詳丘傳魯館開王姬之筵豈非婦德昭 ” 譽名期於有後母儀穆 ” 餘慶集於無疆
- [03] 襲祉之稱其斯之謂也公主者我ㄴ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之第四女也惟祖惟父王化所興盛烈成功可
- [04] 得而論焉若乃乘時御辨明齊日月之照臨立極握機仁均乾坤之覆載配重華而肖夏禹陶殷湯而韜周文自天祐
- [05] 之威如之吉公主稟靈氣於巫岳感神仙於洛川生於深宮幼聞婉孌瓊姿稀遇曄似瓊樹之叢花瑞質絕倫溫如崑
- [06] 峯之片玉早受女師之教克比思齊每慕曹家之風敦詩悅禮辨慧獨步雅性自然☐☐好仇嫁于君子標同車之
- [07] 容義叶家人之永貞柔恭且都履慎謙 ” 簫樓之上韻調雙鳳之聲鏡臺之中舞狀兩鸞之影動響環珮留情組紉黼
- [08] 藻至言琢磨潔節繼敬武於勝里擬魯元於豪門琴瑟之和蓀蕙之馥誰謂夫聲先化無終助政之謀稚女又夭未延弄
- [09] 瓦之日公主出織室而灑淚望空閨而結愁六行孔備三從是亮學恭姜之信矢銜杞婦之哀悽惠于ㄴ聖人聿懷閭德
- [10] 而長途未半隙駒疾馳逝水成川藏舟易動粵以大興五十六年夏六月九日壬辰終於外第春秋三十六諡曰
- [11] 貞孝公主其年冬十一月廿八日己卯陪葬於染谷之西原禮也ㄴ皇上罷朝興慟避寢弛懸喪事之儀命
- [12] 官備矣挽郎嗚咽遵阡陌而盤桓轅馬悲鳴顧郊野而低昂喻以鄂長榮越崇陵方之平陽恩加立厝
- [13] 荒山之曲松檟森以成行古河之隈泉堂邃而永翳惜千金於一別留尺石於萬齡乃勒銘曰
- [14] 不顯烈祖功等一匡明賞慎罰奄有四方爰及君父壽考無疆對越三五囊括成康其一惟主之生幼而洵
- [15] 美聰慧非常博聞高視北禁羽儀東宮之姊如玉之顏薜華可比其二漢上之靈高唐之精婉鸞之態閭訓茲成
- [16] 嬪于君子柔順顯名鴛鴦成對鳳凰和鳴其三所天早化幽明殊途雙鸞忽背兩劍永孤篤於潔信載
- [17] 史應圖惟德之行居貞且都其四愧桑中詠愛柏舟詩玄仁匪悅白駒疾辭奠殯已畢卽還靈輜魂歸人
- [18] 逝角咽笳悲其五河水之畔斷山之邊夜臺何曉荒隴幾年森 ” 古樹蒼 ” 野煙泉局俄閤空積悽然其六

65) 송기호, 1992a, 앞의 글 및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판독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효의황후 묘지⁶⁶⁾

[] : 미확정 ㉔ : 결락 ㉓ : 공격(존귀 표시)

- [01] 孝懿皇后墓誌一首并序
- [02] 粵若河洲之鳥詩人表其和聲爲魯夫人之傳家錄其奇掌故細求窈窕立以英賢積行累功扶助㉓王化㉓
后妃之義其在茲乎㉓皇后鬱氏者本夏神鄉人也
- [03] 肅慎福地久号隼集之林崑崙勝區先稱虎臣之地惟祖惟父升闢將門盡忠㉓聖朝以身許國安邊之計營
平侯之大功赴敵之心李將軍之雄氣剖符受
- [04] 印襲軒冕而永傳比山[擔]河如帶礪而不絕㉓皇后[抽]形松岫[揚]神影於行雲吐秀桂檠揮奇耀於流月
春歸青谷花發紫巖學柳枝而纖纖居槐里
- [05] 而艷艷幼聞婉行長蘊惠仁語無戲言目不妄視以簡入侍以賢被㉓恩諸姬競推靡不崇仰慶雲年內乃人
徙居定都㉓龍泉勤承鳳曆立爲
- [06] 皇后助化㉓紫宮大度淵深高宇山峙祇修四德無闕組紃之功備踐十儀有聞環佩之響允聰允慧雅韻天
然乃溫乃良英才日就不飾粉
- [07] 黛逍遙道義之林不貴綺羅敦悅詩書之訓德高東國容類西施比馬后於蛾眉想樊姬於獸肉動之以禮操
之以貞君子好仇誰出其右
- [08] 覃思美政罷粧[諒]於春臺研精妙詞尋歡扇於秋句雖陰麗華之被寵慎夫人之奉恩彤史所書俱爲下第
加以遊心本覺戀味真如願
- [09] 乘般若之舟到涅槃之岸不妬不嫉明辨繩蛇深解深知細分巾鬼是以宣風之道排女節而先鳴護法之心
並曇稱而高視書契之後釋教已
- [10] 來或無德而有姿或學外而闕內未有我㉓后應感而生美艷絕倫德行皆備周覽內外之典專奉儒釋之資
禮佛誦經衛㉓主安國者也豈唯
- [11] 嬪則休要化被三宮抑亦母道深慈潤霑萬姓玉臺曉闌爛朱渌之新文珠簾夜開發芙蓉之[神]彩我㉓皇
聖明之化日照天臨我㉓后賢智之猷月行
- [12] 地載豈謂忽隨逝水俄動藏舟以寶曆二年二月五日戊辰薨於文思堂側寢春秋五十愛[㉔][㉔]淚㉓聖主
傷心悽切之懷於斯爲慘其年冬十月廿四日甲申遷葬於珍陵臺
- [13] 禮也㉓皇上徹懸損饌廢朝慟[㉔]賜東園秘器·羽葆·鼓吹喪事之儀並皆優給車馬雲轉辭㉓丹闕而低
昂旌旄霞飛出青門而飄颻方之簡翟禮峻營陵喻
- [14] 以[㉔][㉔]嘉在立厝平原之首髣髴神女之臺大河之隈連接蛟人之室白楊路上悲風度而悽寒青松隴頭
片雲凝而逆遘乃作銘曰
- [15] 擇㉓后之制禮備瓊篇窈窕淑女必取其賢國之成否靡不由然洲鳥之義㉓明主攸憐其一山川之感必有
英靈將軍之氣壯士之精六奇善略萬里長城衣冠之族帶
- [16] 礪之名其二[般]歟鬱后福地之隈玉樹貞質紅花始開行雲颺影流月徘徊纖纖學柳居里号槐其三藺在㉓皇
意入侍㉓紫宮椒房厚澤桂殿芳風深量
- [17] 瀉浪高宇懸峯道德緝熙美政時邕其四不借妝飾不貴綺羅動中規矩行從切磋美容甚偉淳直爲多味不

66) 권은주, 2025, 앞의 글의 판독문을 일부 수정하였음.

近獸艷眉如蛾其五研精般若棲念真如

[18] 崇貴儒釋內外經書忽然物化孤哀有餘霜飛窓寂月落屏虛其六廢朝徹樂皇望靈車去馬似雲飛旒寫
霞送葬之路薤歌接笳陵臺之裏長掩寒花其七

[19]

寶曆二年十月廿四日

순목향후 묘지⁶⁷⁾

[] : 미확정 ☒ : 결락 " : 반복기호

- [01] 渤海國順穆皇后墓誌銘 并序
- [02] 藺王皇后泰氏也稟靈桂景引曜銀潢德會母儀行
- [03] 成內則關 " 之化用於邦國而坤厚有傾月華時
- [04] 缺以延平二年四月廿四日崩殯于鮮卑不易
- [05] 山原率由典禮建興十二年七月十五日遷安
- [06] ☒陵禮也祖諱長文爲南海["]守父諱興節
- [07] 爲中臺右相述其德美爲銘 " 曰
- [08] 懿乎我后 嬪軌載揚 繁華早落
- [09] 娥彩沈藏 幽明永隔 重泉夜長

67) 권은주, 2025, 앞의 글 및 강진원, 2025, 앞의 글의 판독문을 종합하여 일부 수정하였음.

참고문헌

사료

『唐會要』, 『大唐開元禮』,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 사료 DB 금석문·문자 자료

저서 및 논문

- 강진원, 2025, 「『순목황후 묘지명』과 9세기 초 발해의 풍경」, 『한국고대사탐구』 51.
- 권은주, 2025, 「발해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90.
- 김종복, 2004, 「정혜·정효공주묘지, 발해사를 이야기하다」,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 박한제, 2014, 「魏晉南北朝-隋唐時代 葬俗·葬具의 變化와 墓誌銘 -그 資料的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75.
- 방학봉, 1990, 「『貞孝公主墓誌』에 반영된 儒家思想 연구」, 『한국학연구』 2.
- 방학봉, 1993a,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지에 대하여」, 『발해사연구』 1.
- 방학봉, 1993b, 「발해정효공주묘지병서에 대한 고역」, 『발해사연구』 1.
- 송기호, 1981, 「발해 정혜공주묘비의 고증에 대하여」, 『한국문화』 2.
- 윤선태, 2007, 「渤海 文字資料의 現況과 課題」, 『大東漢文學』 26.
- 주 신, 2026, 「문왕 시기 발해의 유교문화 수용 -『효의황후 묘지명』에 사용된 전고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84.
- 채희국, 1988, 「발해의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I(신라2·발해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龍市文物管理所 編著,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2004~2005, 2008年 發掘報告』, 文物出版社.
- 毛陽光·余扶危 主編, 2013, 『洛陽流散唐代墓誌彙編』, 北九州中国書店.
- 西安碑林博物館 編·趙力光 主編, 2007, 『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彙編』.
- 周紹良 主編, 1992, 『唐代墓誌彙編』上·下, 上海古籍出版社.
- 周紹良·趙超 主編, 2001,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 羅繼祖, 1983, 「渤海貞惠貞孝兩公主的墓碑」, 『博物館研究』 3.
- 劉琴麗, 2023, 「再論唐代墓誌書寫中的權葬與遷葬」,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6-6.
- 劉曉東, 2013, 「渤海“珍陵”問題的再檢討—紀念金毓黻先生逝世50周年」, 『北方文物』 2013-3.
- 徐學毅, 2003, 「敦化六頂山“珍陵”新考」, 『北方文物』 2003-2.
-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 1982-1, 吉林省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院.
- 閻萬章, 1956, 「“貞惠公主墓碑”的研究」, 『考古學報』 1956-2.
- 王健群, 1980, 「渤海貞惠公主墓碑考」, 『文物集刊』 2.
- 王承禮, 1957, 「敦化六頂山渤海古墓群調查簡記」, 『吉林省文物工作通訊』.
- 王承禮, 1979, 「敦化六頂山渤海墓清理發掘記」, 『社會科學戰線』 1979-3.
- 王承禮, 1982, 「唐代渤海“貞惠公主墓誌”和“貞孝公主墓誌”的比較研究」, 『社會科學戰線』 1982-1.
- 王承禮, 1984·1985,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研究」上·中·下, 『博物館研究』 1984-2, 3, 1985-1.
- 王承禮·曹正榕, 1961, 「吉林敦化六頂山渤海古墓」, 『考古』 1961-6.

- 王俠, 1985, 「貞惠公主墓與貞孝公主墓」, 『學習與探索』4.
- 鄒秀玉, 1983, 「貞孝公主墓志反映出的儒家思想」, 『博物館研究』3.
- 侯莉閩·李強, 2002, 「渤海珍陵新探」, 『北方文物』2002-02.

박유정, 「발해 묘지명에 드러난 亡子の 삶과 장송의례」에 대한 토론문

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이 글은 1949년 이후 발해 지역에서 발견된 황후묘지명 2점, 공주묘지명 2점, 총 4점의 묘지명문을 비교 검토하여 묘지명의 구성과 특징, 묘지명에 반영된 당시 사회의 가치와 질서 및 장송의례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발표자는 이번 검토를 통해 묘지명의 분량 차이 원인은 비정상적 왕위 계승이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찾았고, 묘지명 내용은 유교적 가치 질서 제도화 과정에서 발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발표자의 연구 방법은 사료가 부족한 발해사 연구 환경에서 매우 유의미한 접근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접근과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두 황후의 묘지명 전문이 발굴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덕분이다. 불과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 발표문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 연구가 발표된 점은 발해사학계에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소중한 연구 결과물을 공유해 주신 발표자 및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라사학회에도 감사드린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 소임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혹여 발표자의 논지를 오독하거나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효의황후 묘지명 글자수와 관련하여, 보고서 80쪽에서는 19행 981자라고 하고 있고, 동서 213쪽에서는 998자라고 하였는가 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권은주는 19행 981자, 길림대학 팽선국은 2026-2, 「渤海国孝懿皇后与顺穆皇后墓志相关问题初探」, 『사회과학전선』 124쪽에서 묘비의 재원은 보고서와 동일하지만 본문(정문)의 분량에 대해서는 18열 1,175자로 발표하여 검토하였다. 보고서 내에서도 글자수에 대한 혼란이 확인되는데, 보고서에서는 “爲魯夫人傳”을 “爲魯夫人之傳”로 하여 “之”자를 추가하였고, 9행 “以到涅槃之岸”에서 “以”자를 누락하여 총 19행 981자로 보고한 것이고, 후자는 이와 반대이다. 보고서 213쪽에서 998자라 한 것은 존송의 의미로 띄어 쓴 부분을 글자 수에 포함한 것이지만, 팽선국의 논문에서 1,175자 보고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효의황후 묘지명의 재질과 문체에 대해서는 팽선국의 상동 논문, 동일 쪽에서 “사암질”, 문체는 “해서체”로 기술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2. 84쪽의 “우선 효의황후의 묘지명에서는 두 공주의 묘지명과 달리 첫 번째로 황후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묘지명의 서두는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황후 일생에 대한 종합평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3. 86쪽 A-2의 “抑亦母道深慈, 潤霑萬姓” 및 A-3의 “德會母儀, 行成內則. 關關之化, 用於邦國”에서의 “母”를 단순히 어머니가 아닌 “潤霑萬姓” 또는 “關關之化, 用於邦國”와의 관련성에서 “황후로서, 또는 국모로서”로, A-1의 “母儀穆穆, 餘慶集於無疆”의 “母”와는 달리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

4. 참고로 86쪽 A-3의 “桂景”에 대해서 그 직접적 형태는 남송 시기 향주의 서호 주변 경관, 특히 曲院風荷·柳浪聞鶯 일대 宮苑을 설명하는 글에서 보이고, 이 글에 인용된 <武林舊事>에서 園有會芳殿·瀛春堂·攬遠堂·芳華亭·瑤津·翠光·桂景·灩碧涼觀·瓊芳·彩霞·寒碧·柳浪橋·學士橋 라고 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계경은 “계수나무 꽃을 볼 수 있는 정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당·송대 황후 冊文에서도 桂華, 桂景, 桂輝, 桂芳, 桂德 등 신성함, 청아함, 고결함, 德馨을 의미하는 계수나무와 관련된 표현을 종종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궁중 원림에 계수나무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궁중, 후비, 귀인의 상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본문에서의 “품령계경”은 “신령한 계수나무와 같은 고결한 덕성을 타고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87쪽 “요컨대 발해의 상류층은 왕실 구성원의 ‘죽음’을 통해 당시 정립되어 있었던 유교적 예법과 인륜관을 제도화하고 또 정당화하고자 하였음을 묘지명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한 서술, 89쪽의 “중국으로부터 묘지명의 작성 방식이나 그에 담겨 있는 유교적 관념을 받아들이고 또 정당화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질서가 온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하였던 발해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서술의 의미가 상류층에서 상당 정도의 유교적 질서가 반영되었지만 완벽하게 중국화 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왕 즉위 초 『당례』 및 『삼국지』, 『진서』, 『삼십육국춘추』 등을 구해 오게 한 기록 등을 볼 때 이들 서적이 발해의 국가 제도 완비 또는 통치이념 확립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묘지명에서 남편의 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에 기초하여 792년에 이르기까지 예법 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게 해석이 아닌가 한다.

6. 90쪽 각주 52)의 掩壙에 대해서는 『대당개원례』 권139 흥례, 권 143 흥례, 권 147 흥례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발표자가 언급한 것과 같이, 147 흥례에서는 6품 이하에 해당하는 기록을 담고 있고, 139에서는 동일 내용을 3품 이상, 143에서는 4품·5품의 상과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발표자가 제시한 “엄광”과 관련하여 3품 이상에서는 “~施銘誌石於壙門之內”을 “~施銘旌誌石於壙門之內”으로, ~掌儀者設后土祭於墓左를 ~掌儀者設祭后土於墓左로 기술하였고, 4품·5품의 그것에서도 6품과는 달리 施銘旌 및 ~設祭后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90쪽 각주 52) 부분에서 왕승례의 연구 성과(왕승례, 1985-1, 『박물관연구』; 『고구려발해연구집성』 발해3, 307쪽)에서 인용한 이 부분이 “6품 이하에 준하는 기준을 상위 품계에 적용한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여 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인용하여 발해의 장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7. 92쪽 “父王이 자신보다 일찍 사망한 자녀의 상을 주관하거나 가까운 친속의 장례를 직접 주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폐하는 것이 장례의 절차 속에 편입되고 또 애도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와 관련하여, “輟朝”와 관련해서는 관료의 경우 3품 이상일 경우 철조의 대상이 되었고, 공주나 친왕의 경우도 『全唐文』 卷五百四十 『清嘉慶內府刻本』 <代太原李僕射慰義章公主薨表> “得進奏院狀報，義章公主今月九日薨，輟朝七日者”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예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신라 묘지명 자료의 희소성과 사후 인식

이 동 주
(경북대학교)

-
- I. 머리말
 - II. 신라 묘지명 자료의 현황과 성격
 - 1. 영주 순흥 어숙묘 묵서명
 - 2. 영주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묵서명
 - 3. 건녕2년명 석각
 - 4. 경주 용강동 6호 돌방무덤 출토 지석
 - III. 문헌으로 본 신라인의 사후 인식
 - IV. 묘지명의 희소성과 사후 인식
 - V. 맺음말
-

I. 머리말

묘지명은 죽은 자의 신원과 생전 행적, 사상과 덕행을 일정한 규격의 묘지석에 새겨 무덤 안에 매납한 장송 문자자료이다. 이러한 기록은 훗날 예기치 못한 변고로 무덤의 표지가 사라지거나 피장자의 신원이 망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죽은 자의 행적과 공덕을 오래도록 전승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¹⁾ 망자의 행적과 공덕을 기리는 방식은 크게 묘역 외부에 묘비를 세우는 방식과 무덤 내부에 묘지명을 매납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일정 수의 묘비가 확인되는 반면, 묘지명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 이는 신라 사회에서 죽은 자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문자문화가 존재하였음에도 묘지명 매납이 보편적인 장송문화로 정착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신라 내부의 이러한 양상과 달리, 중국에서는 재당 신라인의 묘지명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²⁾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李璆夫人京兆金氏 墓誌銘」, 「郭公姬薛氏 墓誌銘」, 「金日晟 墓誌銘」, 「清河縣君金氏 墓誌銘」, 「金泳 墓誌銘」 등이 있다. 이 중 「金日晟 墓誌銘」은 묘주의 자가 日用이었으므로, 연구자에 따라 「金日用 墓誌銘」으로도 지칭된다. 우선 「李璆夫人京兆金氏 墓誌銘」을 통해 김씨부인의 4대 가계와 신라 왕족의 입당·정착 과정, 시조 관념, 장안 거주 재당신라인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³⁾ 그리고 「清河縣君金氏 墓誌銘」의 검토를 통해 실물이 남아 있는 가장 이른 재당 신라인 묘지명이며, 김씨의 가계·혼인·책봉·당 사회 정착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자료임이 지적되기도 하였다.⁴⁾ 「金日晟 墓誌銘/金日用 墓誌銘」을 통해 문헌에 보이지 않던 신라 왕족 김일용의 당 숙위 활동과 장안 정착, 귀국 좌절 및 당에서의 생애를 복원하기도 하였고,⁵⁾ 최근 「金泳 墓誌銘」 검토를 통해 신라 왕족의 장안 정착과 질자 세습, 당·신라 외교 참여,⁶⁾ 가계 복원,⁷⁾ 묘실 구조와 장례 환경⁸⁾까지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만 「郭公姬薛氏 墓誌銘」은 실물은 현존하지 않지만 문헌에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⁹⁾

다만 신라 지역에서도 수량은 많지 않지만 묘지명 및 그와 관련된 문자자료가 일부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영주 순흥 어숙묘 묵서명, 영주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묵서명, 건녕2년명 석각, 경주 용강동 6호 석실분 출토 지석을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중국식 묘지명의 정형을 온전히 갖춘 것은 아니지만, 무덤 내부 또는 장송 공간에 연대·인명·관등·피장자 정보를 기입하였다는 점에서 묘지명 문화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신라 묘지명 관련 자료가 극히 드문 반면, 중국에서는 재당 신라인의 묘지명이 다수 확인된다. 이는 신라인이 묘지명 형식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신라 내부와

1) 남종진, 2004, 「中國 墓誌銘 起源考」, 『중국어문학논집』 26, 699~700쪽.

2) 권덕영, 2021a,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자료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b,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3a, 『중국 금석문으로 한국 고대사 읽기』, 학연문화사.

3) 권덕영, 2009, 「〈大唐故金氏夫人墓銘〉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54.

4) 이영호, 2009, 「在唐 신라인 金氏墓誌銘의 검토」, 『신라사학보』 17.

5) 김영관, 2013, 「在唐 新羅人 金日用 墓誌銘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27; 권기현, 2020, 「8세기 중엽 신라의 對唐關係 -在唐 新羅人 金日晟 墓誌銘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5.

6) 김영관, 2025, 「在唐 新羅人 金泳(747~794) 墓誌銘 檢討」, 『신라사학보』 65; 夏培朝·魏鉞 著(김영관 역), 2025, 「唐의 新羅質子 金泳 墓誌 考略」, 『한국고대사탐구』 50.

7) 박주선, 2025, 「재당신라인 金泳의 가계 복원 시론 -「金泳墓誌銘」을 단서로-」, 『歷史學研究』 99.

8) 배노찬, 2025, 「묘지명과 고고자료로 본 在唐 新羅人 金泳」, 『한국고대사연구』 119.

9) 권덕영, 2023b, 「신라 관련 중국 금석문 검토」, 『중국 금석문으로 한국 고대사 읽기』, 학연문화사, 97쪽.

당 사회에서 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신라와 중국의 교류 양상을 고려하면, 신라 사회가 묘지명 문화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라 묘지명의 희소성은 단순한 자료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신라 사회의 장례 실천과 사후 인식의 성격을 검토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라 묘지명의 희소성에 주목하고, 그 배경을 신라인의 사후 인식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국내에서 확인되는 신라 묘지명 및 관련 문자자료의 현황을 정리하고, 그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 III장에서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신라인의 사후 인식을 검토하여 죽은 자의 존재와 내세 이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핀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신라에서 묘지명 문화가 보편적인 장례 관행으로 정착하지 못한 배경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신라 묘지명의 희소성을 단순한 자료의 결핍이 아니라, 중국과 구별되는 신라인의 죽음 이해와 사후 기억 방식이 반영된 역사적 현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II. 신라 묘지명 자료의 현황과 성격

신라 묘지명 자료는 중국 및 고려시대 묘지명에 비해 수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신라 묘지명 또는 묘지명적 성격을 지닌 문자자료로 거론할 수 있는 사례는 영주 순흥 어숙묘 묵서명, 영주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묵서명, 건녕2년명 석각, 경주 용강동 6호 돌방무덤 출토 지석 등을 거론할 수 있을 듯 하다. 이들 자료는 모두 피장자의 생애와 계보, 관력, 장례 경위 등을 갖춘 정형화된 묘지명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연대, 인명, 관등 또는 매장 주체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덤 내부 또는 장송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라 사회의 묘지명 수용 양상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 영주 순흥 어숙묘 묵서명

영주 순흥 어숙묘 묵서명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95번지에 위치한 어숙묘에서 확인되었다. 어숙묘는 신라 지역에서 보기 드문 6세기 벽화고분으로, 1971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순흥 지역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¹⁰⁾ 현실 석문 뒷면의 문고리 구멍 부근에 약 4cm 크기의 글자로 “乙卯年 於宿知述干”이라 묵서되어 있다. 글자 안쪽에는 주철 흔적이 남아 있으며, 乙卯年과 於宿知述干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어 간지와 인명·관등을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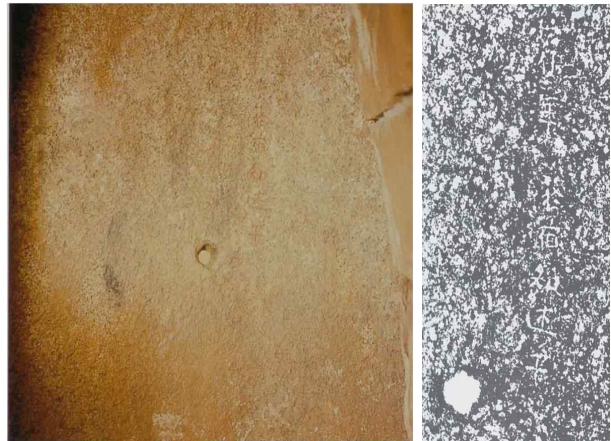
발견 초기에는 명문의 乙卯年을 535년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우세하였다.¹¹⁾ 그런데 신라 중고기 금석문의 연대 설정에서 외위명에 동반되는 支의 유무는 연대 비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즉 干支의 支는 대체로 561년을 전후하여 탈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述干支가 아니라 述干으로 표기된 이 명문을 535년으로 소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²⁾ 이후 연구에서도 ‘年’이라는 연대표기와 외위인 ‘述干’의 표기 양상을

1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榮州順興里壁畫古墳發掘調査報告』.

11) 김원룡, 1986, 『한국고고학개설』(제3판), 일지사, 226쪽.

근거로 대체로 6세기 후반, 곧 595년으로 보고 있다.¹³⁾

참고로 <도 1>은 어숙지 술간묘의 명문과 탁본을 제시한 것이다.¹⁴⁾ 명문은 현실 내부에서 바깥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새겨져 있다. 이러한 위치는 산 자가 외부에서 무덤 안을 향해 읽는 방식보다는 무덤 안의 죽은 자가 바깥을 향하는 시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듯한 인상을 준다.



<도 1> 순흥 어숙지 술간 명문 및 탁본

명문은 乙卯年(간지)+於宿知(인명)+述干(관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을묘년에 돌아가신 어숙지 술간”으로 해석된다. 어숙지가 분묘의 조성자인지

묘주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명문이 현실 북벽 동남쪽 모서리의 門扉 내면에 쓰이고 주철로 마감되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는 이 명문이 단순한 식별 표지에 그치지 않고, 장송 공간 안에서 주술적 의미를 지닌 문자 행위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서가 주로 명계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誤字 수정 등 비일상적 상황에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¹⁵⁾ 어숙지를 묘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따라서 이 묵서명은 사망 연대와 묘주의 이름, 생전 관등을 핵심 정보로 담은 장송 관련 문자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피장자의 생애를 서술한 정형화된 묘지명은 아니지만, 무덤 내부에 연대·인명·관등이 직접 기입되었다는 점에서 신라 장송 공간에서 문자가 활용된 초기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명문에 보이는 述干은 신라 外位の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위는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京位와 달리, 지방 유력자 또는 복속 지역의 세력을 신라 지배체제 안에 편제하기 위해 부여된 관등이었다. 그 가운데 술간은 외위의 제2등급에 해당하며, 경위의 沙湊에 상응하는 지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어숙지가 술간의 외위를 지녔다는 사실은 6세기 후반 신라가 영주 일대의 지방 유력자 또는 복속 세력을 관등제 안에 포섭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어숙묘 묵서명은 단순히 피장자의 신분을 표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신라의 지방 지배와 외위제 운영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2. 영주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묵서명

영주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묵서명 역시 신라 묘지명 문화를 논의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할 자료이다. 이 고분은 1985년 1월 대구대학교 이명식 교수가 영풍군 지역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였고, 같은 해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대구대학교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이 합동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¹⁶⁾ <도 2>는 순흥 읍내리 벽화고

12) 金昌鎬, 1995, 「順興 己未銘 壁畫 古墳의 築造年代」, 『順興邑內里壁畫古墳』, 212쪽.

13) 許興植 編, 1984, 「新羅於宿墨書」, 『韓國金石全文(古代)』, 亞細亞出版社, 51쪽; 李明植, 1992a, 「於宿知述干墓 墨書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신라1·가야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쪽; 김재홍, 2019, 「함안 성산산성과 출토 목간의 연대」, 『목간과 문자』 22, 26쪽.

14)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 -新羅人の 記録과 筆跡-』(특별전 도록), 41쪽.

15) 이동주, 2023, 「한국 고대 朱書 자료의 검토」, 『동국사학』 77, 47~71쪽.



<도 2>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묵서 모사도

분 명문의 모사도이다. 명문은 남벽 서단 상부, 삼지창형 깃대 끝 바로 왼쪽에 종서로 묵서되어 있다. 특히 그 위치는 어숙지 술간묘 묵서명과 마찬가지로 현실 내부에서 바깥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해당한다.

묵서명은 고분 남벽 서단 상부, 삼지창형 깃대 끝 바로 왼쪽에 종서로 쓰여 있었으며, 초기 판독문은 일반적으로 “己未中墓像人名 □□”으로 읽었다. 그래서 ‘己未中’이라는 간지는 무덤의 축조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문자 자체의 고졸함을 근거로 419년으로 보거나,¹⁷⁾ 고구려 고분 벽화와 비교해서 539년,¹⁸⁾ 599년¹⁹⁾ 등 다양하다. 한편 己未의 未를 亥로 보아 579년으로 보기도 하며,²⁰⁾ 6세기 전반인 519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²¹⁾

우선 명문은 “己亥中墓像人名 未羊~”으로 판독될 수 있을 듯 하다. 마지막 부분에도 분명 획이 확인되며, 흔히 문장을 종결할 때 쓰이는 일종의 부호이기 때문이다. 간지는 未보다는 亥에 가깝다. 간지 뒤의 中은 ‘~에’를 표현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기해(년)에’의 의미가 된다. 墓像人/名으로 끊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墓像/人名도 가능하나 신라 금석문 가운데 ~人이라는 용례가 흔히 확인되며, 인물의 이름을 人名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과문한 탓인지 보이지 않는 듯 하다.²²⁾ 名은 이름을 의미하며, 그 다음 행 未羊~은 이름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未의 우측 상단에 四가 보이며, 羊은 洋 혹은 弟로 읽혀질 수도 있다고 한다.²³⁾ 다만 묘주인지, 그림의 주인공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벽화고

16) 大邱大學校博物館, 1995, 『順興邑內里壁畫古墳』, 3쪽.

17) 임창순, 1986, 「순흥 벽화고분에 있는 문자」, 『順興邑內里壁畫古墳』,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10쪽.

18) 김원룡, 1986, 앞의 책, 226쪽; 李明植, 1986,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의 역사적 환경」, 『順興邑內里壁畫古墳』,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27쪽; 1992b, 「順興 邑內里 壁畫古墳 墨書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신라1·가야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8~199쪽.

19) 町田章, 1987, 『古代東アジアの裝飾墓』, 同朋舍, 248쪽; 김창호, 1987, 「중원고구려비의 재검토」, 『한국학보』 47, 148쪽; 金昌鎬, 1989, 「順興 己未銘 壁畫古墳의 築造」, 『釜山市立博物館年報』 11; 1995, 앞의 글, 215쪽. 한편, 김창호는 591년 남산신성비의 亥자는 庀로 표기되고, 539년 천전리서석 추명이나 551년 명활산성비에서는 이체자가 아니라 未로 쓰고 있으므로 亥가 아니라 未로 판단하였다(1995, 앞의 글, 212쪽).

20) 東潮, 1987, 「新羅·於宿知述干壁畫古墳に關する一考察」,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 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 上, 同朋舍, 525쪽.

2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사료 DB, 「영주 순흥 벽화 고분 묵서명」 해제(작성자: 김재홍).

22) 「集安高句麗碑」에 人名이 보이나, 이름이 아니라 20인의 명단이다. “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示後世自今以後(…에 비를 세우고, 그 烟戶頭 20인의 명단을 새겨서 후세에 보인다).”

분의 그림이나 묵서는 묘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명문의 구조는 己亥中/墓像人/名不羊/~이며, 해석은 “기해(년)에 묘상인의 이름은 不羊.”정도가 되지 않을까한다. 다만 묘주가 지방의 유력자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숙지 술간처럼 관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의아하다.

순흥 일대가 일찍부터 신라의 중앙 권력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은 문헌과 출토문자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먼저 『三國史記』 박제상 열전에 따르면, 눌지왕은 고구려와 왜에 불모로 가 있던 두 아우를 귀환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주촌간 벌보말, 일리촌간 구리내, 이이촌간 파로를 불러 자문하였다.²⁴⁾ 이 가운데 수주촌은 신라 수주군, 곧 현재의 경북 예천 일대와 관련되며, 일리촌은 일리군·성산군과 연결되어 현재의 고령군 성산면 또는 성주 일대로 비정된다. 이이촌은 위치 비정이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않지만, 영주 또는 순흥 일대의 토착 세력과 관련지어 보는 견해가 있다.²⁵⁾ 이처럼 세 인물은 모두 지방 촌 단위의 유력자로 이해되며, 박제상 천거 기사는 5세기 신라에서 지방 세력이 중앙의 외교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하게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6세기 후반 무렵으로 비정되는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도 일정하게 확인된다. 성산산성 출토 하찰목간에는 及伐城을 발신지 또는 납부자의 소속지로 적은 사례가 보이며,²⁶⁾ 及伐城을 현재의 영주시 순흥면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²⁷⁾ 이 목간들은 급벌성에 속한 인물이 성산산성으로 곡물을 납부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순흥 일대에 비정되는 지방 단위가 6세기 중엽 신라의 물자 수취 체계 안에 편제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헌 기록과 출토문자 자료를 함께 고려하면, 순흥 일대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신라 중앙 권력과 연결된 지방 유력층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순흥 어숙묘 묵서명에 보이는 어숙지 역시 이러한 지역적·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숙지는 단순한 지방 인물이 아니라, 신라의 지방 지배 질서에 포섭되어 술간이라는 외위를 부여받은 순흥 일대의 유력자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

3. 건녕2년명 석각

건녕2년명 석각은 1957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월성군 천북면 북군리 성지, 현재의 영주시 보문동 56번지 명활성 일대에서 발견되었다. 크기는 높이 21cm, 너비 10.2cm, 두께 5.8cm이며, 약 4cm 크기의 글자로 “乾寧二年乙卯年 / 前城山令裴處崇”이라는 명문이 2행에 걸쳐 새겨져 있다. 乾寧 2년은 당 소종의 연호로, 895년이자 신라 진성왕 9년에 해당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 3>은 건녕 2년명 각석과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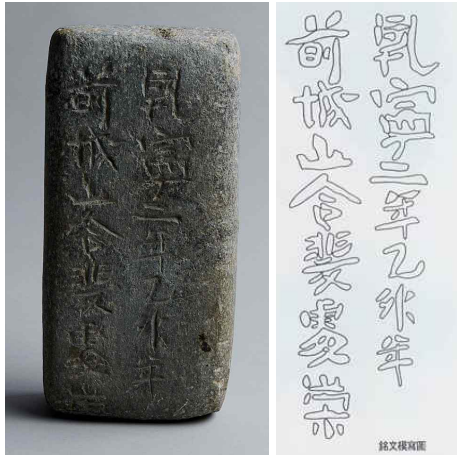
23) 大邱大學校博物館, 1995, 앞의 보고서, 88쪽.

24) “及訥祗王即位, 思得辯士, 往迎之. 聞水酒村干 伐賣靺·一利村干仇里迺·利伊村干波老三人有賢智. 召問曰, “吾第二人, 質於倭·麗二國, 多年不還. 兄弟之故, 思念不能自止. 願使生還, 若之何而可.” 三人同對曰, “臣等聞敵良州干堤上, 剛勇而有謀, 可得以解殿下之憂.”(『三國史記』卷45, 列傳5 朴堤上)

25) 김철준, 1990,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38쪽.

26) 「及伐城□乃巴稗▽」(7호), 「及伐城秀乃巴稗」(8호), 「及伐城□□稗石▽」(42호), 「及伐城只智稗一石▽」(74호), 「及伐城△伊稗一石▽」(80호), 「及伐城文尸伊稗石▽」(2007-23호), 「及伐城文尸伊鳥伐只稗石▽」(2007-24호), 「及伐城登奴稗石▽」(2007-42호), 「及伐城田沙利稗石▽」(함안 성산산성Ⅳ-590호).

27) 이경섭,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地名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 23, 535~578쪽.



處					
	晉 王獻之	晉 庾翼	晉 劉超	唐 太宗	唐 高宗
零					
	唐 褚遂良	唐 褚遂良	元 趙孟頫	宋 薛紹彭	明 唐寅

<도 3> 건녕 2년명 각석(慶州9841)

이 자료의 성격은 애초 묘지로 파악하였지만,²⁸⁾ 발견 지점이 명활성 인근이라는 점에서 석성을 축조하면서 책임자의 이름을 새긴 기록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²⁹⁾ 이로 인해 한동안 명활성 축성과 관련된 각자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축성비로 보기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축성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³⁰⁾ 그 성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제 자료의 크기와 문장 형식으로 볼 때, 축성비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축성비라면 축성에 참여한 집단, 분담 구간, 구역의 성격 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명문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前城山令’이라는 전임 관직의 인물이 축성 책임자로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석각이 발견된 곳은 명활성 일대였다. 근자에 명활성 복문지 인근을 대대적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복문을 넘어 바로 횡혈식 석실분이 조영되었다.³¹⁾ 이 현상은 비담의 난 이후 명활성을 철저히 파괴한 결과였을 것이다.³²⁾ 따라서 명활성 인근에 조영된 석실분에서 노출된 묘지가 1957년 무렵 수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한다. 명문의 내용도 연대+관직+인명의 간명한 구조를 지니며, 이는 앞서 살펴본 어숙지 술간 묵서명의 연대+인명+관등 구조와 상통한다. 따라서 이 자료는 축성 관련 각자라기보다, 묘주의 생전 관직과 이름을 간략히 기록한 지석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명문에 따르면 주인공은 ‘前城山令’을 지낸 裴處崇이다. 裴零崇으로 판독한 견해도 있으나,³³⁾ 자형을 비교하면 零보다는 處로 읽는 편이 타당하다. 前城山令은 ‘전임 城山令’으로 풀이되며, 城山令은 성산 지역을 관할한令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城山の 위치를 경북 성주로 추정한 견해³⁴⁾도 있지만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城山과 관련해 신라 上州

28) 黃壽永, 1999, 「乾寧二年銘墓誌」, 『韓國金石遺文』, 해안, 116~117쪽.

29) 鄭炳三, 1992a, 「裴零崇 石城刻字」,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신라2·발해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436쪽.

30) 朴方龍, 2000, 「乾寧二年銘墓誌에 對한 考察」, 『考古歷史學誌』 16.

31) 계림문화재연구원, 2017, 『명활성』.

32) 이동주, 2019, 『신라 왕경 형성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47쪽.

33) 許興植 編, 1984, 「裴零崇 石城刻文」, 『韓國金石全文(古代)』, 亞細亞出版社, 233쪽; 鄭炳三, 1992a, 앞의 글; 黃壽永, 1999, 앞의 책.

34) 朴方龍, 2000, 앞의 글.

예하의 星山郡이 주목된다. 星山郡은 본래 一利郡이었으나 경덕왕대 지명 개정 때 星山郡으로 개칭되었고, 현재의 경북 고령 지역에 비정된다. 城山과 星山은 표기상 차이가 있지만, 음상사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前城山令의 城山을 星山郡과 연결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

신라시대 裴씨는 흔히 확인되지 성은 아닌 듯 하다. 유리이사금 9년 6부에 성을 하사하면서 한기부에 성을 裴로 하였다고 한다.³⁵⁾ 다만 이 사실은 후대의 부회로 보인다. 당시 확인되는 인물들로는 배광과 배현백 정도이다. 우선 裴光은 865년 4월 당 의종이 경문왕 책봉을 위해 파견한 사신단의 부사로 확인된다. 이때 정사는 太子右諭德·御史中丞 胡歸厚였고, 裴光은 光祿主簿 겸 監察御史의 직함으로 사행에 참여하였다.³⁶⁾ 광록주부는 광록시의 품계는 정8품이며, 감찰어사의 품계는 종8품하에 해당한다. 裴光은 최치원이 찬한 승복사 비에는 “遂於咸通六年，天子使攝御史中丞胡歸厚，以我鄉人前進士裴匡，腰魚頂豸爲輔行”이란 구절에서 裴匡으로 나온다.³⁷⁾ 진사라는 용어를 통해 그는 당의 빈공과에 급제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裴光은 당에서 급제하고 사신단의 부사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중국의 제도와 문물에 대한 이해가 깊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裴光과 裴泳崇이 같은 가문에 속하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裴泳崇의 지식을 중국 묘지명 문화의 간접적 영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문화 요소가 裴光처럼 당에서 활동한 신라계 인물들을 매개로 신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로서는 두 인물의 계보적 관련성이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능성으로만 제시해 두고자 한다. 이외 裴萱伯은 희강왕을 지지하여 김균정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고, 이 와중에 활로 김양의 다리를 맞추어 부상을 입혔다. 후일 민애왕이 죽임을 당하고 전세가 역전되자 김양이 배현백을 너그럽이 용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³⁸⁾

이 지식은 중국식 묘지명의 완전한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연대와 관직, 인명을 간명하게 기록한 자료이다. 따라서 신라 하대에 묘지명 문화가 제한적으로나마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듯 하다.

4. 경주 용강동 6호 돌방무덤 출토 지식

경주 용강동 6호 돌방무덤 출토 지식은 신라 고분에서 확인된 지식 자료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용강동 6호 돌방무덤은 1991년에 발굴된 7세기 초 신라 귀족 무덤으로, 경주 용강동 금강산 말단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봉분 중앙에는 남서쪽으로 출입 시설을 둔 돌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벽돌을 깎아 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관대 주변에서는 금동으로 감싼 관못, 금동대구, 토기류 등이 확인되었으며, 관대 바깥에는 40여 점의 토기와 함께 지석이 놓여 있었다.

용강동 6호 석실분 출토 지식은 글자의 대부분이 소멸되어 육안 판독이 어렵다. 따라서 명문 내용을 통해 피장자의 신원이나 생전 행적을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체가 7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확인되는 문자 상태만으로는 정형화된 묘지명 문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자료는 개석을 갖춘 지식이라는 점에서, 신라 고분에서

35)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9년.

36) “夏四月，唐 懿宗降使太子右諭德御史·中丞胡歸厚，使副光祿主簿兼監察御史裴光等.”(『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5年)

37) 鄭炳三, 1992b, 「崇福寺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신라2·발해편)』, 駕洛國事蹟開發研究院, 255쪽.

38)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僖康王 元年 및 卷44, 列傳4 金陽.



<도 4> 경주 용강동 고분 6호 석실 출토 지석(慶新9205)

묘지명적 문자자료가 실제로 매납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지석이 붉은 안료로 쓰인 주서 자료라는 사실이다. 순흥 어숙지 술간묘에서도 문자를 새긴 뒤 주철을 감입하여 주서와 유사한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용강동 6호 석실분 지석은 아예 붉은 안료로 문자를 직접 썼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그렇다면 왜 장송 공간의 문자에 붉은색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702년 무렵 밀교승 혜통은 자신이 축출한 蛟龍의 원망으로 위기에 처하였다. 교룡이 鄭恭의 집 앞 버드나무로 변신하자, 정공은 신문왕릉 조영을 위한 도로 개설 과정에서도 별목을 거부하다가 처형되었고, 조정은 그 배후에 혜통이 있다고 보아 무장 병사를 보내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나 혜통이 사기병에 붉은 선을 긋자 병사들의 목에도 같은 선이 나타났고, 왕은 이를 보고 혜통의 신통력을 인정하여 처벌을 중지하였다.³⁹⁾ 주서가 주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朱書가 명계와 관련된 문자 행위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중국의 買地券을 들 수 있다. 宋末元初의 周密은 『癸辛雜識』에서 당시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 때 梓木에 朱書로 매지권을 작성하여, 일정한 돈을 내고 묘지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전한다. 周密은 이를 우스운 풍속으로 보았지만, 민간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묻힐 땅을 토지신에게 정당하게 구입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조상의 영혼이 지하에서 안식할 수 있다고 믿은 행위였을 것이다.⁴⁰⁾ 특히 매지권이 주서로 작성된 것은 그 문서의 독자가 산 사람이 아니라 冥界의 존재인 토지신이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용강동 6호 석실분 출토 지석의 주서 역시 단순한 필기 방식이 아니라, 장송 공간에서 명계와 관련된 의례적·주술적 효력을 지닌 문자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편 이희준은 경주 용강동 6호분에서 자갈돌로 보고되었던 253점의 석제품을 출토 위치와 형태, 크기, 무더기로 나뉘어 출토된 정황 등을 근거로 바둑알로 재판정하였다. 이 유물은 7세기 초로 비정되는 고분의 연대를 고려할 때, 신라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바둑 관련 실물 자료로서 문헌상 효성왕대에 보이는 바둑 관련 기록보다 그 시기를 크게 앞당기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용강동 6호분에서 묘지석을 비롯한 중국풍 또는 중국계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이 바둑알은 묘주가 중국문화에 익숙한 상층 귀족이었을 가능

39) “通在王望寺，見甲徒至登屋携砂瓶研朱筆而呼曰，‘見我所爲。’乃於瓶項抹一畫曰，‘爾輩宜各見項。’視之皆朱畫相視愕然。又呼曰，‘若斷瓶項應斷爾項如何。’其徒奔走以朱項赴王，王曰，‘和尚神通豈人力所能圖。’乃捨之。”(『三國遺事』卷5, 神呪6 惠通降龍)

40) 稻田奈津子 外, 2023, 『黃泉の國との契約書 -東アジアの買地券-』, 勉誠出版, 89쪽.

성과 7세기 초 신라 귀족층의 생활문화 및 대외문화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하였다.⁴¹⁾ 공반 유물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兩珥罐이다. 이 유물은 중국계 수입품으로 이해되며, 기종상 河北省 邢台 大業 3호묘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대금구 가운데 曲棒形帶鉤도 중국계 요소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곡봉형 대구는 중국 전국 시대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빈번하게 확인되는 기종이며, 8세기 초 永泰公主墓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용강동 6호분 출토 유물의 연대는 대체로 7세기 1/4분기로 비정되며,⁴²⁾ 이는 중국사상 수대 말에서 당초에 해당한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확인되는 신라 묘지명 관련 자료는 수량이 적을 뿐 아니라 형식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순흥 어숙묘와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의 묵서명은 무덤 내부에 연대와 인명 또는 관등을 기록한 사례이고, 건녕2년명 석각은 인명과 전직 관직을 간략히 적은 지석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주 용강동 6호 돌방무덤 출토 지석은 판독이 어렵지만, 신라 고분에서 지석이 실제로 매납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중국식 묘지명처럼 피장자의 가계와 생애, 관력, 덕행과 장례 과정을 장문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대, 인명, 관등, 관직 등 피장자를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간략히 제시하는 데 머물러 있다. 이는 신라 사회가 묘지명 문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묘지명 매납이 보편적인 장례 관행으로 정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묘지명은 죽은 자의 생전 지위와 관력, 가계적 정체성과 덕행을 문자로 고정하고, 이를 무덤 속에 매납함으로써 사후에도 피장자의 사회적 기억을 유지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신라의 불교 설화에 나타나는 사후 인식에서 죽은 자는 무덤 안에 고정된 존재로 머물기보다, 업과 공덕, 수행의 결과에 따라 다시 태어나거나 명부·현세·정토·다른 세계를 이동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물론 이러한 사후 인식만으로 신라 묘지명의 희소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라에서 묘지명이 널리 발달하지 않은 현상은 중국식 장송문화의 제한적 수용을 넘어, 신라인의 죽음 이해와 사후 기억 방식이 묘지명 문화의 정착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Ⅲ. 문헌으로 본 신라인의 사후 인식

신라인의 사후 인식은 단순히 죽은 자가 무덤 안에 머문다는 관념에 한정되지 않았다. 문헌에 보이는 죽은 이후의 존재는 ‘靈’·‘魂’·‘鬼’·‘神’ 등이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죽은 자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러한 고대 한국의 영혼관은 중국식 ‘魂魄’ 관념과는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죽은 자의 존재를 ‘魂’과 ‘魄’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관념이 발달하였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특히 ‘魂’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遊魂’, ‘聖帝魂’과 같은 복합어 속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⁴³⁾ 특히 『三國遺事』의 여러 불교 설화에는 윤회와 업보, 명부와 환

41) 이희준, 2013, 「7세기 초 신라 고분 출토 바둑알과 그 의미」, 『영남학』 24, 127~152쪽.

42) 최정범, 2017, 「釜山 福泉洞 65號墳 靑瓷 碗의 再檢討」, 『야외고고학』 29, 147~148쪽.

43) 정효운, 2019,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5, 343~376쪽.

생, 보시와 후보, 정토왕생과 해탈의 관념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라 사회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생전의 행위와 수행, 공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이고 불교적인 질서 속에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기사들은 신라인의 사후 인식에서 죽음이 현세와의 단절이 아니라, 업과 공덕, 수행에 따른 재탄생과 이동, 존재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A-1. 얼마 안 되어 하늘의 음악이 서쪽으로부터 들려오더니 여종이 솟구쳐 집 대들보를 뚫고 나갔다. 서쪽으로 가 교외에 이르러 형체를 버리고 眞身으로 변하여 나타나 연화대(蓮臺)에 앉았다가 큰 광명을 발하면서 서서히 사라지니, 공중에서는 음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 법당에는 지금도 뚫어진 구멍자리가 있다고 한다. 이상 향전이다. 僧傳을 살펴보면, “棟梁 八珍이란 것은 관음보살의 應現이었다. 무리들을 모으니 1천 명이 되었는데,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노력을 하고, 한 패는 정성껏 수행하였다. 그 노력하는 무리 중에 일을 맡아보던 이가 戒를 얻지 못하여 畜生道에 떨어져 浮石寺의 소가 되었다. [그 소가] 일찍이 경전을 싣고 갔기에 경전의 힘을 입어서 전생하여 아간 귀진의 집 여종이 되어 이름을 옥면이라고 하였다.⁴⁴⁾

A-2: 하루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니, 이때 元曉는 高仙寺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원효가 그를 보고 예를 갖추어 맞이하였다. 사복은 답배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와 내가 옛날에 經을 실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함께 장사지냄이 어떨겠소?”라고 하였다. 원효가 말하기를. “좋다”고 하였다. -중략- 말을 마치고 띠풀을 뽑았다. [그] 아래에 있는 세계는 晃朗하고 淸虛하며 칠보로 장식한 난간과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시체를 업고 함께 들어가니 그 땅이 갑자기 합쳐졌다. 원효는 이에 돌아왔다.⁴⁵⁾

A-3: 망덕사의 중 善律은 보시 받은 돈으로 『六百般若經』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공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갑자기 명부의 쫓김을 받아서 저승에 이르렀다. 冥司가 묻기를 “너는 인간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라고 하니 선율이 “빈도는 말년에 『大品經』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명사가 “너의 壽錄은 비록 다 되었으나 뛰어난 소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땅히 인간세계로 돌아가 보전을 완성하여라”라고 하고 곧 놓아 돌려보냈다.⁴⁶⁾

44) “未幾天樂從西來，婢湧透屋樑而出。西行至郊外捐骸，變現真身坐蓮臺放大光明緩緩而逝，樂聲不徹空中。其堂至今有透穴處云。已上鄉傳。按僧傳，‘棟梁八珍者觀音應現也。結徒有一千，分明爲二一勞力，一精修。彼勞力中知事者不獲戒墮畜生道爲浮石寺牛。嘗馱經而行賴經力轉爲阿干貴家婢名郁面。’”(『三國遺事』卷5, 感通7 郁面婢念佛西昇)

45) “一日其母死，時元曉住高仙寺曉見之迎禮。福不答拜而曰，‘君我昔日馱經牝牛今已亡矣偕葬何如。’曉曰，‘諾。’…(중략)…言訖拔茅莖。下有世界晃朗淸虛，七寶欄楯樓閣莊嚴殆非人間世。福負尸共入其地奄然而合。曉乃還。”(『三國遺事』卷4, 義解5 蛇福不言)

46) “望德寺僧善律施錢欲成六百般若，功未周忽被陰府所追至冥。司問曰，‘汝在人間作何業。’律曰，‘貧道暮年欲成大品經功未就而來。’司曰，‘汝之壽錄雖盡，勝願未宜復人間畢成寶典，乃放還。’”(『三國遺事』卷5, 感通7 善律還生)

A-4: 생각건대 저는 지난 세상에서 닦은 착한 행실이 없어 지금 이로 인하여 모자란 것인데, 지금 또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 어려움을 얻을 것입니다. 제 품팔이 밭을 법회에 보시하여, 뒷날의 응보를 도모함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어머니는 말하길, “좋다.” 하여, 이에 밭을 점개에게 보시하였다.⁴⁷⁾

A-5: 얼마 지나지 않아 혜숙이 갑자기 죽자 마을 사람들이 이현(耳峴)형현(礪峴)이라고도 한다. 동쪽에 장사지내었다. 고개 서쪽에서 오는 그 마을 사람이 있었는데 도중에 혜숙을 만나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답하기를 “오래 이땅에 머물렀으니 다른 곳으로 유람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서로 읊(揖)하고 헤어졌는데 반 리쯤 가다가 구름을 타고 떠났다. 그 사람이 고개 동쪽에 이르러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아직 흠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다 설명하고 무덤을 열어 그것을 들여다보니 오직 짙신 한 짝만 있을 뿐이었다.⁴⁸⁾

먼저 A-1 「郁面婢念佛西昇」은 신라 불교의 내세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종 옥면이 염불 수행을 통해 서방정토에 왕생하였다는 데 있다. 기사에서는 하늘의 음악이 서쪽에서 들려오고, 옥면이 솟구쳐 올라 형체를 버린 뒤 眞身으로 변하여 蓮臺에 앉았으며, 큰 광명을 발하면서 사라졌다고 전한다. 여기서 서쪽, 연화대, 광명, 진신은 모두 정토왕생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종이라는 낮은 신분의 인물이 염불 수행을 통해 왕생하였다는 점은, 불교적 구제가 현실의 신분 질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기사의 의미는 신분을 초월한 왕생담에만 머물지 않는다. 『僧傳』 계통의 설명에 따르면, 옥면은 전생에 戒를 얻지 못해 畜生道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가 되었고, 이후 경전을 실어 나른 공덕으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아간 귀진의 집 여종이 되었다. 이는 옥면의 왕생이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업보와 윤회, 공덕과 수행이 단계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곧 전생의 과보로 축생이 되었으나 경전을 옮긴 공덕으로 인간으로 환생하고, 다시 염불 수행을 통해 서방정토에 왕생한 것이다. 따라서 「郁面婢念佛西昇」은 신라 사회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업과 수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윤회적 질서 속에서 이해되었으며, 동시에 정토왕생이라는 불교적 내세관이 구체적인 서사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A-2 「蛇福不言」 역시 전생과 내세에 대한 불교적 인식을 잘 드러낸다. 사복은 죽은 어머니를 두고 원효에게 “그대와 내가 옛날에 經을 실었던 암소가 지금 죽었다”고 말한다. 이는 어머니의 현재 생애를 독립된 일회적 삶으로 보지 않고, 전생의 존재와 연결된 윤회적 시간 속에서 이해한 것이다. 이어 사복이 시신을 업고 들어간 지하 세계는 晃朗하고 淸虛하며, 칠보 난간과 누각으로 장엄된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 장면은 죽음 이후의

47) “念我定無宿善今茲困匱矣, 今又不施來世益艱. 施我傭田於法會以晷後報何如. 母曰, ‘善.’ 乃施田於開.”(『三國遺事』 卷5, 孝善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48) “幾宿忽死, 村人輦葬於耳峴一作礪峴. 東. 其村人有自峴西來者逢宿於途中問, ‘其何往’, 曰, ‘久居此地欲遊他方爾.’ 相揖而別, 行半許里躡雲而逝. 其人至峴東見葬者未散, 具說其由開塚視之, 唯芒鞋一隻而已.”(『三國遺事』 卷4, 義解5 二惠同塵)

세계가 어둡고 음습한 공간으로만 상상된 것이 아니라, 불교적 장엄으로 구성된 청정한 세계로 이해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기사는 죽은 자가 단순히 무덤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전생과 내세를 오가는 윤회적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A-3 「善律還生」은 명부와 환생의 관념을 통해 사후 세계가 일정한 심판과 조정의 공간으로 상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선율은 수명이 다하여 명부에 이르지만, 『六百般若經』을 완성하려는 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인간세계로 돌아온다. 이 기사에는 명부, 冥司, 壽籙, 사후 심문, 환생의 요소가 모두 나타난다. 여기서 명부는 죽은 자의 수명을 관장하고 생전의 행위를 확인하는 공간으로 그려지지만, 동시에 인간 세계에서의 불교적 願과 공덕이 사후 운명을 조정할 수 있는 장소로 나타난다. 곧 사후 세계는 단순한 귀신의 거처가 아니라, 업과 공덕이 평가되고 그 결과에 따라 죽은 자의 행로가 조정되는 행정적·불교적 공간으로 상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A-4 「大城孝二世父母」는 윤회와 업보 인식이 일상적 차원에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대성은 자신이 현세에서 가난한 이유를 지난 세상에서 닦은 착한 행실이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지금 다시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그는 품팔이 받을 법회에 보시하여 뒤날의 응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장면은 인간의 현재 처지가 전생의 선행 여부와 연결되며, 현재의 보시가 내세의 안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전생·현생·내세가 업과 보시를 매개로 연속되는 구조 속에서 이해되었다.

마지막으로 A-5 「二惠同塵」의 해숙 기사는 앞선 정토왕생담이나 명부환생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해숙은 죽은 뒤 무덤에 시신을 남기지 않고 짚신 한 짚만 남긴 채, 길에서 사람을 만나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말한 뒤 구름을 타고 사라진다. 이는 서방정토 왕생이라기보다 고승의 신이한 해탈 또는 신선적 승천에 가까운 장면이다. 이 사례는 신라의 내세관이 정토왕생이나 명부심판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고승의 탈신체적 존재 전환과 신이한 승천의 상상력까지 포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기사들을 종합하면, 신라인의 사후 인식은 단순히 죽은 자가 무덤에 안치되어 후손의 기억 속에 머무는 방식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 『三國遺事』에 보이는 불교 설화 속에서 죽은 자는 윤회와 업보의 질서 속에 놓이며, 생전의 공덕과 수행, 願과 보시에 따라 축생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정토로, 명부에서 다시 현세로 이동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따라서 신라의 내세관은 정토왕생, 윤회전생, 명부심판, 보시와 응보, 신이한 해탈이 복합적으로 공존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죽은 자의 신원과 행적을 묘지명에 고정하여 무덤 안에 매납하는 중국식 장송문화와는 다른 방향에서, 죽음 이후의 존재를 유동적이고 전환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시사한다.

IV. 묘지명의 희소성과 사후 인식

앞서 검토한 국내 신라 묘지명 관련 자료는 수량이 적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순흥 어숙묘 묵서명과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묵서명은 무덤 내부에 연대와 인명 또는 관등을 적은 사례이고, 건녕2년명 석각은 연대와 전직 관직, 인명을 간략히 기

룩한 지식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용강동 6호 돌방무덤 출토 지식은 판독이 어렵지만, 신라 고분에서 지식이 실제로 매납되었음을 보여준다. 신라 묘지명의 정보는 연대, 인명, 관등, 관직 등 피장자를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하는 데 머문다. 따라서 신라의 묘지명 관련 자료는 정형화된 묘지명이라기보다, 장송 공간 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문자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양상은 신라 사회가 묘지명 문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라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고, 특히 649년 김춘추는 고유한 의관제를 파기하고 당의 의관제를 채택하였다.⁴⁹⁾ 이듬해 신라 연호 太和를 대신하여 당의 연호인 永徽로 개원하였다.⁵⁰⁾ 진덕여왕 5년(651) 신라의 朝貢使 沙湊 知萬이 唐服을 입고 축자에 정박하였다. 일본 조정에서는 마음대로 복장을 바꾼 것을 불쾌하게 여겨 책망하여 쫓아보냈다고 한다.⁵¹⁾ 신라를 강타한 唐風의 속도에 일본 조정은 충격에 빠졌던 것 같다. 용강동 6호분의 외래유물의 양상은 신라가 대중국 교섭을 통해 다양한 외래 문물을 수용하였고, 그 일부가 신라 귀족의 장송 공간에도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건녕2년명 석각 역시 하대 신라에서 묘지명 문화가 제한적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제는 묘지명 문화의 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신라 내부에서 왜 보편적인 장례 관행으로 정착하지 않았는가에 있다.

묘지명은 죽은 자의 생전 정체성을 문자로 고정하는 장치이다. 피장자의 이름, 가계, 관력, 덕행, 장례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무덤 안에 매납함으로써, 죽은 자의 사회적 존재를 사후에도 유지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방식은 죽은 자가 사후에도 생전의 가계 질서와 신분 질서, 관직 질서 안에서 기억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관련된다. 곧 묘지명은 죽은 자의 삶을 일정한 문장 형식 안에 정리하고, 그 기억을 무덤 속에 보존하는 장송 문자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본 신라인의 사후 인식은 중국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三國遺事』의 여러 불교 설화에서 죽은 자는 무덤 안에 고정된 존재로 머물지 않는다. 죽은 자는 업과 공덕, 수행에 따라 다시 태어나거나, 명부와 현세, 정토와 다른 세계를 이동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다시 말해 신라의 사후 인식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고정된 종착지가 아니라, 재탄생과 이동, 존재 전환이 이루어지는 유동적인 질서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사후 인식은 중국식 묘지명 문화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식 묘지명이 죽은 자의 생전 지위와 가계적 정체성을 무덤 안에 문자로 보존하려는 방식이라면, 신라의 불교적 사후 인식은 죽은 자를 생전의 신분과 지위에 고정된 존재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죽은 자는 업보에 따라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공덕에 따라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며, 염불과 수행을 통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는 생전의 관력과 가계를 장문으로 기록하여 무덤 속에 고정하려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신라 묘지명의 희소성을 사후 인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묘지명 문화의 정착 여부에는 무덤 구조, 장례 제도, 문자 사용층, 중국식 예제의 수용 정도, 지역과 계층의

49) “春正月, 始服中朝衣冠.”(『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3年)

50) “是歲, 始行中國永徽年號.”(『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4年)

51) “是歲, 新羅貢調使知萬沙湊等, 着唐國服, 泊于筑紫. 朝廷, 惡恣移俗, 訶責追還.”(『日本書紀』 卷25, 孝德天皇 白雉 2年)

차이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순흥 어숙묘 묵서명에 述干이 기록되고, 건녕2년명 석각에 前城山승이 보이는 점은 신라에서도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가 장송 공간 안에서 일정하게 표시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러한 정보는 장문의 서사로 확장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표지로 남았다.

이 점에서 신라의 장송 문자는 중국식 묘지명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신라에서는 죽은 자의 이름과 관등, 관직, 연대를 문자로 표시하는 행위가 확인되지만, 그것은 피장자의 생애와 가계를 상세히 서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덤 내부의 특정 위치에 배치되거나, 주서와 결합하여 의례적·주술적 의미를 지닌 문자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라의 묘지명 관련 자료는 피장자의 사회적 기억을 장문으로 보존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장송 공간 안에서 죽은 자의 존재를 표시하고 사후 공간의 질서를 구성하는 제한적 문자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신라 묘지명 문화의 희소성은 단순한 자료 결핍으로만 볼 수 없다. 신라 사회는 묘지명 문화를 알고 있었고, 지식이나 묵서명과 같은 장송 문자자료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식 묘지명처럼 생전의 삶을 장문으로 정리하여 무덤 안에 매납하는 방식으로 일반화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식 장송문화의 제한적 수용을 보여주는 동시에, 죽은 자를 고정된 사회적 기억으로 보존하기보다 업과 공덕, 수행에 따른 이동과 전환의 존재로 이해한 신라인의 사후 인식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신라 묘지명 문화의 희소성은 중국과 구별되는 신라인의 죽음 이해와 사후 기억 방식이 반영된 역사적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신라 묘지명 자료의 희소성에 주목하여, 그 현황과 성격을 검토하고 이를 신라인의 사후 인식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확인되는 신라 묘지명 관련 자료로는 순흥 어숙묘 묵서명,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묵서명, 건녕2년명 석각, 경주 용강동 6호 석실분 출토 지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는 모두 무덤 내부 또는 장송 공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연대·인명·관등·관직 등 피장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나 중국식 묘지명처럼 피장자의 가계와 생애, 관력과 덕행, 장례 과정을 장문으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라의 묘지명 관련 자료는 정형화된 묘지명이라기보다, 장송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된 문자자료로 이해된다.

한편 문헌에 보이는 신라인의 사후 인식은 죽은 자가 무덤 안에 고정되어 머무는 관념에 한정되지 않았다. 『三國遺事』의 여러 불교 설화에서 죽은 자는 업과 공덕, 수행에 따라 다시 태어나거나, 명부와 현세, 정토와 다른 세계를 이동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죽은 자의 생전 지위와 가계적 정체성을 무덤 속 문자자료에 고정하려는 중국식 묘지명 문화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신라 묘지명의 희소성을 사후 인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무덤 구조, 장례 제도, 문자 사용층, 중국식 예제의 수용 정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신라 묘지명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반면, 중국에서는 재당 신라인의 묘지명이 다수 확인된다는 사실은 신라가 묘지명 문화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를 중국과 다른 방

식으로 수용하였음을 시사한다.

결국 신라 묘지명 자료의 희소성은 단순한 자료 결핍이 아니라, 신라 사회의 장례 실천과 사후 기억 방식이 지닌 특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죽은 자를 문자로 표시하는 행위가 존재하였지만, 그것이 피장자의 생애와 가계를 장문으로 기록하여 무덤 속에 매납하는 방식으로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신라 묘지명 문화의 희소성은 중국과 구별되는 신라인의 죽음 이해와 사후 인식이 반영된 역사적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日本書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고대 사료 DB 금석문·문자 자료

저서 및 논문

계림문화재연구원, 2017, 『명활성』.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 -新羅人の 記録과 筆跡-』(특별전 도록).

권기현, 2020, 「8세기 중엽 신라의 對唐關係 -在唐 新羅人 金日晟 墓誌銘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5.

권덕영, 2009, 「〈大唐故金氏夫人墓銘〉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54.

권덕영, 2021a,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자료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권덕영, 2021b,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권덕영, 2023a, 『중국 금석문으로 한국 고대사 읽기』, 학연문화사.

권덕영, 2023b, 「신라 관련 중국 금석문 검토」, 『중국 금석문으로 한국 고대사 읽기』, 학연문화사.

김원룡, 1986, 『한국고고학개설』(제3판), 일지사.

김영관, 2013, 「在唐 新羅人 金日用 墓誌銘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27.

김영관, 2025, 「在唐 新羅人 金泳(747~794) 墓誌銘 檢討」, 『신라사학보』 65.

김재홍, 2019, 「함안 성산산성과 출토 목간의 연대」, 『목간과 문자』 22.

김창호, 1987, 「중원고구려비의 재검토」, 『한국학보』 47.

金昌鎬, 1989, 「順興 己未銘 壁畫古墳의 築造」, 『釜山市立博物館年報』 11.

金昌鎬, 1995, 「順興 己未銘 壁畫 古墳의 築造年代」, 『順興邑內里壁畫古墳』.

김철준, 1990,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남종진, 2004, 「中國 墓誌銘 起源考」, 『중국어문학논집』 26.

大邱大學校博物館, 1995, 『順興邑內里壁畫古墳』.

朴方龍, 2000, 「乾寧二年銘墓誌에 對한 考察」, 『考古歷史學誌』 16.

박주선, 2025, 「재당신라인 金泳의 가계 복원 시론 -「金泳墓誌銘」을 단서로-」, 『歷史學研究』 99.

배노찬, 2025, 「묘지명과 고고자료로 본 在唐 新羅人 金泳」, 『한국고대사연구』 119.

이경섭,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地名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 23.

이동주, 2019, 『신라 왕경 형성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이동주, 2023, 「한국 고대 朱書 자료의 검토」, 『동국사학』 77.

李明植, 1986,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의 역사적 환경」, 『順興邑內里壁畫古墳』,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李明植, 1992a, 「於宿知述干墓 墨書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신라1·가야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李明植, 1992b, 「順興 邑內里 壁畫古墳 墨書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신라1·가야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이영호, 2009, 「在唐 신라인 金氏墓誌銘의 검토」, 『신라사학보』 17.
- 이화여대박물관, 1984, 『榮州順興里壁畫古墳發掘調査報告』.
- 이희준, 2013, 「7세기 초 신라 고분 출토 바둑알과 그 의미」, 『영남학』 24.
- 임창순, 1986, 「순흥 벽화고분에 있는 문자」, 『順興邑內里壁畫古墳』,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鄭炳三, 1992a, 「裴零崇 石城刻字」,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신라2·발해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鄭炳三, 1992b, 「崇福寺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신라2·발해편)』, 駕洛國事蹟開發研究院.
- 정효운, 2019, 「고대 한국인의 사생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5.
- 최정범, 2017, 「釜山 福泉洞 65號墳 靑瓷 碗의 再檢討」, 『야외고고학』 29.
- 許興植 編, 1984, 『韓國金石全文(古代)』, 亞細亞出版社.
- 黃壽永, 1999, 「乾寧二年銘墓誌」, 『韓國金石遺文』, 혜안.
- 夏培朝·魏鍼 著(김영관 역), 2025, 「唐의 新羅質子 金泳 墓志 考略」, 『한국고대사탐구』 50.
- 稻田奈津子 外, 2023, 『黄泉の國との契約書 -東アジアの買地券-』, 勉誠出版.
- 東潮, 1987, 「新羅·於宿知述干壁畫古墳に關する一考察」,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 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 上, 同朋舎.
- 町田章, 1987, 『古代東アジアの裝飾墓』, 同朋舎.

이동주, 「신라 묘지명 자료의 희소성과 사후 인식」에 대한 토론문

한준수(국민대학교)

최근 묘지명을 비롯한 금석문 자료가 문헌 사료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며 역사적 시대상 도출에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본 연구 역시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소략한 신라의 묘지명 자료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증과 사료 활용, 문장 서술이 간결하고 깔끔해서 필자의 서술 의도와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흥미로운 견해에 대해 대체로 동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관련 분야 연구의 진전을 위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글의 제목에 대하여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II장 제목이 “신라 묘지명 자료의~”라 하였는데, 고찰 대상은 신라 영역 내 출토(발견) 묘지명 자료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료가 지극히 소략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약간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의 내용에 국한한다면 제목에 ‘국내 출토’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金日用, 金泳 등 唐 출토 신라인 묘지명을 함께 다루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 출토 묘지명의 경우 신라 고유의 인식과 차이점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묘지명 자료의 시대적 변화상에 대하여 서술이 추가될 수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현재 고찰된 4개의 출토 묘지명(①순흥 어숙묘, ② 순흥 읍내리 고분, ③건녕 2년명, ④경주 용강동 6호분)은 발표자의 견해를 토대로 할 때 시대순은 아닌 듯합니다. 발표자가 ④의 연대를 ‘7세기 1/4분기’로 비정한 만큼(9쪽), 이를 반영한 순서로 제시하고 고찰한다면 (①→②→④→③), 묘지명의 시대적 특징이나 변화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추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사후 인식의 서술에 있어 제시된 내용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불교적 세계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묘지명에서는 死生觀이 잘 파악되지 않으므로 그런 것이라 생각되지만, 불교 이외의 요소나 지리적·지역적 특색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순흥 지역의 경우 소백산맥에 위치하고, 고구려 계통의 벽화가 그려지는 등¹⁾ 墓主가 고구려계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역만으로 판단할 때 논리상 무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배 영역과 문화적 영역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지리적 특징도 서술에 함께 담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4. 자료 이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필자는 「건녕 2년명 석각」이라 하였는데, 공식적인 표현은 「裴零崇刻字石城」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에서 자료에 대한 발표자의 시각이

1) 김준식, 2024, 「형혈식석실로 본 순흥지역 신라 벽화고분의 성격」, 『영남학』 90, 165쪽.

나 서술 의도가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심화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명 판독은 다를 수 있지만 築城碑가 아닌 묘지석으로 판단할 경우 지니는 한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제목의 변경이 아니라 사료의 성격이 변동되는 사항인 만큼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성산령’이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지역을 경북 성주에 대신하여 경북 고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 군현에 성산군은 있으나,²⁾ 성산현은 존재하지 않았고, 사료상 창녕 지역에서 성산향³⁾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성산령을 성산향령의 축약⁴⁾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료의 성격과 지명에 대하여 보완 서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5. 신라의 묘지석과 중국식 묘지석의 차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라의 장송 문자는 중국식 묘지명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118쪽)는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가 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찰한 4개의 자료 가운데 외형상 중국(당) 묘지석과 같은 것은 ④경주 용강동 6호분 출토 묘지석 뿐인 듯합니다. ④의 경우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제시된 그림을 통해서 보면 상당한 문장 서술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중국(당) 묘지석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비슷한 면도 많을 듯합니다. ④의 판독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성격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신라가 나당동맹을 통해 唐制를 도입하면서도 고유한 모습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2) “星山郡 本一利郡(一云里山郡) 景德王改名 今加利縣.”(『三國史記』卷第34, 雜誌3, 康州)

3) “城山鄉在縣北二十三里.”(『新增東國輿地勝覽』卷第27, 慶尙道 昌寧縣 古跡)

4) 전덕재, 2014, 「통일신라의 향(鄉)에 대한 고찰」, 『역사와 현실』 94, 345~346쪽.

2026년 신라사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 고대의 ‘死者의 書’

-묘지명·매지권에 투영된 고대 사회의 생사관-

발행처

신라사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317호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진리관 402호

발행일

2026년 6월 20일